

# 景岳全書 脈神章 中 內經脈義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진단학교실

이홍규, 이영진, 정현영\*, 박 경<sup>1)</sup>

##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Pulse in Internal Classic(內經脈義) in the Chapters on Vitality of Pulse(脈神章)in the Complete Works of Zhang Jingyue(景岳全書)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Won Kwang University

Lee Hong-kyu, Lee Young-jin, Jeong Heon-young, Park kyoung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Pulse in Internal Classic(內經脈義) in the Chapters on Vitality of Pulse(脈神章) in the Complete Works of Zhang Jingyue(景岳全書) Vol. IV.

The Complete Works of Zhang Jingyue(景岳全書) is composed of 64 volumes. Maishenzhang, the Chapters on Vitality of Pulse(脈神章) is composed of 3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the Significance of Pulse in Internal Classic(內經脈義). The terminology, Maishen(脈神) means the Vitality of Pulse, which was introduced by Zhang Jingyue to emphasize that the keypoint of sphygmological diagnosis is the vitality of pulse. The Significance of Pulse in Internal Classic(內經脈義) is composed of 20 parts including Buwei(部位), Maidu(脈度), Sanbujihou(三部九候), Qizhen(七診), Liuqingmaoti(六經脈體), ect. in Miraculous Pivot(靈樞). There are no commentaries in most of them, which is because there are explanatory notes in Leijing(類經).

Therefore, I referred to explanatory notes in Leijing(類經) to study the Significance of Pulse in Internal Classic(內經脈義), and make a study as followings.

Key Words : Significance of Pulse, Maishenzhang, Complete Works of Zhang Jingyue

에 『類經』, 『類經圖翼』, 『類經附翼』, 『景岳全

## I. 序論

本 論文은 張介賓의 『景岳全書·卷四』의 「脈神章」 가운데 「內經脈義」를 研究한 것이다.

著者인 張介賓은 明代 嘉靖 42年(西紀 1563年)부터 崇禎 13年(西紀 1640年)까지 生存한 醫學家로, 字가 會卿이며 號가 景岳이고 別號가 通一子이다. 著書

『質疑錄』이 있다. 『景岳全書』는 대략 1636~1637年(明崇禎 9-10年)사이에 완성되었으나, 3년 뒤 景岳이 他界함으로써 당시에는 完結하지 못하였다가 1700年(淸康熙 39年)에 이르러 景岳의 外孫인 林日蔚이 草稿를 廣州의 魯超(謙庵)에 依賴하여 板刻함으로써 비로소 世上에 流布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魯本이며, 이후에 賈本, 查本이 더 完結되었다.

『景岳全書』는 모두 64권이며, 「傳忠錄」,

\* 교신저자: 정현영,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063)850-6808, jikjae@wonkuang.ac.kr

「脈神章」, 「傷寒典」, 「雜證謨」, 「婦人規」, 「小兒則」, 「痘疹詮」, 「外科鈴」, 「本草正」, 「新方八陣」, 「古方八陣」, 「婦人規古方」, 「小兒則古方」, 「痘疹詮古方」, 「外科鈴古方」 등 15種으로 구성되어있다.<sup>14)</sup> 이 가운데 「脈神章」은 全

書의 제 4-6권인데, 제 4권은 '內經脈義'로서 『內經』의 脈診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제 5권은 '通一子脈義'로서 張介賓 자신의 脈診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제 6권은 '難經脈義', '仲景脈義', '滑氏脈義', '附 諸家脈義'로서 秦越人, 張機, 滑壽, 汪機, 吳昆, 彭用光的 脈診에 대한 주장을 모으고 그에 대한 張介賓 자신의 見解를 추가하였다.

「脈神」이라 命名한 意義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通一子脈義·脈神」에 “脈이란 血과 氣의 神이고, 正氣와 邪氣의 거울이다.……脈에 24가지가 있고 主病이 各各 다르지만, 한가지 脈이 여러 病을 겸할 수 있고, 한가지 病에도 역시 여러 가지 脈이 겸하여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가운데 숨어있는 미묘함은 매우 그윽하고 비밀스러우니 바로 여러 가지 脈에 모두 虛實의 變化가 있을 따름이다. 脈이 이와 같으므로 그 안에 神靈이 깃들어 있다.……病의 本과 末, 先과 後를 알 수 있다면 이는 神靈이 이른 것이다.”<sup>15)</sup>라고 하였고, 또 「通一子脈義·獨論」에 “脈을 잘 보는 醫師는 神을 살피는 것을 貴하게 여기고, 形을 살피는 것을 貴하게 여기지 않는다. 形을 살피는 사람은 形이 천만번 바뀌므로 그 要點을 얻을 수 없지만, 神을 살피는 사람은 精一하여 홀로 그 眞髓를 본다.”<sup>16)</sup>라고 하여, 脈의 變化가 微妙하지만 그 바탕에 있는 生命活動의 狀態를 살펴 有神, 無神을 判別

한다면 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脈의 關鍵이 神에 있다는 의미로 '脈神'이란 用語를 사용하였다고 본다.

'內經脈義'는 『內經』의 내용 중 脈診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素問』의 「陰陽別論」, 「六節藏象論」, 「脈要精微論」, 「平人氣象論」, 「玉機眞藏論」, 「三部九候論」, 「宣明五氣篇」, 「通評虛實論」, 「腹中論」, 「至眞要大論」과 『靈樞』의 「邪氣藏府病形」, 「終始」, 「五十營」, 「五色」의 내용 가운데 部位, 脈度, 三部九候, 七診, 六經脈體, 四時脈體, 胃氣, 六變, 內外上下, 脈色, 人迎氣口, 脈從病反, 搏堅軟散, 寸口諸脈, 諸脈證, 病治易難, 眞臟脈, 關格, 孕脈, 乳子脈과 關聯된 文章을 拔萃하였으며, 註釋이 없고 일부에 考察만 하였다. '內經脈義'에 註釋이 없는 것은 『類經』에 이미 仔細한 註釋이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며 따라서 內經脈義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類經』의 註釋을 참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本論文은 『類經』에 있는 張介賓의 註釋을 위주로 하고 아울러 諸家 註釋을 參考하여 研究를 進행하였으며, '內經脈義'를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함으로써 張介賓의 脈學에 대한 이해를 圖謀하고자 하였다.

## II. 研究資料 및 方法

本論文은 原文의 懸吐, 校勘, 註釋, 國譯, 考察의 順序로 研究하였다.

1. 本 研究의 原文은 以前의 여러 板本을 整理하여 刊行한 現代의 板本 가운데 가장 時代가 앞서는 人民衛生出版社, 1991年度 刊 景岳全書를 底本으로 하였다.

2. 各 節의 題目 뒤에는 括弧 안에 題目의 國譯을 附記하였다.

3. 懸吐는 傳來의 方法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李<sup>17)</sup>

1) 張景岳.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2.  
 2) 張景岳.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89. 脈者, 血氣之神, 邪正之鑒也.……雖脈有二十四名, 主病各異, 然一脈能兼諸病, 一病亦能兼諸脈, 其中隱微, 大有玄秘, 正以諸脈中亦皆有虛實之變耳. 言脈至此, 有神存矣. ……能知本末先後, 是即神之至也矣.  
 3) 張景岳.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97. 故善爲脈者, 貴在察神, 不在察形. 察形者, 形千形萬, 不得其要, 察神者, 惟一惟精, 獨見其眞也.

17) 李南九. (懸吐註釋) 景岳全書. 법인문화사. 서울. 2002.

의 吐를 參考하였다.

4. 校勘은 아래 <表 1>의 文獻을 涉獵하였으며, 古字나 俗字 및 異體字, 簡體字는 따로 校勘하지 않았다.

5. 註釋은 張介賓의 『類經』 註釋을 따랐으며, 『類經』에서의 編制는 <表 2>와 같다. 玉篇, 字典, 辭典에서 引用한 註釋은 考察 등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미 公認된 내용이므로 脚注를 省略하였다.

6. 國譯은 『類經』 註釋의 내용을 근거로 意譯하였다.

7. 考察은 張介賓의 按을 拔萃, 引用하였고, 異論의 餘地가 있는 主張도 紹介하였다.

8. 本 研究에 使用한 符號로 校勘에는 ‘○○’, 註釋에는 ‘(○○)’, 引用文獻에는 ‘『○○』’, 引用篇과 論文에는 ‘「○○」’로 表示하였다.

| 番號 | 編著者 | 書名      | 略稱                      | 備考                        |
|----|-----|---------|-------------------------|---------------------------|
| 1  | 張介賓 | 景岳全書    | 人民                      |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年.       |
| 2  |     |         | 中醫藥                     |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4年.      |
| 3  |     |         | 古籍                      |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9年.       |
| 4  |     | 張景岳醫學全書 | 全書                      |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年.      |
| 5  |     | 景岳全書    | 藜照樓                     | 越郡藜照樓藏板, 乾隆33(1768)年 重鐫   |
| 6  |     |         | 九思堂                     | 嘉興九思堂藏板, 刊行年未詳.           |
| 7  |     |         | 金閭                      | 金閭書業堂藏板, 嘉慶24(1819)年.     |
| 8  |     | 上海      | 上海圖書集成印書局, 光緒20(1894)年. |                           |
| 9  |     | 張氏景岳全書  | 育文                      | 育文書局 石印, 上海, 民國2(1913)年.  |
| 10 |     |         | 廣益                      | 廣益書局, 上海, 1933年.          |
| 11 |     | 景岳全書    | 岳峙樓                     | 岳峙樓藏板, 上海衛生出版社 影印, 1958年. |
| 12 |     |         | 四庫                      | 文淵閣四庫全書, 1781年.           |
| 13 |     | 張氏景岳全書  | 毘陵章氏                    | 毘陵章氏藏板, 刊行年 未詳.           |

표 1. 校勘에 引用한 文獻 및 略稱

| 內經脈義   |    | 類經     |                | 內經      |
|--------|----|--------|----------------|---------|
| 篇名     | 卷數 | 編制     | 題目             | 篇名      |
| 1 部位   | 5卷 | 脈色類 2  | 部位             | 素問脈要精微論 |
| 2 脈度   | 8卷 | 經絡類 26 | 一萬三千五百息五十營氣脈之數 | 靈樞五十營篇  |
| 3 三部九候 | 5卷 | 脈色類 5  | 三部九候           | 素問三部九候論 |

|    |      |     |        |            |            |
|----|------|-----|--------|------------|------------|
| 4  | 七珍   | 5卷  | 脈色類 6  | 七診         | 素問·三部九候論   |
| 5  | 六經脈體 | 5卷  | 脈色類 14 | 三陽脈體       | 素問·平人氣象論   |
|    |      | 27卷 | 運氣類 31 | 六氣之勝五藏受邪脈應 | 素問·至真要大論   |
| 6  | 四時脈體 | 5卷  | 脈色類 10 | 四時藏脈病有太過不及 | 素問·玉機眞藏論   |
|    |      | 5卷  | 脈色類 12 | 逆從四時無胃亦死   | 素問·玉機眞藏論   |
|    |      | 15卷 | 疾病類 25 | 宣明五氣       | 素問·宣明五氣篇   |
| 7  | 胃氣   | 5卷  | 脈色類 12 | 逆從四時無胃亦死   | 素問·玉機眞藏論   |
|    |      | 19卷 | 鍼刺類 8  | 陰陽虛實補寫先後   | 靈樞·終始篇     |
|    |      | 5卷  | 脈色類 11 | 脈分四時無胃曰死   | 素問·平人氣象論   |
|    |      | 5卷  | 脈色類 12 | 逆從四時無胃亦死   | 素問·平人氣象論   |
| 8  | 六變   | 6卷  | 脈色類 19 | 藏脈六變病刺不同   | 靈樞·邪氣藏府病形篇 |
| 9  | 內外上下 | 6卷  | 脈色類 21 | 諸脈證診法      | 素問·脈要精微論   |
| 10 | 脈色   | 5卷  | 脈色類 17 | 三診六變與尺相應   | 靈樞·邪氣藏府病形篇 |
| 11 | 人迎氣口 | 6卷  | 脈色類 32 | 色藏部位脈病易難   | 靈樞·五色篇     |
| 12 | 脈從病反 | 10卷 | 標本類 1  | 六氣標本所從不同   | 素問·至真要大論   |
| 13 | 搏堅軟散 | 6卷  | 脈色類 20 | 搏堅軟散爲病不同   | 素問·脈要精微論   |
| 14 | 寸口諸脈 | 5卷  | 脈色類 16 | 寸口尺脈診諸病    | 素問·平人氣象論   |
| 15 | 諸脈證  | 6卷  | 脈色類 21 | 諸脈證診法      | 素問·脈要精微論   |
|    |      | 6卷  | 脈色類 29 | 陰陽虛搏病候死期   | 素問·陰陽別論    |
| 16 | 病治易難 | 5卷  | 脈色類 12 | 逆從四時無胃亦死   | 素問·平人氣象論   |
|    |      |     |        |            | 素問·玉機眞藏論   |
| 17 | 眞藏脈  | 6卷  | 脈色類 26 | 脈有陰陽眞藏     | 素問·陰陽別論    |
|    |      | 6卷  | 脈色類 27 | 骨枯肉陷眞藏脈見者死 | 素問·玉機眞藏論   |
| 18 | 關格   | 6卷  | 脈色類 22 | 關格         | 素問·六節藏象論   |
| 19 | 孕脈   | 6卷  | 脈色類 23 | 孕脈         | 素問·平人氣象論   |
|    |      |     |        |            | 素問·陰陽別論    |
|    |      | 17卷 | 疾病類 62 | 胎孕         | 素問·腹中論     |
| 20 | 乳子脈  | 15卷 | 疾病類 47 | 乳子病熱死生     | 素問·通評虛實論   |

표 2. 「內經脈義」의 『類經』과 『內經』에서의 出處

### III. 本論

#### 第 1 節 診脈의 部位

部位一

【原文】

部位解 見後章

脈要精微論에曰尺內<sup>(1)</sup>兩傍<sup>(2)</sup>은則季脇<sup>(3)</sup>也니尺外<sup>(4)</sup>로以候腎하고尺裏<sup>(5)</sup>로以候腹하며中附上<sup>(6)</sup>에左外<sup>(7)</sup>로以候肝하고內<sup>(7)</sup>로以候膈<sup>(8)</sup>하며右外<sup>(9)</sup>로以候胃하고內<sup>(9)</sup>로以候脾하며上附上<sup>(10)</sup>에右外로以候肺하고內로以候胸中<sup>(11)</sup>하며左外로以候心하고內로以候膻中<sup>(12)</sup>이라前으로以候前하고後로以候後<sup>(13)</sup>하며上竟上<sup>(14)</sup>者는胸喉中事也요下竟下<sup>(15)</sup>者는少腹腰股膝脛中事也라하니라

【註釋】

- (1) 尺內(척내); 尺部를 말한다. 關의 앞을 寸, 關의 뒤를 尺이라 하므로 尺內라 하였다.<sup>18)</sup>
- (2) 兩傍(양방); 左右手로 보아야한다. 아래의 中附上, 上附上에서는 모두 좌우를 말하였는데, 유독 尺內에서만 左右를 나누지 않은 것은 兩尺이 모두 腎을 主宰하기 때문이다.<sup>19)</sup>
- (3) 季脇(계협); 작은 肋骨로 脇下 兩傍에 있다고 하였는데, <sup>20)</sup> 脇下 兩傍의 第 12 肋骨이다. \* 季(계); 末也, 끝 계.
- (4) 尺外(척외); 尺脈의 前半部.<sup>21)</sup>
- (5) 尺裏(척리); 尺脈의 後半部.<sup>22)</sup>
- (6) 中附上(중부상); 關脈.<sup>23)</sup>
- (7) 左外(좌외), 內(내); 左外는 左側 關脈의 前半部, 內는 左側 關脈의 後半部이다.<sup>24)</sup>
- (8) 膈(격); 膈膜으로, 中焦의 膈府까지도 여기에

포함된다.<sup>25)</sup>

- (9) 右外(우외), 內(내); 右外는 右側 關脈의 前半部, 內는 右側 關脈의 後半部이다.
- (10) 上附上(상부상); 寸脈.<sup>26)</sup>
- (11) 胸中(흉중); 膈膜 위쪽의 胸腔.<sup>27)</sup>
- (12) 膻中(단중); 양쪽 乳頭 사이로 氣海라고도 하며, 心包가 있는 곳이다.<sup>28)</sup>
- (13) 前以候前 後以候後(전이후전 후이후후); 앞의 ‘前’, ‘後’는 脈의 位置를 말한다. 통틀어서 말하면 寸脈이 前, 尺脈이 後이지만 나누어서 말하면 上半部가 前, 下半部가 後이다.<sup>29)</sup> 뒤의 ‘前’, ‘後’는 이로써 살필 수 있는 身體의 部位를 말한다.
- (14) 上竟上(상경상); 寸部의 제일 윗부분이다.<sup>30)</sup> \* 竟; 窮也, 다할 경.
- (15) 下竟下(하경하); 尺部의 제일 아랫부분이다.<sup>31)</sup>

【國譯】

「部位解」는 뒤의 「通一子脈義」에 있다.  
 「脈要精微論」에 “左右 尺部는 季脇에 해당하니, 尺部의 前半部로 腎을, 後半部로 腹部를 살피며, 關部에서 左側 關部의 前半部로 肝을, 後半部로 膈膜과 膈府를 살피며, 右側 關部의 前半部로 胃를, 後半部로 脾를 살피며, 寸部에서 右側 寸部의 前半部로 肺를, 後半部로 胸中을 살피며, 左側 寸部의 前半部로 心을, 後半部로 心包를 살핀다. 寸部와 寸關尺의 前半部로 身體의 前部를 살피고, 尺部와 寸關尺의 後

1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尺內者, 關前曰寸, 關後曰尺, 故曰尺內.  
 1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諸部皆言左右 而此獨不分者, 以兩尺皆主乎腎也.  
 2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季脇, 小肋也, 在脇下兩傍.  
 2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尺外, 尺脈前半部也.  
 2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尺裏, 尺脈後半部也.  
 2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中附上, 言附尺之上而居乎中者, 卽關脈也.  
 2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左外, 言左關之前半部, 內, 言左關之後半部, 餘放此.

2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舉兩而言, 則中焦之膈膜膈府皆在其中矣.  
 2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8. 上附上, 言上而又上, 則寸脈也.  
 2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8. 胸中者, 膈膜之上皆是也.  
 2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8. 膻中者, 兩乳之間, 謂之氣海, 當心包所居之分也.  
 2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8. 統而言之, 寸爲前, 尺爲後, 分而言之, 上半部爲前, 下半部爲後.  
 3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8. 竟, 盡也, 言上而盡於上, 在脈則盡於魚際, 在體則應於胸喉.  
 3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8. 下而盡於下, 在脈則盡於尺部, 在體則應於少腹足中.

半部로 身體의 後部를 살핀다. 寸部의 맨 위에서 胸中이나 喉嚨의 情況을 살피고, 尺部의 맨 아래에서 少腹, 腰, 股, 膝, 脛의 情況을 살핀다.”라고 하였다.

【考察】

1. 이 節에 이렇게 臟腑를 配屬한 이유를 張介賓은 “季脇은 양쪽 脇下에 있으며 腎臟 가까이 있기 때문에 季脇으로부터 그 아래 部位는 尺內가 이를 主宰한다.<sup>32)</sup> 前半部로 陽을, 後半部로 陰을 살피는데, 人體의 背部는 陽이고 腎臟이 背部에 붙어 있으므로 尺外로 腎을 살피고, 腹部가 陰이므로 尺裏로 腹部를 살핀다.<sup>33)</sup> 肝은 陰中의 陽臟이면서 또한 背部 가까이 붙어 있으므로 外로 肝을 살핀다.<sup>34)</sup> 脾胃는 모두 中州之官이지만 表裏로 말하면 胃는 陽, 脾는 陰이므로 前半部로 胃를, 後半部로 脾를 살핀다.<sup>35)</sup> 五藏에서 肺의 위치가 가장 높으므로 右側 寸脈의 前半部로 肺를, 右側 寸脈의 後半部로 胸中을 살핀다.<sup>36)</sup> 心과 肺가 모두 橫膈膜 위에 있으므로 左側 寸脈의 前半部로 心을, 後半部로 膻中을 살핀다.<sup>37)</sup>”라고 하였다.

「通一子脈義部位解」에 寸에서 心, 心包絡, 肺, 膻中을 살피서 頭面咽喉口齒頸項肩背의 疾病을 診察하고, 關에서 肝, 膽, 脾, 胃를 살피서 脇肋腹背의 疾病을 진찰하며, 尺에서 腎, 膀胱, 三焦, 命門, 大腸, 小腸을 살피서 腰腹陰道脚膝의 疾病을 진찰한다고 하였다.<sup>38)</sup>

3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季脇, 小肋也, 在脇下兩傍, 爲腎所近, 故自季脇之下, 皆尺內主之.  
3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前以候陽, 後以候陰, 人身以背爲陽, 腎附於背, 故外以候腎, 腹爲陰, 故裏以候腹.  
3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肝爲陰中之陽藏, 而亦附近於背, 故外以候肝.  
3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7. 脾胃皆中州之官, 而以表裏言之, 則胃爲陽, 脾爲陰, 故外以候胃, 內以候脾.  
3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8. 五藏之位, 惟肺最高, 故右寸之前以候肺, 右寸之後以候胸中.  
3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8. 心肺皆居膈上, 故左寸之前以候心, 左寸之後以候膻中. 膻中者, 兩乳之間, 謂之氣海, 當心包所居之分也.  
38) 張景岳.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p. 89-90. 左寸: 心部也, 其候在心與心包絡. ……右寸: 肺部也, 其候在肺與膻中. ……右二部, 所謂上以候上也, 故凡頭面咽喉口齒頸項肩背之疾, 皆候於此. ……左關: 肝部也, 其

大腸, 小腸을 각각 左尺, 右尺에 배속한 것은 大小腸이 下焦에 위치하므로 尺에 配屬해야 하고, 大腸은 金이므로 左尺의 水를 따라야 하고, 小腸은 火이므로 右尺의 火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39)</sup>

“上으로써 上을 살피고 下로써 下를 살핀다.”<sup>40)</sup> 고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張介賓은 人體 內五臟六腑의 上下 位置에 따라서 臟腑를 寸關尺의 內外上下에 配屬하였다.

2. 內外에 대하여 王冰<sup>41)42)</sup>, 張志聰<sup>43)</sup>은 寸口에서 厥陰經 쪽을 內로, 陽明經 쪽을 外로 보았고, 李梴<sup>44)45)</sup>은 寸口에서 浮 部分을 外로, 沈 部分을 內로 보았으나, 張介賓은 寸·關·尺 三部를 各各 들로 나누어 魚際 쪽인 上部를 外로, 尺澤 쪽인 下部를 內로 보았다.

3. 이 節의 診察 部位에 대하여 諸家의 說이 다양하다. 楊上善,<sup>46)</sup> 丹波元簡<sup>47)</sup> 등은 길이 一尺의 尺膚

候在肝膽. ……右關: 脾部也, 其候在脾胃. ……右二部居中, 所以候中焦也, 故凡於脇肋腹背之疾, 皆候於此. ……左尺: 腎部也, 其候在腎與膀胱. 大腸. ……右尺: 三焦部也, 其候在腎與三焦. 命門. 小腸. ……右二部, 所謂下以候下也, 故凡於腰腹陰道及脚膝之病, 皆候於此.

39) 張景岳. 類經附翼.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281. 小腸在下, 當候於右尺, 所以從火也. 大腸在下, 當候於左尺, 以金從水也. 正合母隱子胎之義.  
4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98. 此重申上下內外之義而詳明之也. 統而言之, 寸爲前, 尺爲後, 分而言之, 上半部爲前, 下半部爲後. 蓋言上以候上, 下以候下也.  
41)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41. 尺外, 謂尺之外側, 尺裏, 謂尺之內側也.  
42)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42. 推而外之 內而不外 有心腹積也의 注에 “脈附臂筋, 取之不審, 推筋令遠, 使脈外行, 內而不出外者, 心腹中有積乃爾.”라 하였다.  
43)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73. 所謂外內者, 脈體本圓, 用指向外以候內, 向內以候外, 候脈之兩側也.  
44) 朴晄.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p. 201. 獨取寸口, 以內外, 分臟腑.  
45) 朴晄.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p. 325. 以浮取候腑, 沈取候臟.  
46)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刊行年不明. p. 298. 楊上善은 太素卷十五·五臟脈診의 注에 “關에서 尺澤까지가 尺이다.(從關至尺澤, 爲尺也.)”라고 하였고, 이

(肘關節부터 腕關節까지 皮膚)를 三段으로 나누어, 팔꿈치에 붙는 下端이 尺內, 손바닥에 붙는 上段이 上附上, 그 사이의 中段이 中附上이라고 보았고, 稻葉克 等<sup>48)</sup>은 軀幹을 세 部分으로 나누어, 鳩尾穴에서 臍部까지 길이 一尺의 部位가 尺內, 臍部 아래의 一尺의 部位가 尺外, 鳩尾에서 臍部까지의 양옆에 붙은 部分이 中附上, 鳩尾에서 天突까지 一尺의 부위가 上附上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張介賓은 尺部가 尺內, 關部가 中附上, 寸部가 上附上이라고 보았다.

## 脈度二

### 第 2 節 脈의 度數

#### 【原文】

五十營篇에 曰 天周二十八宿<sup>(1)</sup>하니 人經二十八脈<sup>(2)</sup>이 周身<sup>(3)</sup>十六丈二尺하야 以應二十八宿하니 漏水下百刻<sup>(4)</sup>으로 以分晝夜라 故로 人一呼에 脈再動하야 氣行三寸하고 一吸에 脈亦再動하야 氣行三寸하니 呼吸定息엔 氣行六寸하고 十息에 氣行六尺하고 二百七十息에 氣行十六丈二尺하야 一周於身하고 五百四十息에 氣行再周於身하고 二千七百息에 氣行十周於身이라 一萬三千五百息에 氣行五十周於身하니 水下百刻이며 日行二十八宿하야 漏水皆盡하고 脈終矣라 故로 五十營<sup>(5)</sup>이 備하면 得盡天地之壽하니 凡行八百一十

篇의 '附上……內以候臍中'이 太素卷十五·五臟脈診에는 '附上以候胸中'으로 되어있는데, 그 注에 "跗는 膚이다. 예전에 通用하던 글자이므로 跗라 하였다. 바로 尺裏 以上の 皮膚로써 胸中の 病을 살핀다.(跗當爲膚, 古通用字, 故爲跗耳. 當尺裏以上皮膚, 以候胸中之病.)"라고 하였다.

47) 丹波元簡. 素問識(皇漢醫學叢書 卷1). 廣法社 影印. 서울. 1975. p. 88. 簡按, 王註: 尺內謂尺澤之內也, 此即診尺膚之部位. ……明是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 而決非寸關尺之尺也. 寸口分寸關尺三部, 防于難經, 馬張諸家, 以寸關尺之尺釋之, 與經旨差矣.

48) 稻葉克, 和久田寅. 腹證奇覽. 中國書店. 北京. 1988. pp. 8-9. 鳩尾至臍作一尺, 其兩旁則脇肋下緣也. ……古之所謂三部九候, 即分身體爲三段, 候上中下, 各左中右之事也. 天突至鳩尾一尺, 鳩尾至臍一尺, 臍至橫骨一尺. 分指而度之, 此自然之法度也. 後移于手脈, 後寸關尺之浮中沈三部之事也.

## 丈也라하니라

#### 【註釋】

(1) 二十八宿(이십팔수); 옛날 天文學에서 하늘을 四宮(四神)으로 나누고 다시 각 宮마다 일곱 星宿로 나눈 것을 일컫는다. 즉 角(각), 亢(항), 氐(저), 房(방), 心(심), 尾(미), 箕(기)가 東方의 七宿이고, 斗(두), 牛(우), 女(녀), 虛(허), 危(위), 室(실), 璧(벽)이 北方의 七宿이며, 奎(규), 婁(루), 胃(위), 昴(묘), 畢(필), 觜(자), 參(삼)이 西方의 七宿이고, 井(정), 鬼(귀), 柳(류), 星(성), 張(장), 翼(익), 軫(진)이 南方의 七宿이다. 房부터 畢까지는 卯, 辰, 巳, 午, 未, 申에 위치하므로, 陽에 속하고 晝間을 주재하며, 昴부터 尾까지는 酉, 戌, 亥, 子, 丑, 寅에 위치하므로, 陰에 속하고 야간을 주재한다.<sup>49)</sup> 여기서 각 星宿는 하나의 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별로 구성된다.

(2) 二十八脈(이십팔맥); 人體의 十二經脈이 左右 둘씩 있으므로 二十四 脈이고, 蹻脈이 둘, 任督脈이 둘, 해서 모두 二十八脈이다.<sup>50)</sup> 蹻脈은 陰蹻脈, 陽蹻脈이 좌우에 두 개씩 모두 네 개인데, 두 개만 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靈樞·脈度』篇에 “男子는 陽蹻脈을 세고, 女子는 陰蹻脈을 세며, 섬에 넣는 蹻脈은 經이고, 섬에 넣지 않는 蹻脈은 絡이다.”<sup>51)</sup>라고 하여 男女에 따라 各各 두 개를 센다고 하였다.

(3) 周身(주신); 脈氣가 온몸을 한바퀴 도는 것을 말하며, 그 길이는 十六丈 二尺이다. 이에 대하여는 『靈樞·脈度』篇에 자세히 설명되었는데, 手三陽經은 手部부터 頭部까지 길이가 五尺이므로 좌우 합하

4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97. 天分四面, 曰東西南北, 一面七星, 如角亢氐房心尾箕, 東方七宿也. 斗牛女虛危室璧, 北方七宿也. 奎婁胃昂畢觜參, 西方七宿也. 井鬼柳星張翼軫, 南方七宿也. 是爲四七二十八星. ……自房至畢, 其位在卯辰巳午未申, 故屬陽而主晝, 自昴至尾, 其位在西戌亥子丑寅, 故屬陰而主夜. \* 宿; 列星之位, 如二十八宿, 별자리 수. \* 蹻; 별이름 자.

5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201. 人之經脈十二, 左右相同, 則爲二十四脈, 加以蹻脈二, 任督脈二, 共爲二十八脈.

5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30. 男子數其陽, 女子數其陰, 當數者爲經, 其不當數者爲絡也.

면 6×5尺=30尺이고, 手三陰經은 手部부터 胸中까지 三尺 五寸이므로 6×3.5尺=21尺이고, 足三陽經은 足部에서 頭部까지 8尺이므로 6×8尺=48尺이고, 足三陰經은 足部에서 胸中까지 六尺 五寸이므로 6×6.5尺=39尺이다. 蹻脈은 足部에서 目까지 七尺 五寸이므로 2×7.5尺=15尺이고 督脈, 任脈이 各各 四尺 五寸이므로 2×4.5尺=9尺이다. 모두 합하여 162尺 즉, 一十六丈二尺이 된다고<sup>52)</sup> 하였다.

(4) 漏水下百刻(누수하백각) ; 하루를 가리킨다. 예전에는 漏刻이라는 물시계로 시간을 측정하였는데, 가는 구멍에서 새어 떨어지는 물의 양을 漏壺(刻이나 漏)의 물을 받는 그릇) 속에 세운 漏箭의 눈금으로 읽어서 時刻을 알게 하였다. 漏箭의 눈금은 100개이고, 漏壺의 물이 다 새어 떨어지면 百刻이고 이것이 만 하루이다. 현대의 시간으로 따지면 1刻은 864稍(14분 24稍)에 해당한다.

(5) 五十營(오십영) ; 營氣가 運行하는 數이니 晝夜에 五十번을 운행한다.<sup>53)</sup>

【國譯】

「五十營」篇에 이르기를, “하늘에 태양이 二十八宿를 도니 人體의 二十八 經脈이 온몸의 十六丈二尺을 돌아 하늘의 二十八宿와 相應하고 물시계로는 百刻으로 晝夜를 나눈다. 그러므로 사람이 숨을 한번 내쉴 때 脈이 두 번 뛰고 脈氣는 三寸을 가고, 숨을 한번 들이쉴 때 脈이 두 번 뛰고 脈氣는 三寸을 가므로, 一呼吸에 脈氣가 六寸을 가며, 十息에는 脈氣가 六尺을 가고, 二百七十息엔 脈氣가 十六丈二尺을 가서 人體를 한바퀴 돌며, 五百四十息엔 脈氣가 人體를 두 바퀴 돌고, 二千七百息엔 脈氣가 人體를 열 바퀴

돌며, 一萬三千五百息엔 脈氣가 人體를 50바퀴 도니 물시계로는 百刻이고 태양은 二十八宿를 돌아서 하루가 다 되고 맥의 순환도 마치게 된다. 그러므로 五十營이 갖추어지면 天地의 壽를 다할 수 있으니 모두 八百一十丈을 循行한다.”라고 하였다.

【考察】

1. 人體의 宗氣는 胸中에 蓄積되어 呼吸을 行하게 하고 經脈을 通하게 한다.<sup>54)</sup> 正常人은 숨을 한번 내쉴 때 脈이 두 번 뛰고, 한번 들이쉴 때 脈이 두 번 뛰며, 一息을 마친 후 다음 숨을 쉬기 전에 脈이 또 한 번 뛰고, 定息 이외에 또 간간이 太息을 쉬어 脈動이 다섯 번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는 平人이 病이 없는 常度이다. 그러면 定息과 太息의 數를 모두 세면 대략 一息에 脈이 여섯 번 뛰고, <sup>55)</sup> 이때에 脈氣는 六寸을 간다. 人體의 脈의 길이가 十六丈二尺이므로, 脈氣가 온몸을 한바퀴 도는 데는 270息이 필요하고, 이 때에 時間은 二刻이 흐른다.<sup>56)</sup> 하루 百刻의 時間 동안 呼吸은 一萬三千五百息이고 脈氣는 人體를 五十 바퀴 돌며, 太陽은 二十八宿를 運行한다.

2. 이 節에 하루의 呼吸數를 13, 500息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1분당 9.375회로 10회가 안 되고 1呼吸 當 6.4초가 된다. 楊維傑은 이것이 비교적 깊고 긴 호흡을 말한다라고 하였고, <sup>57)</sup> 현대 생리학에서 休息時 成

5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30. 手之六陽, 從手至頭長五尺, 五六三丈. 手之六陰, 從手至胸中三尺五寸, 三六一丈八尺, 五六三尺, 合二丈一尺. 足之六陽, 從足上至頭八尺, 六八四丈八尺. 足之六陰, 從足至胸中六尺五寸, 六六三丈六尺, 五六三尺, 合三丈九尺. 蹻脈, 從足至目七尺五寸, 二七一丈四尺, 二五一尺, 合一丈五尺. 督脈任脈, 各四尺五寸, 二四八尺, 二五一尺, 合九尺. 凡都合一十六丈二尺, 此氣之大經隧也.

5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201. 五十營者, 卽營氣運行之數, 晝夜凡五十度也.

5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201. 人之宗氣積於胸中, 以行呼吸而通經脈. 凡一呼一吸是爲一息, 脈氣行六寸, 十息, 氣行六尺.

5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p. 98-99. “人一呼脈再動, 一吸脈亦再動, 呼吸定息脈五動, 閏以太息, 命曰平人, 平人者不病也.”의 注에 “出氣曰呼, 入氣曰吸, 一呼一吸, 總名一息. 動, 至也. 再動, 兩至也. 常人之脈, 一呼兩至, 一吸亦兩至, 呼吸定息, 謂一息既盡而換息未起之際也, 脈又一至, 故曰五動. 閏, 餘也, 猶閏月之謂. 言平人常息之外, 間有一息甚長者, 是爲閏以太息, 而又不止五至也, 此卽平人不病之常度. 然則總計定息太息之數, 大約一息脈當六至, 故五十營篇曰, 呼吸定息, 脈行六寸, 乃合一至一寸也.”라 하였다.

5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201. 二百七十息 氣行於身一周 水下當二刻.

57)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185. 氣行一周, 計二百七十息, 行十六丈二尺, 需時兩刻(合

人的呼吸은 分當 평균 14회이고 10-18회는 정상으로 보는 것에 비하면 매우 긴 呼吸이다.

### 三部九候三

#### 第 3 節 三部九候

##### 【原文】

三部九候論에 帝曰 願聞天地之至數<sup>(1)</sup> 合於人形血氣하야 通決死生하니 爲之奈何오 岐伯이 曰 天地之至數는 始於一하야 終於九焉하니니 一者는 天이요 二者는 地요 三者는 人<sup>(2)</sup>이니 因<sup>(3)</sup>而三之면 三三爲九하야 以應九<sup>1)</sup>野<sup>(4)</sup>라 故로 人有三部<sup>(5)</sup>하고 部有三候<sup>(5)</sup>하야 以決死生하고 以處<sup>(6)</sup>百病<sup>(2)</sup>하며 以調<sup>(7)</sup>虛實하야 而除邪疾하니이다

帝曰 何謂三部오 曰 有下部하고 有中部하고 有上部하며 部各有三候<sup>(3)</sup>하니 三候者는 有天하고 有地하고 有人也라 上部天은 兩額之動脈<sup>(8)</sup>이요 上部地는 兩頰之動脈<sup>(9)</sup>이요 上部人은 耳前之動脈<sup>(10)</sup>이며 中部天은 手太陰<sup>(11)</sup>也요 中部地는 手陽明<sup>(12)</sup>也요 中部人은 手少陰<sup>(13)</sup>也며 下部天은 足厥陰<sup>(14)</sup>也요 下部地는 足少陰<sup>(15)</sup>也요 下部人은 足太陰<sup>(16)</sup>也라 故로 下部之候는 天으로 以候肝하고 地로 以候腎하고 人으로 以候脾胃之氣하며 中部之候는 天으로 以候肺하고 地로 以候胸中之氣하고 人으로 以候心하며 上部之候는 天으로 以候頭角<sup>(17)</sup>之氣하고 地로 以候口齒之氣하고 人으로 以候耳目之氣하니이다

帝曰 以候<sup>(18)</sup>奈何오 岐伯이 曰 必先度<sup>(19)</sup>其形之肥瘦하야 以調其氣之虛實하니니 實則寫之요 虛則補之라하니라

按컨대 寸口脈에 亦有三部九候하니 三者는 寸關尺也요 九候者는 三部中에 各有浮中沈也라 察三部면 可知病之高下니 如寸은 爲陽이요 爲上部니 主頭

現代時計爲一千七百二十八秒), 用一千七百二十八秒除二百七十息, 則每息爲六秒四, 可見這也是指一種較深長的呼吸而言.

項以至心胸之分也요 關은 爲陰陽之中이요 爲中部니 主臍腹肱<sup>(20)</sup>脇之分也요 尺은 爲陰이요 爲下部니 主腰足脛股之分也라 三部中에 各有三候하니 三而三之면 是爲九候라 如浮는 主皮膚하야 候表及府하고 中은 主肌肉하야 以候胃氣하며 沈은 主筋骨하야 候裏及臟이라 此는 皆診<sup>(4)</sup>家之樞要<sup>(21)</sup>니 當與本篇으로 互相求察也라

##### 【校勘】

- 1) 九; 『藜照樓』, 『毘陵章氏』에는 ‘天’으로 되어있다.
- 2) 病; 『全書』, 『藜照樓』, 『九思堂』, 『金閭』, 『上海』, 『育文』, 『廣益』, 『岳峙樓』, 『四庫』, 『毘陵章氏』에는 ‘部’로 되어있다.
- 3) 候; 『毘陵章氏』에는 없다.
- 4) 診; 『育文』, 『廣益』에는 ‘政’으로 되어있다.

##### 【註釋】

- (1) 至數(지수); 至極한 數이니 곧 九이다. 數는 一에서 始作하여 九에서 끝나고, 九에서 더 나아가면 十이 되어 다시 一이 된다.<sup>58)</sup> 비록 天地가 크고 萬物이 많더라도 이 數를 벗어날 수 없으니 數의 道가 크다. 그러므로 至數라 하였다.<sup>59)</sup>
- (2) 一者天 二者地 三者人(일자천 이자지 삼자인); 一은 奇數이므로 天에 相應하고, 二는 偶數이므로 地에 相應하며 三은 參與한다는 뜻이므로 人에 相應한다. 그러므로 하늘이 子時(一陽)에 열리고 땅이 丑時(二陽)에 열리며 사람이 寅時(三陽)에 생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이른바 三才이다.<sup>60)</sup>
- (3) 因; 襲也, 잇을 인.

5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九數之外, 是爲十, 十則復變爲一.

5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天地雖大, 萬物雖多, 莫有能出乎數者, 數道大矣, 故曰至數.

6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一者奇也, 故應天, 二者偶也, 故應地, 三者參也, 故應人, 故曰天關於子, 地關於丑, 人生於寅, 所謂三才也.

(4) 九野(구야); 洛書의 九宮, 「禹貢」<sup>61)</sup>의 九州의 뜻이다.<sup>62)</sup> 九州(구주)는 夏나라 당시 土를 아홉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 冀州(기주), 兗州(연주), 青州(청주), 徐州(서주), 揚州(양주), 荊州(형주), 豫州(예주), 梁州(양주), 雍州(옹주)이다.<sup>63)</sup>

(5) 三部(삼부), 三候(삼후); 天地人으로 上中下를 말하면 三才라 하고, 人體로 上中下를 말하면 三部라 하며 三部에서 각기 셋으로 나누면 三候라 하니, 三을 세 번하면 三部九候라 한다.<sup>64)</sup> 三部의 脈이 上部는 頭部에 있고, 中部는 手部에 있으며, 下部는 足部に 있다.<sup>65)</sup>

(6) 處; 定也, 정할 처. 分別, 分別할 처, 처치할 처, 처분할 처.

(7) 調; 謂算度之, 살필 조, 헤아릴 조.

(8) 上部天 兩額之動脈(상부천 양액지동맥); 額脈穴이니 足少陽經脈의 氣가 흐르는 곳이다.<sup>66)</sup>

(9) 上部地 兩頰之動脈(상부지 양협지동맥); 地倉穴, 大迎穴이니 足陽明經脈의 氣가 흐르는 곳이다.<sup>67)</sup>

(10) 上部人 耳前之動脈(상부인 이전지동맥); 和膠穴이니 手少陽經脈의 氣가 흐르는 곳이다.<sup>68)</sup>

(11) 中部天 手太陰(중부천 수태음); 손바닥 뒤쪽의 寸口 動脈으로 經渠穴이다.<sup>69)</sup>

(12) 中部地 手陽明(중부지 수양명); 엄지와 검지 손가락의 中手骨 사이의 動脈으로 合谷穴이다.<sup>70)</sup>

(13) 中部人 手少陰(중부인 수소음); 손바닥 뒤쪽의 豆狀骨 아래의 動脈으로 神門穴이다.<sup>71)</sup>

(14) 下部天 足厥陰(하부천 족궤음); 氣衝穴에서 三寸 아래의 動脈으로 五里穴이다. 누워서 取한다. 女子는 太衝穴을 取하는데 엄지발가락 本節에서 뒤로 二寸 거리에 오목한 곳이다.<sup>72)</sup>

(15) 下部地 足少陰(하부지 족소음); 內踝 뒤쪽, 跟骨 옆의 動脈으로 太谿穴이다.<sup>73)</sup>

(16) 下部人 足太陰(하부인 족태음); 大腿部の 魚腹 위쪽 筋肉 사이의 動脈으로 五里穴 바로 아래 箕門穴이며, 沈取해야 얻을 수 있다. 만약 胃氣를 살피고자 하면 발등의 衝陽穴을 取해야 한다.<sup>74)</sup>

(17) 頭角(두각); 頭頂의 左右에 突出된 곳이다.

(18) 候; 伺也, 살필 후.

(19) 度; 付也, 헤아릴 탁.

(20) 肘; 脇上腋下也. 갈비 겨.

(21) 樞要(추요); 중심.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부분.

【國譯】

「三部九候論」에 黃帝께서 “天地의 至數가 人形과 氣血에 합치하여 死生을 決斷하는 것을 듣고자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하시니,

岐伯이 “天地의 至數는 一에서 시작하여 九에서

61) 車相轅 譯. 書經. 明文堂. 서울. 1984. p. 91. 禹貢(우공); 書經·夏書의 篇名이다. 이 篇에서는 禹가 아홉 州의 물을 다스리고 그곳의 賦稅와 땅의 等級 및 貢物의 종류를 정한 이야기를 한 州 한 州 서술하였다.

6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三而三之, 以應九野. 九野者, 卽洛書九宮, 禹貢九州之義. 詳見九宮星野等圖.

63) 車相轅 譯. 書經. 明文堂. 서울. 1984. pp. 82-86.

6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以天地人言上中下, 謂之三才. 以人身而言上中下, 謂之三部. 於三部中而各分其三, 謂之三候. 三而三之, 是謂三部九候.

6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4. 三部之脈, 上部在頭, 中部在手, 下部在足.

6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額傍動脈, 當額脈之分, 足少陽脈氣所行也. \*分; 定也, 정할 분.

6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兩頰動脈, 卽地倉大迎之分, 足陽明脈氣所行也.

6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耳前動脈, 卽和膠之分, 手少陽脈氣所行也.

6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掌後

寸口動脈, 經渠之次, 肺經脈氣所行也. \*次; 中也, 가운데 차. 處也, 곳 차.

7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102. 手大指次指岐骨間動脈, 合谷之次, 大腸經脈氣所行也.

7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2. 掌後銳骨下動脈, 神門之次, 心經脈氣所行也.

7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2. 氣衝下三寸動脈, 五里之分, 肝經脈氣所行也. 臥而取之. 女子取太衝, 在足大指本節後二寸陷中.

7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2. 內踝後跟骨傍動脈, 太谿之分, 腎經脈氣所行也.

7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2. 魚腹上越筋間動脈, 直五里下, 箕門之分, 沈取乃得之, 脾經脈氣所行也. 若候胃氣者, 當取足跗上之衝陽. \*魚腹(어복); ① 종아리의 承山穴 주변의 불룩한 근육. ② 손바닥의 魚際穴 부근. ③ 사타구니의 불룩한 근육. 여기서는 ③의 뜻이다.

끝나니 첫째는 天이요, 둘째는 地며, 셋째는 人이니 거듭하여 세 번하면 三에 三을 곱하여 九가 되므로 九野에 相應합니다. 그러므로 人身에는 三部가 있고 三部에 각기 三候가 있어서 生死를 판단하고 百病을 결정하며 虛實을 調整하여 邪氣와 疾病을 除去합니다.”라고 하였다.

黃帝께서 “三部란 무엇인가?”라고 하시니,

岐伯이 “下部와 中部와 上部가 있으며, 部에는 각기 三候가 있으니 三候에는 天과 地와 人이 있습니다. 上部天은 兩 이마의 動脈으로 足少陽經의 脈氣가 흐르는 頤厭穴이고, 上部地는 兩 뺨의 動脈으로 足陽明經의 脈氣가 흐르는 地倉穴, 大迎穴이고, 上部人은 귀 앞의 動脈으로 手少陽經의 脈氣가 흐르는 和膠穴이며, 中部天은 손마닥 뒤쪽 寸口 動脈으로 手太陰經의 脈氣가 흐르는 經渠穴이고, 中部地는 엄지와 검지 中手骨 사이의 動脈으로 手陽明經의 脈氣가 흐르는 合谷穴이고, 中部人은 손마닥 뒤쪽의 豆狀骨 아래 動脈으로 手少陰經의 脈氣가 흐르는 神門穴이며, 下部天은 氣衝穴에서 三寸 아래의 動脈으로 足厥陰經의 脈氣가 흐르는 五里穴이고, (女子는 太衝穴을 取한다.) 下部地는 內踝 뒤쪽, 跟骨 옆의 動脈으로 足少陰經의 脈氣가 흐르는 太谿穴이고, 下部人은 大腿部の 魚腹 위쪽 筋肉 사이의 動脈으로 足太陰經의 脈氣가 흐르는 箕門穴입니다.(胃氣를 살펴려면 발등의 衝陽穴을 取한다.) 그러므로 下部의 三候에서는 天으로 肝을 살피고, 地로 腎을 살피고, 人으로 脾胃의 氣를 살피며, 中部의 三候에서는 天으로 肺를 살피고, 地로 胸中の 氣를 살피고, 人으로 心을 살피며, 上部의 三候에서는 天으로 頭角의 氣를 살피고, 地로 口齒의 氣를 살피고, 人으로 耳目의 氣를 살피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黃帝께서 “三部九候를 어떻게 살핍니까?”라고 하시니,

岐伯이 “반드시 먼저 身形의 肥瘦를 헤아려서 그 환자의 氣의 虛實을 調節하나니 邪氣가 實하면 瀉하고 正氣가 虛하면 補합니다.”라고 하였다.

詳考하건대 寸口脈에도 三部九候가 있으니 三部란 寸關尺이고 九候란 三部에 각기 浮中沈이 있는 것

이다. 三部를 살펴서 病位의 高下를 알 수 있으니 寸은 陽이고 上部이므로 頭部, 項部에서 心胸部까지를 主宰하고, 關은 陰과 陽의 사이이고 中部이므로 臍腹과 肘脇의 部分을 主宰하며, 尺은 陰이고 下部이므로 腰部, 足部, 脛部, 股部를 主宰한다. 三部에 각기 三候가 있으니 三을 세 번하면 九候가 된다. 浮는 皮膚를 主宰하니 이로써 表部와 六腑를 살피고, 中은 肌肉을 主宰하니 이로써 胃氣를 살피며, 沈은 筋骨을 主宰하니 이로써 裏部와 五臟을 살핀다. 이는 진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니 이 篇과 함께 살펴야 한다.

#### 【考察】

1. 三部九候는 上古의 診法 가운데 하나로, 十二經의 動脈을 檢査하는 方法에서 발전한 일종의 遍診法이다. 新校正에 따르면, 全元起本에는 「三部九候論」의 篇名이 「決死生」으로 되어있는데, 75) 三部九候의 다른 이름이 決死生이며 寸口脈이 나타나지 않는 危急한 患者의 死生을 判斷할 수 있는 方法이다.

張介賓은 “『素問』에는 人身의 上中下 動脈임을 명백히 가리키고 있으며……寸口만을 가지고 말한 것은 아니었는데, ……『難經十八難』에 ‘三部란 寸關尺이다. 九候란 浮中沈이다.’”76)고 하여 寸口脈만을 가지고 三部九候의 診脈을 나누었는데, 後世에 脈을 論하는 醫家들이 모두 이를 따르니 診察하는데 지름 길이기는 하나 黃帝와 岐伯의 本래 뜻은 아니다.”77)

75)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50. 新校正云, 按全元起本, 在第一卷, 篇名決死生.

76)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30. 脈有三部九候, 各何所主之? 然,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上部法天, 主胸以上至頭之有疾也. 中部法人, 主膈以下至齊之有疾也. 下部法地, 主齊以下至足之有疾也. 秦越人.

7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1. 愚按, 三部九候, 本經明指人身上中下動脈如下文所云者. 蓋上古診法, 於人身三部九候之脈, 各有所候, 以診諸藏之氣而鍼除邪疾, 非獨以寸口爲言也. 如仲景脈法, 上取寸口, 下取趺陽, 是亦此意. 觀十八難曰, 三部者, 寸關尺也, 九候者, 浮中沈也, 乃單以寸口而分三部九候之診. 後世言脈者皆宗之, 雖亦診家捷法, 然非軒岐本旨, 學者當并詳其義.

라고 하였으나, 按에 『難經』의 說을 소개하면서 진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니 이 篇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하여 寸口脈의 三部九候를 강조하였다.

七診四

第 4 節 七診

【原文】

三部九候論에 帝曰 何以知病之所在오 岐伯이 曰 察九候에 獨小<sup>(1)</sup>者는 病이요 獨大<sup>(1)</sup>者는 病이요 獨疾<sup>(2)</sup>者는 病이요 獨遲<sup>(2)</sup>者는 病이요 獨熱<sup>(3)</sup>者는 病이요 獨寒<sup>(3)</sup>者는 病이요 獨陷下<sup>(4)</sup>者는 病이라하니라

詳此獨字컨대 卽醫中精一<sup>(5)</sup>之義니 診家綱領이 莫切於此라 今見諸家言脈컨대 悉以六部浮沈으로 鑿<sup>(6)</sup>分虛實하나 顧<sup>(7)</sup>컨대 不知病本何在니 旣無獨見에 焉得確眞이리오 故로 實命全形論에 曰 衆脈不見하고 衆凶弗聞하며 外內相得호대 無以形先<sup>(8)</sup>이라하니 是는 誠察病之秘旨니 必知此義라야 方可言診이라 外<sup>1)</sup>有獨論이 在後中卷하니 當參閱之라

【校勘】

1) 外; 『廣益』에는 없다.

【註釋】

(1) 小(소), 大(대); 大, 小는 脈의 體狀이다.<sup>78)</sup> 小脈은 脈의 모양이 正常脈보다 倍 정도 감소된 것이고, 大脈은 脈의 모양이 正常脈보다 倍 정도 큰 것이다.<sup>79)</sup>

(2) 疾(질), 遲(지); 疾遲는 脈의 至數이다.<sup>80)</sup> 疾脈은 數脈이니<sup>81)</sup> 數脈은 의사의 1호흡에 患者의 脈

이 6회 박동하는 것이고, <sup>82)</sup> 遲脈은 의사의 1호흡에 患者의 脈이 3번 박동하는 것이다.<sup>83)</sup>

(3) 熱(열), 寒(한); 寒熱은 病象이다.<sup>84)</sup> 獨寒, 獨熱이란 혹 上部, 혹 下部, 혹 表部, 혹 裏部에 있는 것을 말한다.<sup>85)</sup>

(4) 陷下(함하); 脈이 沈伏하여 不起하는 것이다.<sup>86)</sup>

(5) 精一(정일); 마음이 細密하고 專一함. 조금도 잡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함.

(6) 鑿; 穿空, 뚫을 착. 恣意不求合義理謂之鑿, 끝까지 쉼 착.

(7) 顧; 惟也, 생각건대 고.

(8) 衆脈不見 衆凶弗聞 外內相得 無以形先(중맥 불견 중흉불문 외내상득 무이형선); 널리 많은 것을 구하면 그 要點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脈을 보면 脈의 眞髓를 볼 수 없고 여러 凶한 증상을 들으면 凶한 根本을 들을 수 없으니, 반드시 脈으로써 外部의 證狀과 합쳐보고 證으로써 內部의 脈과 합쳐보아서 表와 裏를 모두 參考하여야 거의 잃을 것이 없으니 이것이 外內相得이다. 痕迹을 살피지 않고서 痕迹이 생긴 이유를 살펴야 하니 이것이 無以形先이다.<sup>87)</sup>

【國譯】

「三部九候論」에 黃帝께서 “病이 있는 곳을 어찌 아는가?”라고 하시니,

岐伯이 “九候를 살펴서 유독 一候만 小한 곳은 病이고, 유독 大한 곳·유독 疾한 곳·유독 遲한 곳·유독 也.

82) 朴晔. 譯釋 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 22. 醫者一呼一吸, 病者脈來六至, 曰數.

83) 朴晔. 譯釋 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 21. 醫者一呼一吸, 病者脈來三至, 曰遲.

84)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125. 寒熱, 是說的病象.

8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3. 獨寒獨熱, 謂其或在上·或在下·或在表·或在裏也.

8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3. 陷下, 沈伏不起也.

8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432. 泛求其多則不得其要, 故見衆脈者不見脈之眞, 聞衆凶者弗聞凶之本, 必因脈以合外, 因證以合內, 表裏相參, 庶乎無失, 是外內相得也. 不察其迹而察其所以迹, 是無以形先也. \* 參; 謀度, 참작할 참. 대조하여 생각함.

78)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125.

79) 朴晔. 譯釋 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 26. 脈形減於常脈一倍, 曰小. ……脈形加於常脈一倍, 曰大.

80)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125.

81) 朴晔. 譯釋 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p. 26. 疾, 則數

熱한 곳·유독 寒한 곳·유독 陷下한 곳은 病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獨’字를 詳考하건대 즉 醫學 가운데 精一한 뜻이니, 診斷하는 사람의 綱領 중에서 이보다 더 切實한 것은 없다. 이제 여러 醫學家들이 脈을 말한 것을 보니 모두들 六部의 浮沈으로 虛實을 고집스레 나누었으나 생각컨대 病의 根本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 이미 ‘獨’에 대한 見解가 없으니 어찌 確實한 眞實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素問寶命全形論』에 “여러 脈을 보려고 하지말고 여러 凶한 증상을 들으려 하지말고 脈과 證으로 表裏를 서로 參考하되 脈과 證候의 形體를 먼저 論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진실로 病을 진찰하는 은밀한 뜻이니 이 뜻을 반드시 알아야만 진단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외에 뒤의 「脈神章·中卷」에 ‘獨論’이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考察】

1. 獨大·獨小는 脈의 크기를, 獨疾·獨遲는 脈의 빠르기를 말하므로 모두 脈狀을 指稱한다. 獨寒·獨熱에 대하여는 張志聰은 三部皮膚의 寒熱이라고 하였고, 88) 丹波元簡은 熱은 滑脈을, 寒은 緊脈을 말한다고 하였으나, 89) 張介賓은 獨寒, 獨熱이란 혹 上部, 혹 下部, 혹 表部, 혹 裏部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部位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2. 「脈神章·中卷·獨論」에 “獨의 뜻에 部位의 獨, 臟氣의 獨, 脈體의 獨 세 가지가 있다. 部位의 獨이란, 모든 部에 병이 없고 오직 여기만 조금 어그러졌을 때 그 어그러진 곳에 邪氣가 있는 것이니, 이것이 ‘獨’이다. 臟氣의 獨이란, 部位에 구애됨이 없이 예를 들어 洪脈이 나타나면 모두 心脈이고, 弦脈이 나타나면 모두 肝脈이고, 肺는 浮脈, 脾는 緩脈, 腎은 石脈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五臟에 각기 五脈이 있어서 五脈이 서로 나타나는데, 유독 어그러진 것이 病이다. 어그러져 強해진 것은 本臟이 有餘한 것이고 어

그러져 弱해진 것은 本臟이 不足한 것이다. 이것이 臟氣의 獨이다. 脈體의 獨은 『素問·三部九候論』에 獨小한 곳은 病이고, 獨大한 곳·獨疾한 곳·獨遲한 곳·獨熱한 곳·獨寒한 곳·獨陷下한 곳은 病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세 가지 獨이 모두 獨小하고, 獨大하고 獨疾하고 獨遲한 脈體의 獨에 합하여진다. 단지 하나만 깨달으면 病의 根本을 알 수 있다.”90)라고 하여 ‘獨’의 세 가지 의미 중 脈體의 獨, 즉, 七診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곧 정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여기에서 벗어나 나머지 部位와 均衡을 이루지 못하는 부위가 病이 있는 곳이고 病의 根本이므로 이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비록 三部九候를 가지고 말하였으나 氣口部位에서도 類推하여 쓸 수 있다.91)

3. 七診의 意味에 대하여 熊宗立92)은 診法으로 설명하였고, 王冰, 93) 楊上善94) 등은 脈象으로 註釋하

90) 張景岳,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97. 獨之爲義, 有部位之獨也, 有臟氣之獨也, 有脈體之獨也. 部位之獨者, 謂諸部無恙, 惟此稍乖, 乖處藏奸, 此其獨也. 臟氣之獨者, 不得以部位爲拘也, 如諸見洪者, 皆是心脈, 諸見弦者, 皆是肝脈, 肺之浮, 脾之緩, 腎之石, 五臟之中, 各有五脈, 五脈互見, 獨乖者病, 乖而強者, 即本臟之有餘, 乖而弱者, 即本臟之不足, 此臟氣之獨也. 脈體之獨者, 如經所云獨小者病, 獨大者病, 獨疾者病, 獨遲者病, 獨熱者病, 獨寒者病, 獨陷下者病, 此脈體之獨也. 總此三者, 獨義見矣. 夫既謂之獨, 何以有三, 而不知三者之獨, 亦總歸於獨小·獨大·獨疾·獨遲之類, 但得其一, 而即見病之本矣. \* 藏奸(장간); 惡意를 품다. 여기서 邪氣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다.

9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3. 此言九候之中而復有七診之法, ……此雖以三部九候爲言, 而於氣口部位類推爲用, 亦惟此法.

92) 朴晷,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p. 449. 一, 靜其心, 存其神也. 二, 忘外意, 無私慮也. 三, 勻呼吸, 定其氣也. 四, 輕指於皮膚之間, 探其腑脈, 浮也. 五, 微重指於肌肉之間, 取其胃氣, 中也. 六, 沈指於筋骨之上, 探其臟脈, 沈也. 七, 察病人脈息數來也. \* 出處에 따라 內容이 조금씩 다르므로, 여기에는 醫學入門의 引用文을 再引用하였다.

93)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52. “帝曰 何以知病之所在. 岐伯曰 察九候, 獨小者病, 獨大者病, 獨疾者病, 獨遲者病, 獨熱者病, 獨寒者病, 獨陷下者病.”의 注에 “診凡有七者, 此之謂也.”라 하였다

94)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刊行年不明, pp. 240-241. 楊上善은 太素卷十四에 “黃帝曰 冬陰夏陽奈何? 岐伯對曰 九候之脈, 皆沈細懸絕者爲陰, 主冬, 故以

88) 張志聰, 黃帝內經素問集注(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92. 寒熱者, 三部皮膚之寒熱也.

89) 丹波元簡, 素問識(皇漢醫學叢書 卷1), 廣法社 影印, 서울, 1975. p. 107. 簡按, 諸家不註. 蓋熱乃滑之謂, 寒乃緊之謂. 志云, 寒熱者, 三部皮膚之寒熱也, 恐非是.

였다. ‘七診’이라는 用語는 內經을 통틀어 「三部九候論」에만 보이는데,<sup>95)</sup> 「三部九候論」의 文脈上 七診은 脈象을 意味한다. 張介賓도 熊宗立을 비판하면서 “詳考하건대, 七診의 方法은 本來 三部九候論에서 나왔는데, 勿聽子 熊宗立이 그릇되게 말하여, 七診이란 診斷을 마땅히 平旦에 함을 찻째요, 陰氣가 움직이지 않아야 함이 들째요, 陽氣가 흠어지지 않아야 함이 셋째요, 飲食을 먹지 않아야 함이 넷째요, 經脈이 아직 旺盛하지 않아야 함이 다섯째요, 絡脈이 調勻해야 함이 여섯째요, 氣血이 아직 어지러워지지 않아야 함이 일곱째이라고 하였다. 무릇 이 일곱 가지를 어찌 모두 診法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총괄하면 하나의 平旦 診法일 뿐이다. 後世에 마침내 이 같은 誤謬를 傳하여 결국 그 本原을 잃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듣지 말아야[勿聽] 한다.”<sup>96)</sup>라고 하였다.

### 六經脈體五

#### 第 5 節 六經脈의 體狀

##### 【原文】

平人氣象論에 曰 太陽脈至 洪大以長<sup>(1)</sup>하고 少陽脈至 乍疏乍數하며 乍短乍長<sup>(2)</sup>하고 陽明脈至 浮大而短<sup>(3)</sup>이라하니라

至眞要大論에 曰 厥陰之至에 其脈弦<sup>(4)</sup>하고 少陰之至에 其脈鉤<sup>(5)</sup>하고 太陰之至에 其脈沈<sup>(6)</sup>하며 少陽之至에 大而浮<sup>(7)</sup>하고 陽明之至에 短而澁<sup>(8)</sup>하고 太陽之至에 大而長<sup>(9)</sup>이라하니라

夜半死. 盛躁喘數者爲陽, 主夏, 故以日中死. 是故寒熱者, 以平旦死. 熱中及熱病, 以日中死. 風病者, 以日夕死. 病水者, 以夜半死. 其脈乍疎乍數乍遲乍疾者, 以日乘四季死. 形肉已脫, 九候雖調猶死.”의 注에 “此爲七診也”라고 하였다.

95)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52. 七診雖見, 九候皆從者不死. 所言不死者, 風氣之病, 及經月之病, 似七診之病, 而非也, 故言不死. 若有七診之病, 其脈候亦敗者, 死矣, 必發噦噫.

9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03. 愚按, 七診之法, 本出此篇, 而勿聽子謬謂, 七診者, 診宜平旦, 一也, 陰氣未動, 二也, 陽氣未散, 三也, 飲食未進, 四也, 經脈未盛, 五也, 絡脈調勻, 六也, 氣血未亂, 七也. 夫此七者, 焉得皆謂之診. 總之, 一平旦診法耳. 後世遂爾謬傳, 竟致失其本原, 是真可以勿聽矣. \* 爾; 이 이(此와 뜻이 같음). 이와 같이.

按此二篇之論컨대 蓋前은 言陰陽之盛衰하고 後는 分六氣之專主니 辭若稍異나 義實相符라 詳具類經 脈色類第十四<sup>3)</sup>篇하니 所當兼閱하라

##### 【校勘】

1) 浮大而短; 『毘陵章氏』에는 ‘浮而大短’으로 되어있다.

2) 澁; 『育文』, 『廣益』에는 ‘躍’으로 되어있다.

3) 四; 『毘陵章氏』에는 없다.

##### 【註釋】

(1) 太陽脈至 洪大以長(태양맥지 홍대이장); 穀雨부터 夏至까지 60日 間은 太陽의 氣가 旺盛하다. 이때에는 人體의 陽氣가 매우 세차기 때문에 脈이 洪大하면서 長하다.<sup>97)</sup>

(2) 少陽脈至 乍疏乍數 乍短乍長(소양맥지 사소사속 사단사장); 冬至부터 雨水까지 60日 間은 少陽의 氣가 旺盛하다. 이 때에는 陽氣가 아직 微弱하고 陰氣가 아직 물러나지 않았으므로 進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sup>98)</sup> \* 數; 細也, 密細, 뽁뽁할 축.

(3) 陽明脈至 浮大而短(양명맥지 부대이단); 雨水부터 穀雨까지 60日 間은 陽明의 氣가 旺盛하다. 이때에는 人體의 陽氣가 아직 盛하지 못하고 陰氣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脈이 비록 浮大하지만 여전히 短脈을 띄고 있다.<sup>99)</sup>

(4) 厥陰之至 其脈弦(귄음지지 기맥현); 厥陰이 이른다는 것은 風木의 氣이다. 木의 體는 바르고 길므로 脈이 弦하다.<sup>100)</sup> 弦脈은 길고 바르며 힘이 있어

9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6. 太陽之氣, 王於穀雨後六十日, 是時, 陽氣太盛, 故其脈洪大而長也.

9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6. 少陽之氣, 王於冬至後六十日, 是時, 陽氣尙微, 陰氣未退, 故長數爲陽, 疏短爲陰, 而進退未定也.

9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6. 陽明之氣, 王於雨水後六十日, 是時, 陽氣未盛, 陰氣尙存, 故脈雖浮大而仍兼短也.

10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厥陰之至, 風木氣也. 木體端直以長, 故脈弦.

서 활시위와 같은 것이다.<sup>101)</sup>

(5) 少陰之至 其脈鉤(소음지지 기맥구); 少陰이 이룬다는 것은 君火의 氣이다. 火의 性質은 上升하여 浮하므로 脈이 鉤하다.<sup>102)</sup> 鉤脈은 脈이 올 때는 세차고 갈 때는 衰하며 外는 實하고 內는 虛하여 허리띠를 매는 쇠와 같은 것이다.<sup>103)</sup> 지금의 洪脈이다.<sup>104)</sup> \* 鉤; 帶鉤, 띠쇠 구.

(6) 太陰之至 其脈沈(태음지지 기맥침); 太陰이 이룬다는 것은 濕土의 氣이다. 土의 體는 무겁고 實하므로 脈이 沈하다.<sup>105)</sup> 沈脈은 脈이 肌肉의 아래로 行하는 것이다.<sup>106)</sup>

(7) 少陽之至 大而浮(소양지지 대이부); 少陽이 이룬다는 것은 相火의 氣이다. 火熱이 外部에서 盛하고 長하므로 脈이 올 때 洪大하면서 肌膚의 위로 떠 오른다.<sup>107)</sup>

(8) 陽明之至 短而澁(양명지지 단이삽); 陽明이 이룬다는 것은 燥金의 氣이다. 金의 性質은 收斂하므로 脈이 올 때 短하면서 澁하다.<sup>108)</sup>

(9) 太陽之至 大而長(태양지지 대이장); 太陽이 이룬다는 것은 寒水의 氣이다. 水는 源流가 길고 生하려는 뜻이 넓으므로 脈이 이를 때 大하면서 또한 長하다.<sup>109)</sup>

【國譯】

10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弦者, 長直有力, 如弓弦也.  
 10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小陰之至, 君火氣也. 火性升浮, 故脈鉤.  
 10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鉤者, 來盛去衰, 外實內虛, 如帶之鉤也.  
 104) 朴昞.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p. 34. 古之鉤, 今之洪乎.  
 10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太陰之至, 濕土氣也. 土體重實, 故脈沈.  
 10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沈者, 行於肌肉之下也.  
 10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少陽之至, 相火氣也. 火熱盛長於外, 故脈來洪大而浮於肌膚之上也.  
 10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陽明之至, 燥金氣也. 金性收斂, 故脈來短而澁也.  
 10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太陽之至, 寒水氣也. 水源長而生意廣, 故其脈至, 大而且長.

「平人氣象論」에 “太陽의 氣가 이르면 脈이 洪大하면서 長하고, 少陽의 氣가 이르면 脈이 盛글었다 數하기도 하고 短하였다 長하기도 하며, 陽明의 氣가 이르면 脈이 浮大하면서 短하다.”라고 하였다.

「至真要大論」에 “厥陰의 氣가 이르면 그 脈이 弦하고, 少陰의 氣가 이르면 그 脈이 鉤하며, 太陰의 氣가 이르면 그 脈이 沈하고, 少陽의 氣가 이르면 그 脈이 大하면서 浮하며, 陽明의 氣가 이르면 그 脈이 短하면서 澁하고, 太陽의 氣가 이르면 그 脈이 大하면서 長하다.”라고 하였다.

詳考하건대 이 두 篇의 論述이 前者는 陰陽의 盛衰를 말하였고 後者는 六氣가 오로지 主宰하는 것을 나눈 것이니, 말이 조금 다른 듯 하나 뜻에 있어서는 같다. 자세한 설명은 『類經-脈色類-第十四篇』에 있으니 해당하는 곳을 같이 보라.

【考察】

1. 「平人氣象論」의 引用 部分은 人體의 脈氣가 반드시 天地, 陰陽의 變化에 따라서 捲縮舒暢함을 말하였다.<sup>110)</sup> 이는 계절에 따라 반드시 그러한 법이다. 무릇 陰陽은 교대로 變하고 脈은 반드시 時氣를 따른다. 따라서 이 部分은 季節의 變化에 따라 三陰三陽의 變化를 가능할 수 있고, 脈狀이 그에 따라 變化해감을 알 수 있다.<sup>111)</sup>

반면에 「至真要大論」의 引用 部分은 六氣가 勝하여 이르렀을 때의 脈體를 말하였다.<sup>112)</sup> 그러므로 客氣의 순서인 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의 순서로 배열하였다.

11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6. 此言人之脈氣, 必隨天地陰陽之化, 而爲之卷舒也.  
 11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6. 此三陰三陽之辨, 乃氣令必然之理. 蓋陰陽有更變, 脈必隨乎時也. ……据此二說, 則逐節推之可知矣. \* 氣; 候也, 기후 기. 素問六節藏象論에 “五日謂之候, 三候謂之氣, 六氣謂之時, 四時謂之歲, 而各從其主治焉.”이라 하였으니, 氣는 15일을 말한다. \* 令; 時令, 철 령. 月令에서沿用하여 季節을 稱함. \* 節; 時節, 때 절. 옛날에 立春, 立夏, 立秋, 立冬, 冬至, 夏至, 春分, 秋分을 八節이라 하였는데, 뒤에 一年을 24節로 나누었다.  
 11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41. 言六氣勝至之脈體.

따라서 두 篇의 用語는 모두 三陰三陽이지만, 內包하는 意味가 서로 다르다. 「平人氣象論」에서는 寒暑로 陰陽을 나누었고 「至眞要大論」에서는 六氣로 陰陽을 나누었으므로, 113) 「平人氣象論」의 三陽은 계절을 의미하고 「至眞要大論」의 三陰三陽은 六氣를 의미한다.

2. 「平人氣象論」에는 단지 三陽만을 말하고 三陰은 말하지 않았다. 『難經·七難』에는 “經에 말하기를 少陽의 氣가 이를 때의 脈은 小하였다 大하기도 하고 短하였다 長하기도 하며, 陽明의 氣가 이를 때의 脈은 浮大하면서 短하고, 太陽의 氣가 이를 때의 脈은 洪大하면서 長하다. 太陰의 氣가 이를 때의 脈은 緊大하면서 長하고, 少陰의 氣가 이를 때의 脈은 緊細하면서 微하며, 厥陰의 氣가 이를 때의 脈은 沈短하면서 數하다.”<sup>114)</sup>라고 하여 三陽脈은 「平人氣象論」과 비슷하고, 이 외에 三陰脈에 대한 내용이 더 있다.

3. ‘乍疏乍數’은 脈搏의 律動이 고르지 않고 散亂되어 수시로 빠르다 느다 하는 것을 말하니 氣血이 몹시 消耗되거나 病勢가 위독한 증후에 나타난다. 金은 數이 ‘뻑뻑할 측’이어서 세밀하다는 뜻이고 疏는 성글다는 뜻으로 數과 疏는 脈의 強弱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115) 脈이 뻑뻑하고 성글다는 것은 遲數의 문제이고 白話解도 遲數으로 註釋하였으므로, 116) 疏는 遲脈, 數은 數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6. 又按, 至眞要大論曰, 厥陰之至其脈弦, 少陰之至其脈鉤, 太陰之至其脈沈, 少陽之至大而浮, 陽明之至短而濇, 太陽之至大而長, 義若與此有不同者, 何也. 蓋此篇以寒暑分陰陽, 彼以六氣分陰陽也, 觀者宜各解其義, 詳運氣類三十一.

11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 七難曰, 經言少陽之至, 乍小乍大, 乍短乍長, 陽明之至, 浮大而短, 太陽之至, 洪大而長, 太陰之至, 緊大而長, 少陰之至, 緊細而微, 厥陰之至, 沈短而數. 此六者, 是平脈邪, 將病脈邪. 然, 皆王脈也. 秦越人.

115) 金憲. 脈經卷之四 雜病脈 및 生死脈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6. p. 28.

116)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100. 平人氣象論 “乍疏乍數曰死”의 注에 “脈來忽遲忽數, 是氣血已亂, 心力不足的現象.”라고 하였다.

## 四時脈體六

### 第 6 節 四時脈의 體狀

#### 【原文】

玉機眞藏論에 岐伯이 曰 春脈如弦이라 春脈者는 肝也요 東方木也니 萬物之所以始生也라 故로 其氣來 軟弱輕虛而滑하며 端<sup>1)</sup>直以長하니 故로 曰 弦이요 反<sup>(1)</sup>此者는 病이니이다 帝 曰 何如而反<sup>2)</sup>고 岐伯이 曰 其氣來實而強을 此謂太過니 病在外요 其氣來不實而微를 此謂不及이니 病在中이니이다 ○ 夏脈如鉤라 夏脈者는 心也요 南方火也니 萬物之所以盛長也라 故로 其氣來盛去衰하니 故로 曰 鉤이요 反此者는 病이니이다 何如而反고 曰 其氣來盛去亦盛을 此謂太過니 病在外요 其氣來不盛去反盛을 此謂不及이니 病在中이니이다 ○ 秋脈如浮라 秋脈者는 肺也요 西方金也니 萬物之所以收成也라 故로 其氣來輕虛以浮하고 來急去散하니 故로 曰 浮이요 反此者는 病이니이다 何如而反고 曰 其氣來毛而中央堅하며 兩<sup>3)</sup>傍虛를 此謂太過니 病在外요 其氣來毛而微를 此謂不及이니 病在中이니이다 ○ 冬脈如營이라 冬脈者는 腎也요 北方水也니 萬物之所以合藏也라 故로 其氣來沈以搏<sup>(2)</sup>하니 故로 曰 營이요 反此者는 病이니이다 何如而反고 曰 其氣來如彈石<sup>(3)</sup>者를 此謂太過니 病在外요 其去如數者를 此謂不及이니 病在中이니이다 ○ 帝 曰 四時之序에 脾脈은 獨何主요 岐伯이 曰 脾脈者는 土也요 孤藏<sup>(4)</sup>으로 以灌四傍<sup>(4)</sup>者也니이다 帝 曰 脾之善惡을 可得見乎 아 曰 善者는 不可得見이니 惡者는 可見이니 其來如水之流者를 此謂太過니 病在外요 如鳥之喙者<sup>(5)</sup>를 此謂不及이니 病在中이라하니라

按컨대 本篇에 中外二字는 乃指邪正爲言也니 蓋 邪氣는 來於外하고 元氣는 見於中하니 邪氣之來<sup>(6)</sup>엔 皆有餘 故로 太過則病在外하고 元氣之傷엔 惟不足 故로 不及<sup>(7)</sup>則病在中也라 又凡脾家有病이면 必有形見

이니 故로 惡者는 可見이라 若其無病이면 則陰行灌濡하야 五臟攸賴而莫知其然이니 故로 善者는 不可得見이니 是即所謂胃氣也라

玉機眞藏論에 曰 所謂 逆四時者는 春得肺脈 夏得腎脈 秋得心脈 冬得脾脈이라 其至皆懸絶沈澁<sup>(5)</sup>者를 命曰 逆四時라 未<sup>(8)</sup>有藏形이니 於春夏而脈沈澁과 秋冬而脈浮大를 名曰 逆四時也라하니라

宣明五氣篇에 曰 春得秋脈 夏得冬脈 長夏得春脈 秋得夏脈 冬得長夏脈을 是謂五邪<sup>(6)</sup>니 皆同命死不治<sup>(9)</sup>라하니라

【校勘】

- 1) 端; 『廣益』에는 ‘短’으로 되어있다.
- 2) 反; 『廣益』에는 ‘返’으로 되어있다.
- 3) 兩; 『廣益』에는 없다.
- 4) 傍; 『廣益』에는 ‘旁’으로 되어있다.
- 5) 如鳥之喙者; 『藜照樓』, 『毘陵章氏』에는 ‘如鳥之味者’로 되어있고, 『廣益』에는 ‘如鳥之喙者’로 되어있다.
- 6) 來; 『藜照樓』, 『毘陵章氏』에는 ‘故’로 되어있다.
- 7) 及; 『藜照樓』, 『毘陵章氏』에는 ‘氣’로 되어있다.
- 8) 未; 『全書』에는 ‘夫’로 되어있다.
- 9) 皆同命死不治; 『藜照樓』, 『毘陵章氏』에는 ‘皆同全死不治’로 되어있다.

【註釋】

- (1) 反; 逆也, 배반할 반. 다르다. 이상하다.
- (2) 搏; 擊也, 칠 박, 두드릴 박. 脈이 實大하고 堅硬하여 손가락에 치받는 것을 말함.<sup>117)</sup>
- (3) 彈石(탄석); 손가락 아래의 脈象이 돌을 뒤길 때처럼 단단하고 有力하면서 부드럽지 않은 모양.<sup>118)</sup>

117)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238. (脈) 實大堅硬, 搏擊手下.  
 118)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196. 用手指撥弄石頭, 比喻指下脈象石硬有力而不柔和.

十怪脈의 하나이기도 하다. \* 彈; 鼓爪曰彈, 손톱으로 튕길 탄.

(4) 孤藏(고장); 土는 정해진 位置가 없고 四季에 나누어 旺盛하므로 孤藏이라 한다.<sup>119)</sup>

(5) 懸絶沈澁(현절침삽); 懸絶은 空虛하고 浮大하여 無根한 脈象이다.<sup>120)</sup> 懸絶하여 無根하거나 沈澁하여 興起하지 못하는 脈象은 모두 위기가 없는 것이다.<sup>121)</sup>

(6) 五邪(오사); 五脈이 서로 勝하여 病이 藏을 勝하므로 五邪라 하였다.<sup>122)</sup>

【國譯】

「玉機眞藏論」에 岐伯이 “봄의 脈은 활줄(弦)과 같습니다. 봄의 脈은 肝에 속하며, 東方木에 속합니다. 萬物이 비로소 發生하기 때문에 脈氣가 오는 것이 軟弱하고 가볍고 虛하면서 滑하고 바르고 곧으면서 長하기 때문에 弦이라 합니다. 이와 다르면 病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黃帝께서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으시니, 岐伯이 “그 脈氣가 오는 것이 實하면서 強하면 太過한 것이니 病이 外部에 있고, 그 脈氣가 오는 것이 實하지 않고 微弱하면 不及한 것이니 病이 속에 있습니다.

여름의 脈은 갈고리(鉤)와 같습니다. 여름의 脈은 心에 속하며 南方火에 속합니다. 萬物이 茂盛하게 成長하는 때이므로 脈氣가 올 때는 세차고 갈 때는 衰弱하기 때문에 鉤라 합니다. 이와 다르면 病이 됩니다.”라고 하였다.

“어떻게 다른가?”  
“그 脈氣가 오는 것이 세차고 가는 것도 역시 세

11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0. 脾屬土, 土爲萬物之本, 故運行水穀, 化津液, 以灌溉於肝心肺腎之四藏者也. 土無定位, 分王四季, 故稱爲孤藏.  
 120)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223. [懸] 指(脈)空虛浮大無根.  
 121) 王琦 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106. 指懸絶無根, 或沈澁不起的脈象, 都是無胃氣之脈, 故謂“逆四時也”.  
 12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314. 五脈互勝, 病勝藏也, 故曰五邪..

차면 太過한 것이니 病이 外部에 있고, 그 脈氣가 오는 것이 세차지 않고 가는 것이 도리어 세차면 不及한 것이니 病이 속에 있습니다.

가을의 脈은 떠있는 것(浮)과 같습니다. 가을의 脈은 肺에 속하고 西方金에 속합니다. 萬物이 收斂하고 完成하는 때이므로 脈氣가 오는 것이 가볍고 비어 있으면서 浮하고 脈氣가 올 때는 급하고 갈 때는 흠어지므로 浮라 합니다. 이와 다르면 病이 됩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 脈氣가 오는 것이 터럭처럼 가볍고 中央이 굳고 兩傍이 虛하면 太過한 것이니 病이 外部에 있고, 그 脈氣가 오는 것이 터럭처럼 가벼우면서 微弱하면 不及한 것이니 病이 속에 있습니다.

겨울의 脈은 鎮營(營)과 같습니다. 겨울의 脈은 腎에 속하고 北方水에 속합니다. 萬物이 갠히있는 때이므로 脈氣가 올 때 沈하면서 搏하므로 營이라 합니다. 이와 다르면 病이 됩니다.”

“어떻게 다른가?”

“그 脈氣가 오는 것이 돌을 튀기듯이 굳고 강하면 太過한 것이니 病이 外部에 있고, 그 脈氣가 가는 것이 빠른 듯하면 不及한 것이니 病이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黃帝께서 “四時의 次序에서 脾脈은 홀로 어떤 시절을 주관하는가?”라고 하시니,

岐伯이 “脾脈은 土에 속하고 孤藏이어서 四傍에 灌溉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黃帝께서 “脾脈이 좋고 나쁨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하시니,

岐伯이 “좋은 것은 볼 수 없고, 나쁜 것은 볼 수 있으니, 脈氣가 오는 것이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은 脾脈이 太過한 것으로 病이 外部에 있고, 脈氣가 오는 것이 새의 부리와 같은 것은 脾脈이 不及한 것으로 病이 속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상고하건대 이 篇의 ‘中’과 ‘外’ 두 글자는 邪氣와 正氣를 가리켜 말하였다. 대개 邪氣는 外部에서 오고 元氣는 속[中]에서 드러난다. 邪氣가 침입하면 모두 有餘하므로 脈이 太過하면 病因이 外部에 있고, 元氣가 損傷되면 오로지 不足하므로 不及하면 病因이 속

[中]에 있다. 또한 대개 脾藏 系統에 病이 있으면 반드시 形體에 드러나는 症狀이 있으므로 나쁜 것은 볼 수 있다. 만약 脾藏 系統에 病이 없으면 눈에 안 보이게 灌溉하여 적시고 五臟이 이에 힘입으나 그런 줄을 모르므로 좋은 것은 볼 수 없다. 이는 곧 이른바 胃氣이다.

「玉機眞藏論」에 “四時에 逆한다고 하는 것은 봄에 肺脈이 나타나고 여름에 腎脈이 나타나며 가을에 心脈이 나타나고 겨울에 脾脈이 나타나는 것이다. 脈氣가 이르되 모두 懸絶하거나 沈澁한 것을 逆四時라고 한다. 비록 眞藏脈이 아직 나타나지 않더라도 만약에 봄, 여름에 脈이 沈澁하거나 가을, 겨울에 脈이 浮大한 것을 逆四時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宣明五氣篇」에 “봄에 가을의 脈이, 여름에 겨울의 脈이, 長夏에 봄의 脈이, 가을에 여름의 脈이, 겨울에 長夏의 脈이 나타나는 것을 五邪라고 하니, 이들은 모두 죽는 증상으로 治療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考察】

1. 本文에 脾脈이 좋은 것은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脾藏의 正常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醫學入門』에 “胃氣는 中氣이니, 大하거나 細하지도, 長하거나 短하지도, 浮하거나 沈하지도, 滑하거나 澁하지도 않으며, 손에 感應되는 것이 중간 정도로 부드럽고 生氣潑刺하여 무엇이든 이름하기 어려운 것이다.”<sup>123)</sup>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脾藏의 正常脈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脈이나 모양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胃氣七

第 7 節 胃氣

【原文】

又胃氣解見後章

玉機眞藏論에 曰 脈弱以滑이 是有<sup>1)</sup>胃氣니 命曰

123) 朴晳.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p. 440. 胃氣者, 中氣也, 不大不細, 不長不短, 不浮不沈, 不滑不澁, 應手中和, 意思欣欣, 難以名狀者, 是也.

易治라하니라 ○終始篇에 曰 邪氣來也 緊而疾하고 穀氣來也 徐而和라하니라

平人氣象論에 曰 平人之常氣는 稟於胃하니 胃者는 平人之常氣也라 人無胃氣曰逆이니 逆者는 死라 ○春에 胃微<sup>(1)</sup>弦曰平이요 弦多胃少曰肝病이요 但弦無胃曰死요 胃而有毛<sup>(2)</sup>曰秋病이요 毛甚<sup>(1)</sup>曰今病이라 臟眞<sup>(5)</sup>은 散於肝하고 肝은 藏筋膜之氣也라 ○夏에 胃微鈞曰平이요 鈞多胃少曰心病이요 但鈞無胃曰死요 胃而有石<sup>(4)</sup>曰冬病이요 石甚曰今病이라 臟眞은 通於心하고 心은 藏血脈之氣也라 ○長夏에 胃微軟弱曰平이요 弱多胃少<sup>(3)</sup>曰脾病이요 但代無胃曰死요 軟弱有石曰冬病이요 弱<sup>(3)</sup>甚曰今病이라 臟眞은 濡於脾하고 脾는 藏肌肉之氣也라 ○秋에 胃微毛曰平이요 毛多胃少曰肺病이요 但毛無胃曰死요 毛而有弦曰春病이요 弦甚曰今病이라 臟眞은 高於肺하야 以行營衛陰陽也라 ○冬에 胃微石曰平이요 石多胃少曰腎病이요 但石無胃曰死요 石而有鈞曰夏病이요 鈞甚曰今病이라 臟眞은 下<sup>(4)</sup>於腎하고 腎은 藏骨髓之氣也라 ○胃之大絡을 名曰虛里<sup>(5)</sup>니 貫<sup>(6)</sup>膈絡<sup>(6)</sup>肺하고 出<sup>(6)</sup>於左乳下<sup>(5)</sup>하야 其動應衣하니 脈의 宗氣<sup>(7)</sup>也라 盛喘數絕<sup>(8)</sup>者는 則病在中이요 結而橫<sup>(9)</sup>은 有積矣요 絕不至는 曰死요 乳之下에 其動應衣는 宗氣泄也라하니라

詳代脈之義컨대 本以代代爲言이라 如宣明五氣篇에 曰 脾脈代者는 謂胃氣隨時而更하니 此는 四時之代也라 根結篇에 曰 五十動而不一代者는 謂五臟受氣之盛衰니 此는 至數之代也라 本篇에 曰 但代無胃曰死者는 謂代無眞臟不死也라 由此觀之컨대 則凡見忽大忽小커나 乍遲乍數하야 倏<sup>(10)</sup>而更變不常者를 均謂之代라 自王叔和云 代脈은 來數中止하야 不能自還이니 脈代者는 死라하니 自後로 以此<sup>(6)</sup>相傳하야 遂失代之眞義라

平人氣象論에 曰 人以水穀<sup>(7)</sup>으로 爲本하니 故로 人이 絕水穀則死요 脈無胃氣도 亦死라 所謂無胃氣者는 但得眞臟脈하고 不得胃氣也요 所謂脈不得胃氣者

는 肝不弦하고 腎不石也라하니라

凡肝脈但弦과 腎脈但石을 名爲眞臟者는 以其無胃氣也요 若肝當弦而不弦과 腎當石而不石은 總由穀氣不至니 亦以其無胃氣也라 此는 舉肝腎으로 而言이요 則五臟皆<sup>(8)</sup>然이라

【校勘】

- 1) 有; 『藜照樓』, 『毘陵章氏』에는 ‘以’로 되어있다.
- 2) 少; 『藜照樓』, 『毘陵章氏』에는 ‘火’로 되어있다.
- 3) 弱; 諸本에 모두 ‘弱’으로 되어있으나, 『類經·脈色類·脈分四時無胃曰死』의注에 ‘石’이어야 한다고<sup>124)</sup> 하였다.
- 4) 下; 『育文』, 『廣益』에는 ‘夏’로 되어있다.
- 5) 貫膈絡肺 出於左乳下; 『毘陵章氏』에는 ‘貫膈絡出肺於左乳下’로 되어있다.
- 6) 自後以此; 『育文』, 『廣益』에는 ‘自是以此’로 되어있다. 『毘陵章氏』에는 ‘自此以後’로 되어있다.
- 7) 穀; 『藜照樓』에는 ‘臟’으로 되어있다.
- 8) 皆; 『育文』, 『廣益』에는 ‘亦’으로 되어있다.

【註釋】

(1) 微(미), 甚(심); 微란 浮取하였을 때에는 그러하나 沈取하였을 때에는 다른 脈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甚이란 浮取할 때나 沈取할 때나 같은 脈狀이 나타나는 것이다.<sup>125)</sup>

(2) 毛(모); 毛脈. 毛脈이란 脈氣 오는 것이 浮濇하여 깃털과 같이 가볍고 빈 것으로, <sup>126)</sup> 病證은 濇脈과 같다.<sup>127)</sup>

12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2. 弱, 當作石.  
 125) 朴晔.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p. 326.  
 12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2. 毛者, 脈來浮濇, 類羽毛之輕虛也.  
 127) 朴晔.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p. 34. 毛, 脈來浮濇, 類羽毛也. ……爲病, 與濇脈同.

(3) 臟眞(장진); 五臟의 眞氣를 말하는데, 五臟은 胃氣를 그 根本으로 하므로, 이는 결국 胃氣이다.

(4) 石(석); 石脈. 脈氣 오는 것이 沈實하여 돌이 물에 가라앉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sup>128)</sup>

(5) 虛里(허리); 胃에서 직접 갈라져 나온 하나의 大絡脈. 그 循行經路는 胃에서 위로 올라가 橫膈膜을 관통해서 肺로 연결된 후, 밖으로 향하여 갈라져서 왼쪽 乳房 아래, 心尖이 搏動하는 부위(乳根穴에 해당)에 분포되어 있다.

(6) 貫(관), 絡(락), 出(출); 經脈의 流注를 敍述하는 用語이다. 貫은 中間에서 뚫고 지나가는 것을, 絡은 그 脈과 서로 表裏가 되는 臟腑를 둘러싸는 것을, 出은 深部로부터 갑자기 淺部로 나오는 것을 말한다.<sup>129)</sup>

(7) 宗氣(종기); 水穀의 精微에서 化生되는 營衛氣와 吸入된 大氣를 總合하여 형성되며, 胸中에 축적되어있으니 이는 一身의 氣運이 運動, 輸布되는 출발점이 된다. 宗은 主이고 本이니 宗氣가 膻中에 蓄積되어 水穀을 만나 變化하여 胃로 나온다.<sup>130)</sup>

(8) 盛喘數絕(성천삭절); 虛里의 搏動이 甚하면서 혈떡거리는 듯 하거나 或 數急하면서 때로 斷絶되는 것을 말한다.<sup>131)</sup> \* 喘(천); 急促.<sup>132)</sup>

(9) 橫(횡); 胃氣가 橫溢하는 것이다. 胃氣는 나오다 막혀서 정체되면 胃氣가 맺혀서 橫溢하여 積이 된다.<sup>133)</sup>

(10) 倏; 倏忽, 잠깐 속, 문득 속.

【國譯】

또한 「胃氣解」가 뒤의 「通一子脈義」에 있다.

「玉機眞藏論」에 “脈狀이 弱하면서 滑한 것은 胃氣가 있는 것이고 易治이다.”고 하였다. 「終始篇」에 “邪氣가 이를 때는 脈이 緊하면서 빠르고, 穀氣가 이를 때는 脈이 느리면서 부드럽다.”라고 하였다.

「平人氣象論」에 “건강한 사람(平人)은 항상 胃에서 氣를 받으므로 胃는 平人의 常氣이다. 사람이 胃氣가 없으면 逆症이니 이는 死症이다. 봄에 胃氣가 있어 微弦하면 平脈이고, 弦이 甚하고 胃氣가 적은 것을 肝病이고, 弦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는 것은 死脈이다. 胃氣가 있으나 毛脈이 나타나면 가을에 病들고 毛脈이 甚하면 지금 病든다. 藏의 眞氣는 肝에서 發散되고 肝은 筋膜의 氣를 간직한다. 여름에 胃氣가 있어 微鉤하면 平脈이고, 鉤가 甚하고 胃氣가 적으면 心病이며, 鉤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는 것은 死脈이다. 胃氣가 있으나 石脈이 나타나면 겨울에 病들고 石脈이 甚하면 지금 病든다. 藏의 眞氣는 心에서 通하고 心은 血脈의 氣를 간직한다. 長夏에 胃氣가 있어 微軟弱하면 平脈이고, 弱이 甚하고 胃氣가 적으면 脾病이며, 代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으면 死脈이다. 軟弱하나 石脈이 나타나면 겨울에 病들고 石脈이 甚하면 지금 病든다. 藏의 眞氣는 脾에서 적시고 脾는 肌肉의 氣를 간직한다. 가을에 胃氣가 있어 微毛하면 平脈이고, 毛가 甚하고 胃氣가 적으면 肺病이며, 毛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으면 死脈이다. 毛하나 弦脈이 나타나면 봄에 病들고 弦脈이 甚하면 지금 病든다. 藏의 眞氣는 肺에까지 올라가 이로써 營衛, 陰陽을 運行하다. 겨울에 胃氣가 있어 微石하면 平脈이고, 石이 甚하고 胃氣가 적으면 腎病이며, 石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으면 死脈이다. 石하나 鉤脈이 나타나면 여름에 病들고 鉤脈이 甚하면 지금 病든다. 藏의 眞氣는 腎에까지 내려가고 腎은 骨髓의 氣를 간직한다. 胃氣가 나오는 大絡을 虛里라 하고 그 脈이 胃에서 膈膜을 貫하여 올라가 肺에 絡하고 왼쪽 가슴 밑으로 出하고 그 搏動을 옷 위에서 느낄 수 있으니 脈의 宗氣이다. 虛里의 搏動이 甚하면서 혈떡거리거나 或 數

12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2. 石者, 脈來沈實, 如石沈水之謂.

12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105, p. 108. 在中間穿過的叫‘貫’. 其脈繞於與其相關連的臟腑叫‘絡’. 由深部而忽出淺部的叫‘出’.

13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2. 宗, 主也, 本也, 皆宗氣積於膻中, 化於水穀, 而出於胃也.

13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2. 若虛里動甚而如喘, 或數急而兼斷絕者.

132)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115.

13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p. 112-113. 胃氣之出, 必由左乳之下, 若有停阻, 則結橫爲積.

急하면서 때로 斷絶되면 病이 속에 있는 것이다. 虛里脈이 結하면서 橫溢하면 積이 있는 것이다. 虛里脈이 끊어져 脈氣가 이르지 않으면 죽는다. 가슴 아래에서 虛里脈이 크게 搏動하여 옷과 함께 떨리면 宗氣가 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代脈의 뜻을 詳考하건대, 본래 교대하는 것을 말한다. 「宣明五氣篇」에 “脾脈은 代하다.”라 한 것은 胃氣가 四時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말하니, 이는 四時의 代이다. 「根結篇」에 “脈搏이 50회 搏動하도록 한 번도 代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五臟이 받는 氣의 盛衰를 말하니, 이는 脈氣가 이르는 數[至數]의 代이다. 이 篇에 “代하기만 하고 胃氣가 없으면 죽는다.”라고 한 것은 脈이 代하더라도 眞臟脈이 없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보건대, 脈이 大하였다가 小하고도 하고 遲하였다가 數하기도 하여 문득 바뀌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모두 代脈이라 한다. 王叔和가 『脈經』에서 “代脈은 數하게 搏動하다가 멈추어 스스로 되돌아 올 수 없다. 脈이 代한 者는 죽는다.”라고 한 이후 이 말이 계속 전해져 마침내 代脈의 참뜻을 잃어버렸다.

「平人氣象論」에 “사람은 水穀을 根本으로 하므로 사람이 水穀을 끊으면 죽는다. 脈에 胃氣가 없어도 역시 죽는다. 脈에 胃氣가 없다는 것은 眞臟脈만 홀로 드러나고 胃氣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脈에 胃氣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肝脈이 弦하지 않거나 腎脈이 石하지 않는 것들이다.”라고 하였다.

무릇 肝脈이 弦하기만 하고 腎脈이 石하기만 한 것을 眞臟脈이라 한 것은 胃氣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肝脈이 마땅히 弦하여야 하나 弦하지 않고, 腎脈이 마땅히 石하여야 하나 石하지 않으면 이는 모두 穀氣가 이르지 않기 때문이니 이 역시 胃氣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肝과 腎만을 들어 말하였지만 五臟이 모두 그러하다.

【考察】

1. 胃氣란 食物을 먹었을 때 五味가 胃에 들어가 생긴 氣運으로, 134) 즉 穀氣가 변화하여 胃氣가 되며,

13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1. 凡

胃氣는 다시 元氣의 형태로 貯藏된다. 胃氣는 그 脈狀이 太過하거나 不及함이 없이 조용하면서 부드럽다. 135) 따라서 胃氣가 있으면 비록 病이 있어 脈이 浮沈遲數하더라도 반드시 부드럽고 미끄러우면서 느리고 조화로운 脈狀을 겸하게 되고 그러면 害가 없다. 136)

따라서 胃氣는 病의 進退, 吉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胃氣는 正氣이고 病氣는 邪氣인데, 『終始篇』에 언급하였듯이 邪氣가 있으면 脈이 緊하면서 疾하고, 穀氣 즉 胃氣가 있으면 脈이 느리면서 부드럽다. 脈이 부드러워지면 胃氣가 살아나는 것이고 위기가 살아나면 病氣는 물러가기 마련이고, 脈이 弦急해지면 病氣가 커지고 病이 점차 심해지는 것이다. 137)

2. 代脈에 대하여, 脈이 大하였다가 小하고도 하고 遲하였다가 數하기도 하여 문득 바뀌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모두 代脈이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代’란 교대한다는 뜻으로, 一年에 네 季節이 교대로 나타나듯 脈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네 季節이 빈틈없이 교대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土의 作用이듯이, 四時의 脈이 一刻이라도 빈틈이 없이 교대로 均衡 있게 드러나는 것은 胃氣의 作用이다. 138)

3. 脾胃는 본래 土에 屬하고 胃氣의 脈은 부드러운데, 土는 木의 剋制를 받으므로, 木의 맥인 弦強한 맥

平人之常, 受氣於穀, 穀入於胃, 五臟六府皆以受氣, 故胃爲藏府之本.

13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1. 大都脈代時, 宜無太過無不及, 自有一種雍容和緩之狀者, 便是胃氣之脈. \* 雍; 和也, 和也, 和也, 和也, 和也. \* 容; 從容, 安也, 安也, 安也, 安也.

136) 張景岳,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99. 故凡診脈者, 無論浮沈遲數, 雖值諸病疊見, 而但於邪脈中, 得兼軟滑徐和之象者, 便是五臟中俱有胃氣, 病必無害也.

137) 張景岳,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99. 蓋胃氣者, 正氣也, 病氣者, 邪氣也, 夫邪正不兩立, 一勝則一負, 凡邪氣勝則正氣敗, 正氣至則邪氣退矣. 若欲察病之進退吉凶者, 但當以胃氣爲主.

13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1. 此胃氣者, 實平人之常氣, 有不可以一刻無者, 無則爲逆, 逆則死矣.

이 나타나면 木克土가 되어 좋지 않은 징후이다. 따라서 脈이 弦急해지면 病氣가 커지고 病이 점차 심해지는 것이다.<sup>139)</sup>

4. 眞藏脈은 胃氣의 부드러움이 없이 本藏의 氣만 나타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五臟의 각기 脈狀이 나타나지 않고 부드러움만 한 것도 眞藏脈이다. 마땅히 나타나야 할 五臟의 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五臟의 氣運이 不足한 것이고 이는 穀氣가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역시 胃氣가 없는 眞藏脈이다.

5. 本文에 五臟의 眞氣가 각기 肝臟에서 散하고, 心臟에서 通하며, 脾臟에서 濡하고, 肺臟에까지 高하며, 腎臟에까지 下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五臟의 각각의 生理機能이다. 楊元如는 “肝은 疏泄을 主管하므로 散한다고 하였고, 心은 血脈을 主管하므로 通한다고 하였으며, 脾는 灌溉를 主管하므로 濡한다고 하였고, 肺臟은 높은 곳에 위치하므로 高하다고 하였으며, 腎은 水의 臟이므로 下한다.”<sup>140)</sup>고 하였다.

## 六變八

### 第 8 節 脈의 六變(1)

#### 【原文】

邪氣藏府病形篇에 曰 諸急<sup>(2)</sup>者는 多寒하고 緩<sup>(2)</sup>者는 多熱하며 大<sup>(3)</sup>者는 多氣少血하고 小<sup>(3)</sup>者는 氣血皆少하며 滑<sup>(4)</sup>者는 陽氣盛하여 微有熱하고 澁<sup>(4)</sup>者는 少血少氣하여 微有寒이라 ○ 諸小者는 陰陽形氣俱不足이니 勿取以鍼하고 而調以甘藥也라하니라

按컨대 本篇正文에 曰 澁者多血少氣微有寒의 多血二字는 乃傳寫之誤也라 觀本篇下文컨대 曰 刺澁者

는 無令其血出이라하니 其爲少血을 可知요 仲景曰 澁者는 營氣不足이라하니 是亦少血之謂라

#### 【註釋】

(1) 六變(육변); 五臟病證에 나타나는 6가지 脈象으로, 急緩, 大小, 滑數을 말한다. 이 여섯 가지는 脈의 提綱이며<sup>141)</sup> 이를 살피면 病變이 정하여진다.<sup>142)</sup>

(2) 急(급); 弦緊함을 말한다. 緊하고 急한 脈은 風寒인 경우가 많고, 肝으로부터 氣化한다.<sup>143)</sup>

(3) 緩(완); 늘어진 脈狀으로, 後世의 遲緩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늘어지는 脈은 中熱인 경우가 많고, 脾胃로부터 氣化한다.<sup>144)</sup>

(4) 大(대); 大는 陽이 有餘한 것이고, 陽이 세차면 陰이 衰弱하므로 氣는 많고 血은 적다. 脈이 大하면 大개 浮越하는 陽이고, 心으로부터 氣化한다.<sup>145)</sup>

(5) 小(소); 小란 微나 細에 가까운 것이니, 陽에 있으면 陽이 虛한 것이고, 陰에 있으면 陰이 弱한 것이다. 脈體는 陰에 屬하고 腎으로부터 化한다.<sup>146)</sup>

(6) 滑(활); 滑은 깔끄럽지 않고 매끄럽게 脈이 往來하여 쟁반에 구슬이 구르는 것과 같다.<sup>147)</sup> 滑脈은 陽이고 氣血이 實한 것이다. 그러므로 陽氣가 세차서 熱이 약간 있는 것이다. 滑脈은 胃로부터 발생한다.<sup>148)</sup>

14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2. 六者爲脈之提綱, 故帝特學而問之.

142)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8. 黃帝曰 色脈已定, 別之奈何. 岐伯曰 調其脈之緩急小大滑澁, 而病變定矣.

14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4. 急者, 弦緊之謂……故凡緊急之脈多風寒, 而氣化從乎肝也.

14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4. 緩者, 縱緩之狀, 非後世遲緩之謂……故凡縱緩之脈多中熱, 而氣化從乎脾胃也.

14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4. 大爲陽有餘, 陽盛則陰衰, 故多氣少血……故脈之大者多浮陽, 而氣化從乎心也.

14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4. 小者, 近於微細, 在陽而陽虛, 在陰而陰弱, 脈體屬陰, 而化從乎腎也.

14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9. 滑, 不澁也, 往來流利, 如盤走珠.

14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4. 滑脈爲陽, 氣血實也, 故爲陽氣盛而微有熱……故滑脈從乎胃

139) 張景岳,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99. 且脾胃屬土, 脈本和緩, 土惟畏木, 脈則弦強. 凡脈見弦急者, 此爲土敗木賊, 大非佳兆.

140) 楊元如曰 肝主疏泄, 故曰散, 心主血脈, 故曰通, 脾主灌溉, 故曰濡, 肺臟居尊, 故曰高, 腎爲水臟, 故曰下. 張志聰, 前揭書, p. 76.에서 再引用.

(7) 澹(삽) ; 澹은 매끄럽지 않은 것이니, 虛細하면서 遲하고 脈의 往來가 갈끄러워 마치 모래 위에 빗방울이 뿌려진 듯, 또는 칼로 대나무를 긁는 듯 하다.<sup>149)</sup> 澹脈은 氣가 막힌 것이므로 血이 적다. 氣血이 모두 虛하면 陽氣가 不足하므로 寒이 약간 있다. 澹脈은 毛脈에 가깝고 肺로부터 氣化한다.<sup>150)</sup>

【國譯】

「邪氣藏府病形」篇에 “모든 急脈의 종류는 흔히 寒證이고, 緩脈의 종류는 흔히 熱證이며, 大脈의 종류는 흔히 氣는 많고 血은 적은 것이고, 小脈의 종류는 氣血이 모두 적은 것이며, 滑脈의 종류는 陽氣가 세차서 약간 熱이 있는 것이고, 澹脈의 종류는 血氣가 모두 적어서 약간 寒이 있는 것이다. 모든 小脈은 陰陽과 形氣가 모두 不足한 것이기 때문에 刺鍼하지 말고 甘藥으로 調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詳考하건대 本篇 正文에 “澹者 多血少氣 微有寒”의 ‘多血’ 두 字는 바로 傳寫 과정의 오류이다. 本篇 下文에 “刺澹者 無令其血出”이라 하니 血少임을 알 수 있고 張仲景도 澹은 營氣不足이라 하니 이 또한 血少임을 알 수 있다.

【考察】

1. 이 節에서는 脈의 緩急, 大小, 滑澹으로 말하였으나, 「五藏生成」篇에는 緩急 대신 浮沈을 말하였고, <sup>151)</sup> 後世에 이와 다른 것이 있어서, 緩急, 大小 대신 『難經·四難』에는 浮沈, 長短을, <sup>152)</sup> 張仲景은

也.  
14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9. 澹, 不滑也, 虛細而遲, 往來覺難, 如雨落沙, 如刀刮竹.  
15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4. 澹, 爲氣滯, 爲血少, 氣血俱虛則陽氣不足, 故微有寒也.……澹脈, 近毛, 故氣化從乎肺也.  
151)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30. 夫脈之大小滑澹浮沈, 可以指別, 五臟之象, 可以類推, 五臟相音, 可以意識, 五色微診, 可以目察, 能合脈色, 可以萬全.  
152)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11. 脈有一陰一陽, 一陰二陽, 一陰三陽, 有一陽一陰, 一陽二陰, 一陽三陰. 如此之言, 寸口有六脈俱動耶. 然, 此言者, 非有六脈俱動也, 謂浮, 沈, 長, 短, 滑, 澹也. 浮者陽也, 滑者

弦緊, 浮沈을<sup>153)</sup>, 滑伯仁은 浮沈, 遲數을 말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이 말은 약간 다른 듯 하나 의미는 相通한다. 즉 모두 表裏, 寒熱, 虛實의 여섯 가지를 分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浮, 大는 病이 表에 있는 것이고, 沈, 小는 病이 裏에 있는 것이며, 遲, 緩, 澹은 寒證이고, 數, 滑은 熱證이며, 短은 虛證이고, 弦, 緊, 急, 長은 實證이다.<sup>154)</sup>

「五藏生成」篇에 “脈의 小大, 滑澹, 浮沈은 손가락으로 구별할 수 있고, 五臟의 象은 이들로 類推할 수 있다. 五臟과 相應하는 音은 意識할 수 있고, 五色의 微妙한 診察은 눈으로 살필 수 있으니, 脈狀과 顏色을 종합할 수 있어야 萬全을 企할 수 있다.”라고 하여, 脈, 音, 色을 종합 분석하여야 診斷이 완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內外上下九

第 9 節 脈의 內外와 上下

【原文】

脈要精微論에 曰 推<sup>(1)</sup>而外之에 內而不外<sup>(2)</sup>면 有心腹積也요 推而內之에 外而不內<sup>(3)</sup>면 身有熱也라 推而上之에 上而不下<sup>1X4)</sup>면 腰足이 清<sup>(5)</sup>也요 推而下之에 下而不上<sup>2X6)</sup>하면 頭項痛也라

陽也, 長者陽也, 沈者陰也, 短者陰也, 澹者陰也. 秦越人.  
153) 張機. 傷寒論(中華醫書集成, 第二冊).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9. p. 5. 問曰 脈有殘賊, 何謂也. 答曰 脈有弦緊浮滑沈澹, 此六脈, 名曰殘賊, 能爲諸脈作病也.  
15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p. 119-120. 愚按, 此節以緩急大小滑澹而定病變, 謂可總諸脈之綱領也. 然五藏生成論則曰 小大滑澹浮沈, 及後世之有不同者, 如難經則曰 浮沈長短滑澹, 仲景則曰 脈有弦緊浮滑澹, 此六者, 名爲殘賊, 能爲諸脈作病也. 滑伯仁曰 大抵提綱之要, 不出浮沈遲數滑澹之六脈也. 所謂不出乎六者, 以其足統夫表裏陰陽, 虛實冷熱, 風寒濕燥, 藏府血氣之病也. 浮爲陽爲表, 診爲風爲虛, 沈爲陰爲裏, 診爲濕爲實, 遲爲在藏, 爲寒爲冷, 數爲在府, 爲熱爲燥, 滑爲血有餘, 澹爲氣獨滯. 此諸說者, 詞雖稍異, 義實相通. 若以愚見言之, 蓋總不出乎表裏寒熱虛實六者之辨而耳. 如其浮爲在表, 則散大而抗可類也. 沈爲在裏, 則細小而伏可類也. 遲者爲寒, 則徐緩澹結之屬可類也. 數者爲熱, 則洪滑疾促之屬可類也. 虛者爲不足, 則短濡微弱之屬可類也. 實者爲有餘, 則弦緊動革之屬可類也.

【校勘】

1) 上而不下 ; 『甲乙·卷四·第一中』에는 ‘下而不上’으로 되어있다.

2) 下而不上 ; 『甲乙·卷四·第一中』에는 ‘上而不下’로 되어있다.

【註釋】

(1) 推 ; 尋繹, 궁구할 추.

(2) 推而外之 內而不外(추이외지 내이불외) ; 만약 病이 表部에 있으면 外部에서 病脈을 찾고자 하지만 脈이 浮하지 않고 沈遲한 것이다.<sup>155)</sup>

(3) 推而內之 外而不內(추이내지 외이불내) ; 만약 病이 裏部에 있으면 內部에서 病脈을 찾고자 하지만 脈이 沈하지 않고 浮數한 것이다.<sup>156)</sup>

(4) 推而上之 上而不下(추이상지 상이불하) ; 上部에서 病脈을 찾아서 脈이 上部에서만 나타나고 下部에서는 弱한 것이다.<sup>157)</sup>

(5) 清(청) ; 寒也, 찼 청(淸同).

(6) 推而下之 下而不上(추이하지 하이불상) ; 下部에서 病脈을 찾아서 脈이 下部에서만 나타나고 上部에서는 虧損된 것이다.<sup>158)</sup>

【國譯】

「脈要精微論」에 “浮取하여 脈을 찾아 脈이 浮하지 않고 沈遲하면 心腹에 積이 있는 것이고, 沈取하여 맥을 찾아 脈이 沈하지 않고 浮數하면 몸에 熱이 있는 것이다. 上部에서 脈을 찾아 脈이 上部에서

만 나타나고 下部는 弱하면 腰足이 淸冷한 것이고, 下部에서 脈을 찾아 脈이 下部에만 나타나고 上部는 脈이 힘이 없으면 頭項痛의 病이다.”라고 하였다.

【考察】

1. 이 篇에서는 疾病을 診察할 때, 脈이 서로 비슷하여 辨別하기 어려운 것을 推求하여 결정할 것을 말한 것이다.<sup>159)</sup> ‘推’의 의미에 대하여 張介賓은 推動의 뜻이 아니라 推求의 뜻이라고 강조하였으나, 高世栻은 “推而外之’는 醫師의 손가락을 밖으로 향하여 누르는 것이고, ‘推而內之’는 醫師의 손가락을 안으로 향하게 누르는 것이며, ‘推而上之’는 醫師의 손가락을 寸·關·尺의 上部를 향하여 누르는 것이고, ‘推而下之’는 醫師의 손가락을 寸·關·尺의 下部를 향하여 누르는 것이다.”<sup>160)</sup>라고 하여, 醫師가 손가락을 안팎으로 향하도록 하여 脈을 찾는 橫看法과, 寸·關·尺의 上下로 향하도록 하여 脈을 찾는 豎看法으로 보아 해석을 하였다. 吳崑은 “三部가 平等하고 脈形이 바른 경우에는 이 方法을 쓸 필요가 없고, 一部만이 유독 비뚤어져 있거나 一部만이 유독 前部나 後部로 直行할 때 이 方法을 쓸 수 있다.”<sup>161)</sup>라고 하여 反關이나 飛斜의 脈法으로 보았다.

脈色 十

第 10 節 脈象과 顔色, 尺膚의 關係

【原文】

15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凡病若在表面欲求之於外矣, 然脈則沈遲不浮, 是在內而非外, 故知其心腹之有積也.  
15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凡病若在裏面欲推求於內矣, 然脈則浮數不沈, 是在外而非內, 故知其身之有熱也.  
15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凡推求於上部, 然脈止見於上, 而下部則弱, 此以有升無降, 上實下虛, 故腰足爲之淸冷也.  
15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凡推求於下部, 然脈止見於下, 而上部則虧, 此以有降無升, 淸陽不能上達, 故爲頭項痛也, 或以陽虛而陰湊之, 亦爲頭項痛也.

15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此下言察病之法, 當推求於脈以決其疑似也.  
160) 高世栻. 黃帝素問直解(第三版).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8. p. 128. 推而外之者, 醫之手指向外以按之, 脈偏盛於內而不外, 此有心腹之積病也. 推而內之者, 醫之手指向內以按之, 脈偏盛於外而不內, 此身形有熱邪也. 推而上之者, 醫之手指向寸關尺之上以按之, 脈隨應之, 上而不下, 此上盛下虛, 故腰足當淸冷也. 推而下之者, 醫之手指向寸關尺之下以按之, 脈隨應之, 下而不上, 此下盛上虛, 故頭項當強痛也.  
161) 朴炆.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p. 76. 若人, 三部平等, 脈形端直 毋用此法. 若脈來, 一部獨斜, 如內如外, 一部獨勁, 直前直後, 方用此法.

邪氣藏府病形篇에 曰 見其色<sup>(1)</sup>하야 知其病을 命曰明이요 按其脈<sup>(2)</sup>하야 知其病을 命曰神이요 問其病<sup>(3)</sup>하야 知其處를 命曰工이라 夫色脈與尺<sup>(4)</sup>之相應也 是如桴鼓影響之不得相失<sup>(5)</sup>也라 此<sup>1)</sup>亦本末根葉之出候也 尼 根死則葉枯矣라 故로 知一則爲工이요 知二則爲神이요 知三則神且明矣라 ○ 色靑者는 其脈弦也요 赤者는 其脈鉤也요 黃者는 其脈代<sup>(6)</sup>也요 白者는 其脈毛요 黑者는 其脈石이라 見其色而不得其脈<sup>(7)</sup>하고 反得其相勝之脈<sup>(8)</sup> 則死矣요 得其相生之脈<sup>(9)</sup> 則病已<sup>(10)</sup>矣라하니라

【校勘】

1) 此; 『廣益』에는 없다.

【註釋】

(1) 見其色(견기색); 그 容貌의 五色을 보는 것이다.<sup>162)</sup>

(2) 按其脈(안기맥); 寸口의 陰陽脈을 짚어보는 것이다.<sup>163)</sup>

(3) 問其病(문기병); 病이 발생한 原因을 묻는 것이다.<sup>164)</sup>

(4) 尺(척); 腕關節에서 肘關節까지의 皮膚.

(5) 桴鼓影響之不得相失(부고영향지부득상실); 북채로 북을 치면 곧바로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이 반응이 신속히 나타나고 때려해도 뭘 수 없는 관계를 말한다. \* 桴; 擊鼓杖, 북채 부. \* 失; 錯也, 그릇할 실.

(6) 代(대); 代는 교대한다는 뜻으로, 代脈은 辰戌丑未의 四季에 나타나는 脈이다.

(7) 不得其脈(부득기맥); 그 色에 符合하는 正脈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sup>165)</sup>

(8) 相勝之脈(상승지맥); 어떤 色에 相克하는 脈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靑色에 毛脈이 나타나서 金이 木을 克하는 것과 같다.<sup>166)</sup>

(9) 相生之脈(상생지맥); 어떤 色에 相生하는 脈狀이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靑色에 石脈이 나타나서 水가 木을 生하는 것과 같다.<sup>167)</sup>

(10) 已; 病愈, 병나을 이.

【國譯】

「邪氣藏府病形」篇에 “顏色을 보고 병을 아는 것을 明이라 하고, 寸口의 脈을 짚어서 병을 아는 것을 神이라 하며, 병이 발생한 原因을 물어서 病處를 아는 것을 工이라 한다. 色과 脈이 尺膚와 相應하는 것은 북채로 북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서로 어긋남이 없다. 이는 또한 本과 末, 뿌리와 잎 사이에 그 證候가 나타나는 것처럼 뿌리가 죽으면 잎이 마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를 아는 것을 工, 둘을 아는 것을 神, 셋을 아는 것을 神이며 明이라 한다. 顏色이 靑色이면 그 脈이 弦하고, 赤色이면 그 脈이 鉤, 黃色이면 그 脈이 代, 白色이면 그 脈이 毛, 黑色이면 그 脈이 石하다. 顏色에 相應하는 脈狀이 나타나지 않고 그 色과 相克하는 脈이 나타나면 죽고, 相生하는 脈이 나타나면 그 病이 낫는다.”라고 하였다.

【考察】

1. 이 節에서는 醫師의 水準을 明·神·工으로 구분하였으나, 『難經六十一難』에는 “患者의 五色을 보고서 병을 아는 것을 神이라 하고, 五音을 듣고서 병을 구별하는 것을 聖이라 하며, 먹고 싶은 五味를 물어서 병이 생긴 곳과 있는 곳을 아는 것을 工이라 하고, 寸口脈을 짚어 虛實을 보고 병을 알고 병이 어느 臟에 있는지를 아는 것을 巧라 한다.”<sup>168)</sup>라고 하여, 神

得其脈, 言不得其合色之正脈也.

16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9. 相勝之脈, 如靑色得毛脈, 以金克木之類是也.

16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9. 相生之脈, 如靑色得石脈, 以水生木之類是也.

16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8. 六十一難曰 經言望而知之謂之神, 聞而知之謂之聖, 問而知之謂之工, 切脈而知之謂之巧. 何謂也? 然, 望而知之者, 望見其五色, 以知其病. 聞而知之者, 聞其五音, 以別其病. 問而知之者,

16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9. 見色者, 望其容貌之五色也.

16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9. 按脈者, 切其寸口之陰陽也. \* 切; 切脈, 按也, 진맥할 절.

16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9. 問病者, 問其所病之緣因也.

16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9. 不

聖工巧로 區分하였다.

人迎氣口 十一

第 11 節 人迎(1)氣口(2)

【原文】

五色篇에 雷公이 曰 病之益甚과 與其方<sup>(3)</sup>衰는 如何 黃帝 曰 外內皆在焉이라 切<sup>(4)</sup>其脈口<sup>(5)</sup>하야 滑小緊<sup>(6)</sup>以沈<sup>(7)</sup>者는 病益甚호대 在中<sup>(8)</sup>이요 人迎氣大<sup>(1)</sup>緊以浮<sup>(9)</sup>者는 其病益甚호대 在外라 其脈口浮滑者는 病日進이요 人迎沈而滑者는 病日損<sup>(10)</sup>이라 其脈口滑以沈者는 病日進호대 在內이요 其人迎脈滑盛以浮者는 其病日進호대 在外라하니라 ○ 人迎盛堅<sup>(11)</sup>者는 傷於寒이요 氣口盛堅者는 傷於食이라하니라

詳컨대 人迎은 本足陽明之經脈으로 在結喉兩傍이요 氣口는 乃手太陰之經脈으로 在兩手寸口라 人迎은 爲腑脈이니 所以候表요 氣口는 爲臟脈이니 所以候裏라 故로 曰 氣口獨爲五臟主라하니 此는 內經之旨也라 所以로 後世에 但診氣口하고 不診人迎이라 蓋以脈氣流經하고 經氣歸於肺 而肺朝百脈이라 故로 寸口는 爲脈之大會<sup>(12)</sup>로 可決死生 而凡在表在裏之病을 但於寸口諸部에 皆可察也라 自王叔和로 誤以左手爲人迎하고 右手爲氣口하며 且云 左以候表하고 右以候裏라하니 豈左無裏而右無表乎아 訛傳至今하야 其誤甚矣라 詳義는 見後十六卷勞倦內傷門 及類經臟象類第十一篇이라

【校勘】

1) 大; 『崑陵章氏』에는 ‘火’가 되어있다.

【註釋】

(1) 人迎(인영); 足陽明胃經脈의 穴로 頸部の 아

問其所欲五味, 以知其病所起所在也. 切脈而知之者, 診其寸口, 視其虛實, 以知其病, 病在何藏府也. 經言以外知之曰聖, 以內知之曰神, 此之謂也. 秦越人.

래쪽 結喉의 양쪽 一寸 五분에 있다.<sup>169)</sup> 結喉란 喉結, 喉核, 喉節이라고도 하며, 頸의 중앙선상에서 突出된 부분이고, 喉頭의 甲狀軟骨部에 해당한다.

(2) 氣口(기구); 脈口, 寸口와 같다. 手太陰肺經의 脈이고 肺는 모든 氣를 主管하는데 氣의 盛衰가 여기에 나타나므로 氣口라 하고, 肺는 百脈의 來朝를 받고 脈의 大會가 여기에서 모이므로 脈口라 하며, 脈이 太淵에서 나오는데 그 길이가 一寸 九分이므로 寸口라 한다. 이름은 비록 셋이지만 실은 하나이다.<sup>170)</sup>

(3) 方; 方且, 方將, 바야호로 방.

(4) 切; 切脈, 按也, 진맥할 절.

(5) 脈口(맥구); 氣口.

(6) 緊(긴); 脈이 緊急한 것이다.<sup>171)</sup>

(7) 沈(침); 沈脈. 脈이 깊이 가라앉아 무겁게 눌러야 비로소 나타나며, 浮脈과 相對가 된다.<sup>172)</sup>

(8) 中; 內也, 內外, 안 중.

(9) 浮(부); 浮脈. 脈이 肌表에 떠올라 가볍게 누르면 나타나고 沈取하면 힘이 없는 脈象이다.<sup>173)</sup>

(10) 損; 減也, 덜 손.

(11) 盛堅(성건); 盛은 陽이 강한 것이고, 堅은 陰이 實한 것이다.<sup>174)</sup>

(12) 脈之大會(맥지대회); 寸口가 十二經脈이 모두 모이는 곳이란 뜻으로, 『難經·一難』<sup>175)</sup>에 나오

16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8. 人迎, 足陽明胃脈也, 在頸下來結喉旁一寸五分.

17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59. 氣口之義, 其名有三. 手太陰肺經脈也, 肺主諸氣, 氣之盛衰見於此, 故曰氣口. 肺朝百脈, 脈之大會聚於此, 故曰脈口. 脈出太淵, 其長一寸九分, 故曰寸口. 是名雖三而實則一耳.

171)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409. 形容脈來緊急.

172)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298. 沈脈. 脈深沈重按始得, 與浮脈相對.

173)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307. 指浮脈. 脈浮于肌表, 輕按即得, 沈取無力的脈象.

17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8. “寸口脈浮而盛者, 曰病在外.”의 注에 “浮爲在表, 盛爲陽強, 故病在外.”라 하고, “寸口脈沈而堅者, 曰病在中.”의 注에 “沈爲在裏, 堅爲陰實, 故病在中.”라 하였다.

17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p. 4-5. 寸口者, 脈之大會, 手太陰之脈動也. ……榮衛行陽二十五度, 行

는 말이다.

【國譯】

『靈樞五色』篇에 雷公이 “病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바야흐로 낫는 것은 어떠합니까?”라고 물었다.

黃帝께서 “內外에 모두 있다. 脈口를 진맥하여 滑小緊하면서 沈하면 病이 더욱 심해지는데 病이 내부에 있는 것이고, 人迎의 脈氣가 大緊하면서 浮하면 그 病이 더욱 심해지는데 病이 外部에 있는 것이다. 脈口가 浮滑한 것은 病이 날로 進行하는 것이고, 人迎이 沈하면서 滑한 것은 病이 날로 줄어드는 것이다. 脈口가 滑하면서 沈한 것은 病이 날로 進行하는 것인데 病이 内部에 있고, 人迎脈이 滑하고 세차면서 浮한 것은 그 病이 날로 進行하는 것인데 病이 外部에 있다.”라고 하시었다.

○ 또 同篇에 “人迎이 盛하거나 堅한 것은 寒氣에 傷한 것이고, 氣口가 盛하거나 堅한 것은 飮食에 傷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詳考하건대, 人迎은 본래 足陽明經脈으로 結喉의 兩傍에 있고, 氣口는 手太陰經脈으로 兩手의 寸口에 있다. 人迎은 腑脈이어서 이로써 表를 살피고, 氣口는 臟脈이어서 이로써 裏를 살핀다. 그러므로 氣口에서 유독 五臟을 主宰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內經의 趣旨이다. 때문에 後世에 氣口만 診察하고 人迎은 診察하지 않았다. 脈氣는 經으로 흐르고 經氣는 肺로 돌아가 肺에 모든 脈이 모이므로 寸口는 脈의 大會로 여기에서 生死를 決定할 수 있기 때문에 表裏의 病을 寸口의 諸部에서 모두 살필 수 있다. 王叔和로부터 左手는 人迎이고 右手는 氣口라고 잘못 알고, 또 左로써 表를 살피고 右로써 裏를 살핀다고 하였으니, 어찌 左에는 裏가 없고 右에는 表가 없겠는가? 至今까지 잘못 전해져 그 誤謬가 甚하다. 詳細한 뜻은 뒤의 「十六卷 勞倦內傷門」과 『類經 臟象類 第十一篇』에 있다.

【考察】

1. 張介賓은 “上古의 診法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陰亦二十五度, 爲一周也, 故五十度復會於手太陰. 秦越人.

는 三部九候를 取하여 全身의 脈을 診察하는 것이고, 둘째는 太陰과 陽明을 取하여 陰陽의 根本을 診察하는 것이며, 셋째는 左右의 氣口를 取하여 藏府의 氣를 診察하는 것이다.”<sup>176)</sup>라고 하였다. 이 가운데 太陰脈인 氣口와 陽明脈인 人迎을 취하는 방법은 『內經』 여러 곳에 언급되었다. 「四時氣」篇에 “氣口는 陰을 살피고, 人迎은 陽을 살핀다.”, 「禁服」篇에 “寸口는 內를 주재하고, 人迎은 外를 주재한다.”, 「經脈」, 「終始」 등의 篇에 人迎의 一盛, 二盛, 三盛, 脈口의 一盛, 二盛, 三盛 등이 모두 人迎은 陽明의 府脈이므로 表를 주재하고 脈口는 太陰의 藏脈이므로 裏를 주재함을 말하였다.<sup>177)</sup> 이 節에 人迎이 盛하거나 堅한 것은 寒氣에 傷한 것이고, 氣口가 盛하거나 堅한 것은 飮食에 傷한 것이라 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2. 上古에는 위의 3가지 診法이 있었으나, 張介賓 當時에도 寸口診法만을 사용하였다.<sup>178)</sup> 氣口가 五臟을 主宰하는 것에 대하여, 張介賓은 五臟六腑의 氣味가 모두 胃에서 나오는데 그 變化가 氣口에 나타나기 때문이라 하였다.<sup>179)</sup> 즉 食氣의 精華가 脈에 스며들고 脈은 經으로 흐르므로 經脈의 流通은 반드시 氣에서 말미암으며, 氣는 肺에서 主宰하므로 肺가 모든 脈의 大會가 되며,<sup>180)</sup> 이로써 生死를 決定할 수 있

17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0. 蓋上古診法有三, 一取三部九候以診通身之脈, 一取太陰陽明以診陰陽之本, 一取左右氣口以診藏府之氣.

17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0. 愚嘗考之, 四時氣篇曰 氣口候陰, 人迎候陽, 五色篇曰 人迎盛堅者傷於寒, 氣口盛堅者傷於食, 禁服篇曰 寸口主中, 人迎主外, 經脈, 終始等篇曰 人迎一盛二盛三盛, 脈口一盛二盛三盛等義, 皆言人迎爲陽明之府脈, 故主乎表, 脈口爲太陰之藏脈, 故主乎裏.

17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42. 人迎主表, 脈盛而堅者, 寒傷三陽也, 是爲外感. 氣口主裏, 脈盛而堅者, 食傷三陰也, 是爲內傷. 此古有之法也, 今則止用寸口診法.

17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59. 五臟六腑之氣味, 皆出於胃, 變見於氣口, 故爲五臟之主.

18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1. 精滲於脈, 脈流於經, 經脈流通, 必由於氣. 氣主於肺, 故爲百脈之朝會.

는 것이다.

3. 王叔和는 『脈經·卷一兩手六脈所主五臟六腑陰陽逆順』에 “關의 앞 一分은 사람의 生命을 主宰하는 곳으로, 左側이 人迎, 右側이 氣口이다.”<sup>181)</sup>라고 하여, 寸口로 左人迎 右氣口說을 주장한 것에 대하여, 張介賓은 “人迎은 足陽明胃脈으로 手部에 있을 수 없고 氣口는 모두 手太陰을 말하므로 左右로 나눌 수 없다. 「動輸」<sup>182)</sup>, 「本輸」<sup>183)</sup>, 「經脈」<sup>184)</sup>에 人迎이 結喉 兩傍에 있는 足陽明胃經 上의 動脈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sup>185)</sup>고 하였고, “王叔和가 內經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갑자기 左는 人迎이고 右는 氣口이며 左手의 寸口는 人迎 以前이고 右手의 寸口는 氣口 以前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여 晋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을 서로 전하니 구원할 수가 없다. 심지어는 左로 써 表를 살피고 右로 써 裏를 살핀다고까지 하니 더무니없는 말의 잘못이甚하다.”<sup>186)</sup>라고 하여, 王叔和의 人迎氣口說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 脈從病反 十二

### 第 12 節 脈은 從하나 病이 反인 경우

#### 【原文】

- 181) 王叔和 著,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10. 關前一分, 人命之主, 左爲人迎, 右爲氣口.  
182)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社. 臺北. 1977. p. 62. 胃氣上注於肺, 其悍氣上衝頭者, 循咽上走空竅, 循眼系, 入絡腦, 出頤, 下客主人循牙車, 合陽明, 并下人迎, 此胃氣別走於陽明者也.  
183)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社. 臺北. 1977. p. 6. 缺盆之中, 任脈也, 名曰天突. 一次任脈側之動脈, 足陽明也, 名曰人迎.  
18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社. 臺北. 1977. p. 19. 胃足陽明之脈, ……其支者, 從大迎前下人迎, 循喉嚨, 入缺盆, 下膈, 屬胃, 絡脾.  
18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社. 臺北. 1976. p. 60. 但人迎爲足陽明之脈, 不可以言於手, 氣口總手太陰而言, 不可以分左右. 如動輸本輸經脈等篇, 明指人迎爲結喉旁胃經動脈.  
18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社. 臺北. 1976. p. 59. 王叔和未詳經旨, 突謂左爲人迎, 右爲氣口, 左手寸口人迎以前, 右手寸口氣口以前等說. 自晋及今, 以訛傳訛, 莫可解救. 甚至以左候表, 以右候裏, 無稽之言, 其謬爲甚.

至眞要大論에 帝曰 脈從而病反<sup>(1)</sup>者는 其診을 何如오 岐伯이 曰 脈至<sup>(2)</sup>而從이나 按<sup>(2)</sup>之不鼓<sup>(3)(4)</sup>니 諸陽皆然이니이다 帝曰 諸陰之反은 其脈이 何如오 曰 脈至而從이나 按之鼓<sup>(1)</sup>甚而盛<sup>(5)</sup>也이니이다하니라

脈至而從者는 如陽證에 見陽脈<sup>(6)</sup>하고 陰證에 見陰脈<sup>(6)</sup>이 是皆謂之從也라 若陽證에 雖見陽脈이나 但按之不鼓하야 而指下無力 則脈雖浮大나 便<sup>(7)</sup>非眞陽之候니 不可誤認爲陽證이요 凡諸脈之似陽非陽者도 皆然也라 或陰證에 雖見陰脈이나 但按之鼓甚而盛者도 亦不得認爲陰證이라

#### 【校勘】

1) 鼓 ; 『藜照樓』에는 ‘豆’로 되어있다.

#### 【註釋】

(1) 脈從而病反(맥종이병반) ; 脈의 陰陽은 반드시 病의 陰陽을 따라야 하나, 脈과 病이 相應하지 않고 相反되는 것을 말한다.<sup>187)</sup> \* 從 ; 順也, 순할 중. \* 反 ; 逆也, 배반할 반.

(2) 至(지), 按(안) ; 至는 脈氣가 감응되는 것이다. 按은 진맥할 때에 손가락 힘을 무겁게 하여 筋骨 사이를 눌러보는 방법으로 ‘沈取’ 또는 ‘重取’라고도 한다.<sup>188)</sup>

(3) 鼓(고) ; 跳動, 搏動을 말함.<sup>189)</sup>

(4) 脈至而從 按之不鼓(맥지이종 안지불고) ; 陽病에 浮洪滑大한 陽脈이 나타나지만, 누르면 鼓動하지 않고 손가락에 無力하게 感應되는 것이다.<sup>190)</sup>

(5) 脈至而從 按之鼓甚而盛(맥지이종 안지고심이성) ; 陰病에 細小한 陰脈이 나타나지만, 누르면 浮沈에 모두 鼓動하고 힘이 있는 것이다.<sup>191)</sup>

18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社. 臺北. 1976. p. 220. 謂脈之陰陽必從乎病, 其有脈病不應而相反者, 診當何如也.

188) 成百萬. 脈經의 脈形象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1. p. 4.

189)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588.

19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社. 臺北. 1976. p. 220. 若浮洪滑大之類, 本皆陽脈, 但按之不鼓指下無力, 便非眞陽之候, 不可誤認爲陽.

(6) 陽脈(양맥), 陰脈(음맥); 大·浮·數·動·滑이 陽脈이고, 沈·澁·弱·弦·微가 陰脈이다.<sup>192)</sup> 張介賓은 「通一子脈義·正脈十六部」에 浮·洪·芤는 陽脈, 沈·遲·微·澁은 陰脈, 數·緩·虛·實은 陰脈일 때도 있고 陽脈일 때도 있는 脈이라 하였다.<sup>193)</sup>

(7) 便; 卽也, 곧 변.

【國譯】

「至眞要大論」에 黃帝께서 “脈狀은 병과 符合하나 病症이 이와 相反되면 診察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으시니, 岐伯이 “脈이 搏動하여 症狀과 不합하나 눌렀을 때 鼓動하지 않는 것이니, 모든 陽病이 그러합니다.”라고 하였다. 黃帝께서 “모든 陰病에 相反하는 것은 脈이 어떠한가?”라고 물으시니, “脈이 搏動하여 症狀과 不합하나 눌렀을 때 鼓動이 甚하면서 세칩니다.”라고 하였다.

脈이 搏動하여 症狀과 不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陽證에 陽脈이 나타나고, 陰證에 陰脈이 나타나는 것들을 모두 從이라 한다. 만약 陽證에 비록 陽脈이 나타나지만 눌렀을 때 鼓動하지 않고 손가락에 힘없이 박동하면 脈이 浮·大하다더라도 진정한 陽의 證候가 아니니 陽證으로 誤認해서는 안 되고 모든 陽證인 듯 하나 陽證이 아닌 脈이 모두 그러하다. 或 陰證에 陰脈이 나타나더라도 눌렀을 때 鼓動이 甚하면서 세찬 것도 陰證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考察】

1. 脈의 陰陽에 대하여, 張仲景은 『傷寒論·辨脈法』에 大·浮·數·動·滑이 陽脈, 沈·澁·弱·弦·微가 陰脈이라 하였고, 秦越人은 『難經·四難』에 浮·滑·長이 陽脈, 沈·短·澁이 陰脈이라 하여 長·短을 더 밝혔고,<sup>194)</sup> 李

時珍은 『瀕湖脈學』에 浮·遲·滑·實·長·洪·緊·芤·弦·動·促이 陽脈, 沈·數·澁·虛·短·微·緩·革·牢·濡(즉, 軟)·弱·散·細·伏·結·代가 陰脈이라 하여<sup>195)</sup>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2. 만약 浮·洪·滑·大한 陽脈이 나타나는데 다만 눌렀을 때 鼓動하지 않고 손가락에 힘없이 박동하면 진정한 陽의 證候가 아니므로 陽脈으로 誤認해서는 안 된다. 모든 陽證에 이런 맥이 나타나는 것은 陽脈과 類似하나 陽脈이 아니므로 假熱이나 格陽 等の 證이 된다.<sup>196)</sup> 만약 脈이 비록 細·小하지만 눌렀을 때 鼓動이 甚하고 힘있게 박동하면 이 또한 陰脈인 듯 하나 陰脈이 아니다. 모든 陰病에 이러한 脈이 나타나면 假寒이나 格陰이 되어 表裏의 症狀이 다르다. 이러한 相反은 모두 標와 本이 다른 것이다. 예를 들어 陰脈이 陽證에 나타나면 本은 陰이고 標는 陽이다. 陽脈이 陰證에 나타나면 本은 陽이고 標는 陰이다. 그러므로 病을 치료할 때에는 반드시 그 本을 찾아야 한다.<sup>197)</sup>

脈이 浮·大하다거나 細·小하다고 하여 바로 陽證이다, 陰證이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有力, 無力을 살피서 세심히 관찰하여야 眞熱假寒, 眞寒假熱의 病을 誤治하지 않을 수 있다.

搏堅軟散 十三

第 13 節 搏堅과 軟散

也. 秦越人

195) 朴晷. 國譯 瀕湖脈學. 대성문화사. 서울. 1992. pp. 1-64.

19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220. 凡諸陽證得此者, 似陽非陽皆然也. 故有爲假熱, 有爲格陽等證. 此脈病之爲反也. \* 格陽(각양); 素問·六節藏象論에 “人迎이 四倍 以上이면 格陽이다.”라고 하였으니, 陽이 太盛하여 外에서 막아 陰과 조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 格; 阻拒也, 막을 각.

19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220. 陰病見陰脈, 脈至而從矣. 若雖細小而按之鼓甚有力者, 此則似陰非陰也. 凡諸陰病而得此, 有爲假寒, 有爲格陰, 表裏異形, 所以爲反. 凡此相反者, 皆標本不同也. 如陰脈而陽證, 本陰標陽也. 陽脈而陰證, 本陽標陰也. 故治病當必求其本.

【原文】

脈要精微論에 曰 心脈이 搏堅而長<sup>(1)</sup>하면 當病舌卷不能言이요 其軟而散<sup>(2)</sup>者는 當消環<sup>(3)</sup>自己<sup>(3)</sup>라 ○ 肺脈이 搏堅而長하면 當病唾血이요 其軟而散者는 當病灌汗<sup>(4)</sup>이니 至令不復散發也라 ○ 肝脈<sup>(2)</sup>이 搏堅而長하고 色不靑하면 當病墜若搏하야 因血在脇下하야 令人喘逆이요 其軟而散하고 色澤者는 當病溢飲<sup>(5)</sup>이니 溢飲者는 渴暴多飲하야 而易入肌皮腸胃之外也라 ○ 胃脈이 搏堅而長하고 其色赤이면 當病折脾<sup>(6)</sup>요 其軟而散者는 當病食痺<sup>(7)</sup>라 ○ 脾脈이 搏堅而長하고 其色黃이면 當病少氣<sup>(8)</sup>요 其軟而散하고 色不澤者는 當病足<sup>(3)</sup>胻腫<sup>(9)</sup>하야 若水狀也라 ○ 腎脈이 搏堅而長하고 其色黃而赤者는 當病折腰<sup>(10)</sup>요 其軟而散者는 當病少血이니 至令不復<sup>(11)</sup>也라 ○ 帝 曰 診得心脈而急하면 此爲何病고 岐伯이 曰 病名心疝<sup>(12)</sup>이니 心은 爲牡臟<sup>(13)</sup>이요 小腸은 爲之使<sup>(14)</sup>니 故로 少腹에 當有形也니이다 ○ 帝 曰 診得胃脈은 何如오 曰 胃脈이 實<sup>(15)</sup>則脹<sup>(16)</sup>이요 虛<sup>(17)</sup>則泄<sup>(18)</sup>이라하니라

【校勘】

- 1) 當消環; 『太素·五藏脈診』에는 ‘當消濁’로 되어있고, 『甲乙·卷四·第一中』에는 ‘病消濁’로 되어있다.
- 2) 肺脈搏堅而長 當病唾血 其軟而散者 當病灌汗 至令不復散發也 肝脈; 『人民』, 『中醫藥』, 『古籍』, 『全書』, 『藜照樓』, 『上海』, 『廣益』, 『岳峙樓』, 『四庫』에는 ‘肺脈搏堅而長 當病唾血 其軟而散者 當病灌汗 至令不復散發也’이 빠져있고 ‘肝脈’이 ‘肺脈’으로 되어있으나, 『九思堂』, 『金匱』, 『類經·卷六·第二十』, 『素問脈要精微論』, 『太素·五藏脈診』, 『甲乙·卷四·第一中』에는 위와 같이 되어있다. 「內經脈義」가 『素問』을 발췌한 것이므로 『素問』을 따라서, 原文을 위와 같이 고치고 註釋과 國譯도 이를 따른다.
- 3) 足; 『廣益』에는 없다.

【註釋】

(1) 搏堅而長(박견이장); 脈이 단단하고 속이 차면서 긴 脈象이다. 이는 本氣가 亢盛한 것으로, 邪氣가 有餘하다.<sup>198)</sup>

(2) 軟而散者(연이산); 脈이 軟弱하면서 늘어서고 흩어지는 것이다. 이는 本氣가 이미 虛한 것이니 모두 不及한 것이다.<sup>199)</sup>

(3) 消環自己(소환자이); 消는 다한다는 것이고, 環은 한 바퀴 돈다는 것이니, 한 周期가 다하면 病이 저절로 낫는다.<sup>200)</sup>

(4) 灌汗(관한); 물을 들이붓듯이 땀이 나는 것이다.<sup>201)</sup> \* 灌(관); 注也, 물따를 관. 漬也, 적실 관.

(5) 溢飲(일음); 水液이 體表 및 皮下組織에 滯留된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水氣(水腫) 病과 같다. 주요 증상은 몸이 쭈시고 아프며, 팔다리가 붓고 아프며, 숨이 가쁘고 기침을 하는 것 등이다. 心臟病水腫, 腎炎水腫 등에 속한다.

(6) 折脾(절비); 넓적다리가 끊어질 듯 아픈 것.<sup>202)</sup> \* 脾; 股也, 넓적다리 비.

(7) 食痺(식비); 飲食을 먹으면 消化되지 않고 먹기만 하면 더부룩하고 아프고 물을 넘기며 반드시 吐해내야만 증상이 멎는 것이다.<sup>203)</sup>

(8) 少氣(소기);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적으며 미약하게 호흡하는 것으로 대개 中氣가 不足하거나 肺와 腎이 虛하여 생긴다.<sup>204)</sup>

(9) 足胻腫(족행종); 下肢 浮腫. \* 胻; 脛崙, 정강이뼈끝 행.

(10) 折腰(절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병.<sup>205)</sup>

198)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89. 搏堅而長, 指脈來堅實而長, 爲本氣亢盛, 邪氣有餘也.  
 199)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89. 奕而散, 脈來軟弱緩散, 爲本氣已虛, 皆爲不及.  
 20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5. 消, 盡也. 環, 周也. 謂期盡一周而病自己矣.  
 201)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89. 灌汗, 謂汗出如注.  
 202)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139. 折脾, 謂脾痛如折.  
 20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633. 食痺者, 食入不化, 入則悶痛嘔吐, 必吐出乃已.  
 204) 朴晔. 國譯 瀕湖脈學. 대성문화사. 서울. 1992. p. 71.  
 205)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出版. 高文社 影

(11) 至令不復(지령불복) ; 本氣가 旺盛한 때가 되어도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니, 精血이 부족하여 장기간동안 健康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sup>206)</sup>

(12) 心疝(심산) ; 寒邪가 心經에 침범하여 생긴다. 증상은 下腹部에 덩어리가 있는데, 걸으면 두드러지고 氣가 흥부로 치밀어 올라 가슴이 심하게 아프고 脈이 팽팽하고 급하다. 少腹에 病形이 있는 것이나 실제로는 寒邪가 少陰을 乘하여 생긴 것이다.<sup>207)</sup>

(13) 牡藏(모장) ; 肝心 二藏이다. 각기 君火, 相火가 깃들여 있어 陽의 剛性性質이 있으므로 牡藏이라 한다.<sup>208)</sup> 『靈樞·順氣一日分爲四時』篇에 肝·心을 牡藏, 脾·肺·腎을 牝藏이라 하였다.<sup>209)</sup> \* 牡 ; 動物男性, 수컷 모. \* 牝 ; 動物女性, 암컷 빈.

(14) 小腸爲之使(소장위지사) ; 心과 小腸은 表裏가 되므로 脈絡이 相通하여 使가 된다.<sup>210)</sup> \* 使 ; 將命者, 심부름꾼 사.

(15) 實(실) ; 實脈. 三部脈이 浮取하거나 沈取하거나 모두 힘이 있는 것이다.<sup>211)</sup>

(16) 脹(창) ; 腹部 脹滿.

(17) 虛(허) ; 虛脈. 脈搏이 손가락에 텅 비고 힘이 없이 感應되는 것이다.<sup>212)</sup>

(18) 泄(설) ; 泄瀉.

【國譯】

「脈要精微論」에 “心脈이 搏堅하면서 長하면 허

가 말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軟하면서 散하면 허가 말리는 것이 사라지면서 저절로 낫는다. 肺脈이 搏堅하면서 長하면 唾血하게 되고, 軟하면서 散하면 땀이 물처럼 흘러 灌汗이 되는데, 때가 되어도 다시 發散하지 않는다. 肝脈이 搏堅하면서 長하고 顏色이 푸르지 않으면 떨어져 부딪힌 것이니 瘀血이 脇下에 있으므로 喘逆하게 되고, 軟하면서 散하고 얼굴에 光澤이 있으면 溢飲을 앓게 되니 溢飲이란 목이 말라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셔서 이것이 肌肉 皮膚 腸胃의 사이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다. 胃脈이 搏堅하면서 長하고 顏色이 붉으면 넓적다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軟하면서 散하면 食痺를 앓게 된다. 脾脈이 搏堅하면서 長하고 顏色이 누르면 少氣가 되고, 軟하면서 散하고 顏色에 潤氣가 없으면 足部와 정강이가 부어서 水腫과 같이 된다. 腎脈이 搏堅하면서 長하고 顏色이 누르면 붉으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軟하면서 散하면 少血이 되니 腎臟의 氣가 旺盛한 겨울이 되어도 回復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黃帝께서 “診脈하여 心脈이 急하면 이는 어떤 病입니까?”라고 하시니, 岐伯이 “病名이 心疝입니다. 心은 牡藏이고 小腸은 그 使가 되므로 少腹에 病形이 있게 됩니다.”라고 하였다.

黃帝께서 “胃脈은 어떻게 診脈합니까?”라고 하시니, “胃脈이 實하면 腹部가 脹滿하게 되고, 虛하면 泄瀉가 발생합니다.”라고 하였다.

【考察】

1. 張介賓은 이 節에 五藏의 脈과 病을 말하면서 하나는 搏堅하면서 長하다고 하고 하나는 軟하면서 散하다고 하였으나, 그 病은 모두 不足한 것이다. 이는 搏堅하면서 長한 것은 邪氣가 正氣를 勝한 것이니, 이를 邪氣가 모이는 곳은 반드시 그 氣가 虛하다고 하고, 軟하면서 散한 것은 本原이 不足한 것이니 이를 正氣를 빼앗기면 虛하다고 하기 때문이다.<sup>213)</sup>

21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愚按, 本篇五藏脈病, 一曰搏堅而長, 一曰奕而散, 而其爲病, 多皆不足何也? 蓋搏堅而長者, 邪勝乎正, 是謂邪之所湊其氣必虛也. 奕而散者, 本原不足, 是謂正氣奪則虛也. 一以有邪而致虛, 一以無邪本虛, 虛雖若一, 而病本不同, 所當辨也.

印. 서울. 1970. p. 316. 腰痛如折之病.  
206) 當病精虛血少, 長期不能恢復健康. 王琦 等. 前揭書. p. 92.  
20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心疝者, 形在少腹, 而實以寒乘少陰所致.  
208)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出版. 高文社 影印. 서울. 1970. p. 316. 肝心二藏也 以其爲君相二火所寄, 有陽剛之性質, 故名.  
20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48. 肝爲牡藏. ……心爲牡藏. ……脾爲牝藏. ……肺爲牝藏. ……腎爲牝藏.  
21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心與小腸爲表裏, 故脈絡相通而爲之使.  
211)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167. 指脈實. 卽三部脈學按均有力.  
212)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472. 指(脈)虛. 卽脈搏應手空豁無力.

前者는 虛實이 挾雜되었으므로 孰多孰少를 따져서 치료해야 하고, 後者는 오로지 虛한 것이므로 補法으로 치료해야 한다.

2. ‘心脈……其軟而散者 當消環自己’에 대하여 張介賓은 “만약 證이 앞과 같이 허가 말려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脈은 軟하면서 散하면 心의 氣가 장차 和平해지려는 것이다. 消는 다한다는 것이고, 環은 한 바퀴 돈다는 것이니, 한 周期가 다하면 病이 저절로 낫는다.”<sup>214</sup>라고 註釋하였는데, 이는 나머지 肺·肝·胃·脾·腎의 脈이 軟하면서 散할 때 病症이 나타나는 것과 相異하므로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太素·五藏脈診』, 『甲乙·卷四第一中』에는 ‘消環’이 ‘消渴’로 되어있는데, 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寸口諸脈 十四

### 第 14 節 寸口の 여러 가지 脈

#### 【原文】

平人氣象論에 曰 寸口之脈이 中手<sup>(1)</sup>短者를 曰頭痛이요 ○ 寸口脈이 中手長者를 曰足脛痛이요 ○ 寸口脈이 中手促上擊<sup>(2)</sup>者를 曰肩背痛이요 ○ 寸口脈이 沈而<sup>(3)</sup>堅<sup>(3)</sup>者를 曰病在中이요 ○ 寸口脈이 浮而盛者를 曰病在外요 ○ 寸口脈이 沈而弱을 曰寒熱及疝瘕<sup>(4)</sup>少腹痛이요 ○ 寸口脈이 沈而橫<sup>(5)</sup>을 曰脇下有積거나 腹中有橫積하야 痛<sup>(6)</sup>이요 ○ 寸口脈이 沈而喘<sup>(7)</sup>을 曰寒熱이라 ○ 脈盛滑堅者는 病在外요 ○ 脈小實而堅者는 病在內라 ○ 脈小弱以澁을 謂之久病이요 ○ 脈滑浮而疾<sup>(8)</sup>者를 謂之新病이라 ○ 脈急者를 曰疝瘕少腹痛이요 ○ 脈滑을 曰風이요 ○ 脈澁을 曰痺<sup>(9)</sup>요 ○ 緩而滑을 曰熱中<sup>(10)</sup>이요 ○ 盛而緊<sup>(5)</sup>을 曰脈이라 ○ 臂多青脈을 曰脫<sup>(4)</sup>血이요 ○ 尺脈緩澁을 謂之解休<sup>(11)</sup>이요 ○ 安臥脈

21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5. 若證如前, 而脈則奕散者, 心氣將和也. 消, 盡也. 環, 周也. 謂期盡一周而病自己矣.

盛을 謂之脫<sup>(4)</sup>血이요 ○ 尺澁<sup>(12)</sup>脈滑을 謂之多汗이요 ○ 尺寒<sup>(5)(13)</sup>脈細를 謂<sup>(6)</sup>之後泄<sup>(14)</sup>이요 ○ 脈尺粗<sup>(15)</sup>常熱者를 謂之熱中이라하니라

#### 【校勘】

- 1) 而; 『育文』, 『廣益』에는 없다.
- 2) 喘; 『四庫』에는 ‘弦’으로 되어있다.
- 3) 緊; 『廣益』에는 ‘堅’으로 되어있다.
- 4) 脫; 『藜照樓』, 『上海』, 『育文』, 『岳峙樓』, 『四庫』, 『毘陵章氏』에는 ‘月先’으로 되어있다. 『廣益』에는 앞의 ‘脫’은 ‘月先’으로, 뒤의 ‘脫’은 ‘先’으로 되어있다.
- 5) 寒; 『廣益』에는 ‘塞’으로 되어있다.
- 6) 謂; 『全書』에는 ‘胃’로 되어있다.

#### 【註釋】

- (1) 中手(중수); 손가락에 感應되는 것이 顯著함을 뜻한다.<sup>215</sup> \* 中(중); 應也, 응할 중.
- (2) 促上擊(촉상격); 促은 脈이 數하면서 한번씩 쉬는 것이고, 上擊은 脈이 위로 치받아 손가락에 感應되는 것이다.<sup>216</sup>
- (3) 堅(견); 堅實한 脈狀.<sup>217</sup>
- (4) 疝瘕(산가); 瘕瘕이라고도 한다. 이는 하복부가 열이 나고 아프며 요도에서 백색의 점액이 흘러나오는 병증이다. \* 疝(산); 산증 산. \* 瘕(가); 덩어리 가.
- (5) 橫(횡); 急하고 數한 맥상.<sup>218</sup>
- (6) 腹中有橫積痛(복중유횡적통); 腹部에 積이 있어서 아픈 것이다.<sup>219</sup>
- (7) 喘(천); 喘은 脈이 急促한 것이다.<sup>220</sup>

215)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96. 中手, 卽應手顯著之意.

216)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103. 脈促的是脈數而時一止, 上擊是脈上搏應手.

217)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97. 寸口脈沈而堅實, 主病在裏.

21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8. 橫, 急數也.

219) 腹中有橫積作痛.

王琦等. 前揭書. p. 97.

22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8. 喘,

(8) 疾(질) ; 數脈.<sup>221)</sup>

(9) 痺(비) ; 痺란 막혔다는 뜻이니, 風寒濕 三氣가 같이 침범하여 經絡을 막아서 血氣가 運行되지 못하여 痺가 되니, 즉 痛風不仁같은 것들이다.<sup>222)</sup> 風邪가 편승하면 行痺, 寒邪가 편승하면 痛痺, 濕邪가 편승하면 着痺가 된다.

(10) 熱中(열중) ; 熱中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熱로 인해 맞은 風證, 둘째는 火氣가 腹中에 있는 것, 셋째는 消痺의 別稱이다.<sup>223)</sup> 여기서는 두 번째 의미다.

(11) 解休(해역) ; 解는 게으른 것을 말하고 休은 피곤한 것을 말한다. 解休은 인체가 피로를 느끼고 팔다리와 뼈가 나른해지는 증상을 말한다. 消渴病, 만성소모성질환, 혹은 열성병 등에서 볼 수 있다. 肝腎이 허약하고 精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12) 尺澁(척삽) ; 尺膚가 澁한 것으로, 營血이 적기 때문이다.<sup>224)</sup>

(13) 尺寒(척한) ; 尺部가 차가운 것으로, 脾의 陽氣가 衰한 것이다.<sup>225)</sup>

(14) 後泄(후설) ; 大便泄瀉를 말함.<sup>226)</sup>

(15) 粗 ; 物不精, 거칠 추.

【國譯】

急促也.

221) 朴晳. 國譯 瀕湖脈學. 대성문화사. 서울. 1992. p. 35. 疾則數也.

22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375. 痺者, 閉也. ……故風寒濕三氣雜至, 則壅閉經絡, 血氣不行而病爲痺, 卽痛風不仁之屬.

223)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出版. 高文社 影印. 서울. 1970. 熱中 ; 1. 風證之因熱而中者. 素問風論 風氣與陽明入胃, 循脈而上至目內眥, 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 則爲熱中而目黃. 按 熱勝則風動, 甚則風毒上攻, 頭面腫癢, 痰涎閉塞, 心胸煩熱, 大小便秘, 下注腰脚, 腫痛生瘡, 久之能致癱瘓. 宜……防風通聖散之屬. 2. 火氣在腹中也. 靈樞五邪篇 陽氣有餘, 陰氣不足, 則熱中善饑. 素問異法方宜論 魚者, 使人熱中. 3. 消痺之別稱.

22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8. 謂尺膚澁而尺脈滑也. 尺膚澁者, 營血少也.

22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9. 尺膚寒者, 脾之陽衰, 以脾主肌肉四肢也.

226)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出版. 高文社 影印. 서울. 1970. 猶言便泄.

「平人氣象論」에 “寸口脈이 短하게 손에 感應되는 것을 頭痛이라 하고, 寸口脈이 長하게 손에 感應되는 것을 足脛痛이라 하며, 寸口脈이 急促하면서 上部로 손가락을 치받는 것은 肩背痛이라 한다. 寸口脈이 沈하면서 堅한 것을 病이 內部에 있다고 하고, 寸口脈이 浮하면서 澁한 것을 病이 外部에 있다고 한다. 寸口脈이 沈하면서 弱한 것을 寒熱, 疝瘕, 少腹痛이라 한다. 寸口脈이 沈하면서 橫한 것을 脇下에 積이 있거나 臍속에 橫積이 있어서 아픈 것이라 한다. 寸口脈이 沈하면서 喘한 것을 寒熱이라 한다. 脈이 세차고 滑堅한 것은 病이 外部에 있고, 脈이 小하고 實하면서 堅한 것은 病이 內部에 있다. 脈이 小, 弱하면서 澁한 것을 久病이라 하고, 脈이 滑, 浮하면서 數한 것을 新病이라 한다. 脈이 弦急한 것을 疝瘕, 少腹痛이라 한다. 脈이 滑한 것을 風이라 하고, 脈이 澁한 것을 痺證이라 하며, 緩하면서 滑한 것을 熱中이라 하고 세차면서 緊한 것은 脈이라 한다. 팔에 青脈이 많은 것을 脫血이라 하고, 尺脈이 緩澁한 것을 解休이라 하며, 누워 있으려고만 하고 脈이 盛한 것을 脫血이라 하고, 尺膚가 澁하고 尺脈이 滑한 것을 多汗이라 한다. 尺膚가 차갑고 脈이 細한 것을 後泄이라 하고 脈이 尺膚가 거칠면서 항상 熱이 나는 것을 熱中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考察】

1. 本文에 寒熱, 疝瘕, 少腹痛, 熱中, 脫血에 대하여 두 가지 脈象을 제시하였다. 寒熱에 대하여 ‘寸口脈沈而弱’과 ‘寸口脈沈而喘’을 제시하였는데, ‘沈而弱’은 陰陽이 모두 虛하여 外寒內熱한 寒熱에, ‘沈而喘’은 속에 熱이 있어 생긴 寒熱에 속하는 脈象이다. 疝瘕, 少腹痛에 대하여 ‘寸口脈沈而弱’, ‘脈急’의 두 가지 脈象을 제시하였는데, ‘沈而弱’은 陽이 적어 陰寒이 下部에 있어 생긴 疝瘕, 少腹痛에, ‘脈急’은 陰寒의 邪氣가 세차 疝瘕, 少腹痛에 속하는 脈象이다. 熱中에 대하여 ‘緩而滑’, ‘脈尺粗常熱’의 두 가지 脈象을 제시하였는데, ‘緩而滑’은 胃에 熱이 있는 熱中에, ‘脈尺粗常熱’은 眞陰이 不足하여 陰火가 有餘한 熱中에 속하는 脈象이다. 脫血에 대하여 ‘臂多青脈’, ‘安臥脈盛’의 두

가지 脈象을 제시하였는데, ‘臂多青脈’은 血氣가 빠져나가 寒氣가 凝泣한 脫血에, ‘安臥脈盛’은 血이 빠져나가 陰이 虛해진 脫血에 속하는 脈象이다. 따라서 한 가지 證狀에 한 가지 脈象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病因病機에 따라 여러 가지 脈象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四診을 모두 參考하여 細心하고 正確한 診察을 해야 한다.

‘寸口脈沈而弱 曰寒熱及疝瘕少腹痛’에 대하여, 葉桂는 “『脈要精微論』의 ‘下竟下 少腹膝足中事也.’라고 한 것을 보면 이는 바로 尺中을 진찰하여야 하나, 지금 寸口를 診察하여 寒熱 疝瘕 少腹痛이 있는 것을 아니, 診脈에 있어서 한가지를 固執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sup>227)</sup>고 하였는데, 이 말이 타당하다.

2. ‘尺脈緩澁 謂之解體’에 대하여 張介賓은 尺部の 脈이 緩澁한 것으로 보았으나, 『素問校釋』에는 “이 아래에 ‘尺澁脈滑’, ‘尺寒脈細’가 나오므로 ‘尺緩脈澁’으로 고쳐야 한다. 그래야 尺膚診과 脈診을 結合한 文段의 脈絡에 符合한다.”<sup>228)</sup>라고 하였는데, 『靈樞論疾診尺』에 “尺肉이 弱한 患者는 解體으로 늙기 좋아한다.”<sup>229)</sup>라고 하였으므로, ‘尺脈緩澁’을 ‘尺緩脈澁’으로 고쳐서 尺膚가 늘어지고 脈이 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諸脈證 十五

### 第 15 節 諸脈의 病證

#### 【原文】

脈要精微論에 曰 夫脈者는 血之府<sup>(1)</sup>也니 長則氣治요 短則氣病이요 數則煩心이요 大則病進이요 上盛則氣高<sup>1X2)</sup>요 下盛則氣脹<sup>(3)</sup>이요 代則氣衰<sup>(2)</sup>요 細則氣少

227) 張介賓. 張氏景岳全書. 廣益書局. 上海. 1933. 若竟講下竟下少腹膝足中事也, 當在尺中, 今診在寸口, 則知診脈不可執一.

228)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上).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p. 250.

229)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72. 尺肉弱者, 解體安臥.

요 澁則心痛이요 渾渾革至如涌泉<sup>(4)</sup>하며 病進而色弊<sup>(5)</sup>하며 綿綿其去如弦絕<sup>(6)</sup>者는 死리 ○ 粗大者<sup>(7)</sup>는 陰不足하고 陽有餘하니 爲熱中也라 ○ 來疾去徐<sup>(8)</sup>하고 上實下虛<sup>(9)</sup>면 爲厥巔疾이요 來徐去疾하고 上虛下實하면 爲惡風也라 故로 中惡風<sup>(10)</sup>者는 陽受氣<sup>(3)</sup>也라 ○ 有脈俱沈細數者는 少陰厥<sup>(11)</sup>也요 沈細數散者는 寒熱也요 浮而散者는 爲胸仆<sup>(12)</sup>라 ○ 諸浮不躁<sup>(13)</sup>者는 皆在陽이니 則爲熱이요 其有躁者는 在手리 諸細而沈者는 皆在陰이니 則爲骨痛<sup>4X14)</sup>이요 其有靜<sup>(15)</sup>者는 在足이리 ○ 數動一代者는 病在陽之脈也이니 泄及便膿血이리 ○ 澁者는 陽氣有餘也요 滑者는 陰氣有餘也니 陽氣有餘면 爲身熱無汗이요 陰氣有餘면 爲多汗身寒이요 陰陽有餘면 則無汗而寒이리 ○ 按之至骨하야 脈氣少者는 腰脊痛而身有痺也라하니라

陰陽別論에 曰 陰陽虛하고 腸辟<sup>(16)</sup>하면 死요 陽加於陰<sup>(17)</sup>을 謂之汗이요 陰虛陽搏<sup>5X18)</sup>을 謂之崩이리하니라

#### 【校勘】

1) 上盛則氣高; 『素問脈要精微論』의 新校正에 ‘全元起本에는 高가 鬲으로 되어있다.’<sup>230)</sup>라고 하였다.

2) 衰; 『毘陵章氏』에는 ‘寒’으로 되어있다.

3) 陽受氣; 『九思堂』, 『金匱』에는 ‘陽氣受’로 되어있다.

4) 痛; 『毘陵章氏』에는 없다.

5) 搏; 『廣益』에는 ‘滑’로 되어있다.

#### 【註釋】

(1) 夫脈者 血之府(부맥자 혈지부); 府란 모인다는 뜻이다. ‘血’字는 실제로는 ‘氣’를 겸하여 말한 것이다. 그래서 이 아래에 “長則氣治 短則氣病”이라 하였다. 『靈樞逆順』篇에도 “脈의 盛衰는 血氣의 虛와 實, 有餘와 不足을 살필 수 있는 것이다.”<sup>231)</sup>라고

230)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39. 新校正云 按全元起本, 高作鬲.

하였으니, 그 뜻을 알 수 있다.<sup>232)</sup>

(2) 上盛則氣高(상성즉기고); 寸이 上이다. 上이 盛하다는 것은 邪氣가 上部에서 막은 것이다. 氣가 높다는 것은 喘滿을 말한다.<sup>233)</sup>

(3) 下盛則氣脹(하성즉기창); 關尺이 下이다. 下가 盛하다는 것은 邪氣가 下部에서 滯한 것이므로 腹部가 脹滿하게 된다.<sup>234)</sup>

(4) 渾渾革至如涌泉 (혼혼혁지여용천); 渾渾(혼 혼)은 濁하고 어지러워서 맥의 흐름이 分明하지 않은 것이다. 革至는 皮革과 같이 딱딱한 것이다. 湧泉이란 脈氣가 올 때 팔팔 솟구쳐서 順序가 없고, 단지 나오기만 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다.<sup>235)</sup> 脈氣가 올 때 샘물이 빠르게 위로 치솟듯이 나오기만 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니, 邪氣가 亢盛하고 병이 嚴重해지는 것을 主宰한다.<sup>236)</sup>

(5) 病進而色弊(병진이색폐); 病이 날로 進行하여 顏色이 점차 憔悴해지는 것이다.<sup>237)</sup> \* 弊; 壞也, 敗也, 해질 폐.

(6) 綿綿其去如弦絕(면면기거여현절); 옷을 쏟듯이 脈이 가늘게 이어져서 弓弦이 끊어질 때와 같은 것이다.<sup>238)</sup>

(7) 粗大者(추대자); 粗大한 脈은 浮, 洪脈의 種類이다.<sup>239)</sup>

(8) 來疾去徐(내질거서); 來란 骨肉의 部分에서 皮膚의 가장자리까지 나오는 것이니 氣가 上升하는 것이고, 去란 皮膚의 가장자리에서 骨肉의 部分으로 돌아가는 것이니 氣가 下降하는 것이다.<sup>240)</sup> 來疾은 脈搏 오는 것이 急한 것이고, 去徐는 脈搏 가는 것이 느리다는 것이다.<sup>241)</sup>

(9) 上實下虛(상실하허); 上이란 尺部로부터 寸口까지 올라오는 것이니 陽이 陰에서 生하는 것이고, 下란 寸口에서 尺部로 내려가는 것이니 陰이 陽에서 生하는 것이다.<sup>242)</sup> 上實은 寸이 盛한 것이고, 下虛는 尺이 弱한 것이다.<sup>243)</sup>

(10) 中惡風(중악풍); 惡風에 感觸되는 것이다. 惡風은 지독하고 세찬 風邪이다.<sup>244)</sup> \* 中; 中風, 中暑, 中寒, 着其中, 먹을 중.

(11) 少陰厥(소음궤); 少陰經의 陽氣가 厥逆하는 것이다.<sup>245)</sup> 厥이란 氣가 上逆하여 陰陽이 失調되어 가벼우면 四肢가 寒冷해지고 重하면 人事不省이 되는 것이다.<sup>246)</sup>

(12) 胸仆(현부); 현기증으로 인해 쓰러지는 증상이다. 胸은 眩運이다.<sup>247)</sup> \* 胸; 胸病, 현기증 현. \* 仆; 頓也, 엎드러질 부.

23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57. 脈之盛衰者, 所以候血氣之虛實有餘不足.

23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府, 聚也, 府庫之謂也. ……然此血字, 實兼氣爲言, 非獨指在血也. 故下文曰 長則氣治, 短則氣病. 又如逆順篇曰 脈之盛衰者, 所以候血氣之虛實有餘不足也, 義可知矣.

23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寸爲上. 上盛者, 邪壅於上也. 氣高者, 喘滿之謂.

23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關尺爲下. 下盛者, 邪滯於下, 故腹爲脹滿.

23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渾渾, 濁亂不明也. 革至, 如皮革之堅革更也. 湧泉, 其來汨汨無序, 但出不返也. \* 渾渾(혼혼); 혼탁한 모양. \* 革更; 단단할 경. \* 汨汨(골골); 물결치는 소리의 형용.

236)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88. 總的意思是, 脈來如泉水急促上涌, 往而不返, 主邪氣亢盛, 疾病趨向嚴重.

23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若得此脈, 而病加日進, 色加憔悴.

23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甚至繇繇如寫漆, 及如弓弦之斷絕者, 皆眞氣已竭, 故死. \* 繇繇(면면); 끊임없이 계속되는 모양. 죽 연이어 끊이지 않는 모양.

23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6. 龐大者, 浮洪之類.

24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來者, 自骨肉之分而出於皮膚之際, 氣之升也. 去者, 自皮膚之際而還於骨肉之分, 氣之降也. 應曰至, 息曰止也.

24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來疾者, 其來急也. 去徐者, 其去緩也.

24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上者, 自尺部上於寸口, 陽生於陰也. 下者, 自寸口下於尺部, 陰生於陽也.

24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上實者, 寸盛也. 下虛者, 尺弱也.

244) 惡厲之風邪也.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前揭書, p. 142.

24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沈細者, 腎之脈體也, 兼數則熱, 陰中有火也, 故爲少陰之陽厥.

246)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出版. 高文社. 影印. 서울. 1970.

24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7. 胸, 雄絹切, 眩運也.

(13) 躁(조) ; 脈의 形勢가 躁動하고 빨라서 高요하지 못한 것이다.<sup>248)</sup>

(14) 骨痛(골통) ; 骨節疼痛.<sup>249)</sup>

(15) 靜(정) ; 脈의 形勢가 沈靜한 것이다.<sup>250)</sup>

(16) 腸辟(장벽) ; 膿血便을 보는 것이다.<sup>251)</sup>

(17) 陽加於陰(양가어음) ; 陽은 脈體를, 陰은 脈位를 말한다.<sup>252)</sup> 動數한 陽脈이 尺部에 나타나는 것이다.<sup>253)</sup>

(18) 陰虛陽搏(음허양박) ; 陰虛란 沈取해도 不足한 것이고, 陽搏이란 浮取해도 有餘한 것이다.<sup>254)</sup> 崩은 갑자기 多量으로 下血하는 것이다.

【國譯】

「脈要精微論」에 “脈이란 氣血의 府이다. 脈이 長하면 氣가 和平한 것이고, 短하면 氣가 病든 것이고, 數하면 煩心하는 것이고, 大하면 病이 進行하는 것이다. 上이 盛하면 喘滿하게 되고 下가 盛하면 腹部가 脹滿하게 된다. 脈이 代하면 氣가 衰한 것이고, 細하면 氣가 少한 것이며, 澁하면 心痛이 있는 것이다. 脈이 渾渾하여 分明하지 않고 皮革과 같이 딱딱한 것이 치받는 듯 하며 病이 進行하여 顏色이 憔悴해지고, 가늘고 길게 이어져 弓弦이 끊어질 때와 같은 사람은 죽는다. 脈이 粗大하면 陰이 不足하고 陽이 有餘하므로 熱中이다. 脈氣가 올 때는 빠르고 갈 때는 느리거나 上이 實하고 下가 虛하면 厥逆하여 巔疾이 된다. 脈氣가 올 때는 느리고 갈 때는 빠르거나 上이 虛하고 下가 實하면 惡風(오풍)하게 된다. 그러

므로 惡風(악풍)의 侵犯을 받은 사람은 陽氣가 風의 邪氣를 받는다. 脈이 모두 沈, 細, 數한 것은 少陰의 厥逆이고, 沈, 細, 數, 散한 것은 寒熱이며, 浮하면서 散한 것은 胸忤이다. 浮하나 躁動하지 않는 것은 모두 病이 陽에 있으니 熱이고, 그 가운데 躁動하는 것은 病이 手三陽經에 있다. 細하면서 沈한 것은 모두 病이 陰에 있으니 骨節痛이 되고, 그 가운데 靜한 것은 病이 足三陰經에 있다. 맥이 빠르게 뛰다가 한 번씩 멈추는 것은 病이 陽의 脈에 있는 것으로 漉泄이나 膿血便이 된다. 脈이 澁한 것은 陽氣가 有餘한 것이고 滑한 것은 陰氣가 有餘한 것이니, 陽氣가 有餘하면 身熱, 無汗하고 陰氣가 有餘하면 多汗, 身寒하며 陰陽이 有餘하면 無汗하면서 身寒한다. 눌러서 뼈에 이르도록 脈氣가 少한 것은 腰脊痛하면서 身體에 痺證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陰陽別論」에 “陰陽脈이 虛하고 膿血便을 보면 죽는다. 動數한 陽脈이 尺部에 나타나면 汗이라 한다. 陰이 虛하고 陽이 치받으면 崩證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考察】

1. ‘陽加於陰謂之汗’에 대하여, 張介賓은 陰의 脈位에 陽의 脈體가 많이 나타나면 땀이 많다고 하여 脈으로 설명하였으나, 白話解엔 “陽이 陰보다 旺盛하면 陽氣가 陰津을 逼迫하여 밖으로 새어나가게 하므로 땀이 난다.”<sup>255)</sup>고 하여 病理로 설명하였다. 尺部에 大浮滑數動의 陽脈이 나타나면 汗이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陰虛陽搏謂之崩’에 대하여, 張介賓은 陰虛는 沈取해도 不足한 것, 陽搏은 浮取해도 有餘한 것이라 하여 陰, 陽을 沈取, 浮取로 보았으나, 馬蒔는 陰, 陽을 尺, 寸으로 보았고, <sup>256)</sup> 白話解엔 “陽搏은 陽이 旺

248) 王琦 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90. 躁, 指脈勢躁疾而不平靜.

249) 王琦 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92.

250) 王琦 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90. 靜, 指脈勢沈靜.

25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9. 腸辟, 利膿血也.

25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9. 陽言脈體, 陰言脈位. 汗液屬陰而陽加於陰, 陰氣泄矣, 故陰脈多陽者多汗.

253)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p. 40. 若動數之陽脈加于尺部, 是謂之汗.

25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9. 陰虛者, 沈取不足. 陽搏者, 浮取有餘.

255)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51. 陽盛于陰, 則陽氣迫使陰津外泄, 故汗出.

256)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9. p. 73. 陰虛陽搏者, 亦指尺寸而言也. 尺脈既虛, 陰血已損, 寸脈搏擊, 虛火愈熾, 謂之曰崩, 蓋火逼而血妄行也.

盛한 것이다. 陰이 虛하여 陽이 旺盛하면 血을 逼迫하여 妄行하게 하므로 血崩症이 된다.”<sup>257)</sup>고 하여 病理로 설명하였다. 浮取하면 힘이 있으나 沈取하면 힘이 없으면 崩症이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病治易難 十六

第 16 節 病의 易治, 難治

【原文】

平人氣象論에 曰 風熱而脈靜<sup>(1)</sup>하고 泄而脫<sup>(2)</sup>血<sup>(3)</sup>에 脈實하고 病在中에 脈虛하고 病在外에 脈澁堅者는 皆難治니 命曰 反四時也라하니라

玉機眞藏論에 曰 凡治病에 察其形氣色澤<sup>(3)</sup>과 脈之盛衰와 病之新故<sup>(4)</sup>하야 乃治之호대 無後其時라 形氣相得<sup>(5)</sup>을 謂之可治요 色澤以浮를 謂之易已요 脈從四時를 謂之可治요 脈弱以滑이 是有胃氣니 命曰易治라 形氣相失<sup>(6)</sup>을 謂之難治요 色夭<sup>(2)</sup>不澤<sup>(7)</sup>을 謂之難已요 脈實以堅을 謂之益甚이요 脈逆四時<sup>(8)</sup>면 爲不可治니 必察四難<sup>(9)</sup>하야 而明告之라 ○ 病熱脈靜하고 泄而脈大하고 脫血而脈實하고 病在中에 脈實堅하고 病在外에 脈不實堅者는 皆難治라하니라

按此二篇之義컨대 如前篇에 言 病在中脈虛者爲 難治라하고 後篇에 言 病在中脈實堅<sup>(3)</sup>者爲 難治라하며 前엔 言 病在外脈澁堅<sup>(4)</sup>者爲 難治라하고 後에 言 病在外脈不實堅者爲 難治라하니 前後가 若乎相反하니 何也오 蓋實邪在中者는 脈不宜虛요 虛邪在中者는 脈不宜實也라 陽邪在表者는 宜滑而軟하고 不宜澁而堅이오 外邪方盛者는 宜實而大하고 不宜虛而小也라 此中에 各有精義하니 或者<sup>(10)</sup>以其爲誤는 是不達耳라

【校勘】

1) 脫; 『廣益』, 『毘陵章氏』에는 ‘月先’으로 되어있다.

257)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51. 陽盛于陰, 則陽氣迫使陰津外泄, 故汗出.

- 2) 夭; 『廣益』에는 ‘失’로 되어있다.
- 3) 實堅; 『毘陵章氏』에는 ‘堅實’로 되어있다.
- 4) 脈澁堅; 『廣益』에는 ‘澁堅脈’으로 되어있다.

【註釋】

(1) 脈靜(맥정); 脈이 浮大하여야 하나, 도리어 沈靜한 것이다.<sup>258)</sup>

(2) 脫血(탈혈); 失血. 出血이 많은 것을 脫血이라 하며, 漏下·鼻衄·嘔吐·出血이 모두 같다.<sup>259)</sup>

(3) 形氣色澤(형기색택); 形은 形體, 氣는 臟腑組織의 機能, 色은 顏色, 澤은 潤氣가 있는 것을 말한다.

(4) 故; 舊也, 예 고.

(5) 形氣相得(형기상득); 形體가 豐盛한데 氣가 旺盛하거나 形體가 虛한데 氣가 虛한 것이 서로 부합하는 것이다.<sup>260)</sup>

(6) 形氣相失(형기상실); 形體가 豐盛한데 氣가 虛하거나 氣가 旺盛한데 形體가 虛한 것은 모두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sup>261)</sup>

(7) 色夭不澤(색요불택); 夭란 어둡고 나쁜 것이다.<sup>262)</sup> 潤澤하지 않은 것은 마르고 까칠한 것이다.<sup>263)</sup>

(8) 脈逆四時(맥역사시); 第 6 節 四時脈의 體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봄에 肺脈이 나타나고 여름에 腎脈이 나타나며 가을에 心脈이 나타나고 겨울에 脾脈이 나타나는 것, 脈氣가 이르되 모두 懸絶하거나 沈澁하는 것, 비록 眞藏脈이 아직 나타나지 않더라도 봄, 여름에 脈이 沈澁하거나 가을, 겨울에 脈이 浮大한 것이 脈이 四時에 逆하는 것이다.

258)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105. 病由于風熱, 脈宜浮大, 今反沈靜, 是陽病而見陰脈.

259)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84. 出血多者, 謂之脫血, 漏下鼻衄嘔吐出血皆同焉.

26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4. 形盛氣盛, 形虛氣虛, 是相得也.

26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4. 形盛氣虛, 氣盛形虛, 皆爲相失.

262)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149. 暗惡之色, 晦暗無光.

26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4. 夭, 晦惡也. 不澤, 枯焦也.

(9) 四難(사난); 形, 氣, 色, 脈이 위의 네 句節의 難治症과 같은 것을 말한다.<sup>264)</sup>

(10) 或者(혹자); 여기서 或者란 이를테면 新校正의 林億 等을 말한다. 新校正은 두 篇의 내용이 相反됨을 學論하여 이는 內經의 誤謬이고 「平人氣象論」의 내용이 옳다고 하였다.<sup>265)</sup>

【國譯】

「平人氣象論」에 “風熱에 脈이 靜하거나 泄瀉脫血 후에 脈이 實하거나 病이 內部에 있는데 脈이 虛하거나 病이 外部에 있는데 脈이 澁堅하면 모두 難治이니, 四時에 相反된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玉機眞藏論」에 “病을 治療할 때에는 그 形氣色澤과 脈의 盛衰와 病의 新故를 살핀 후에 治療하여야 하며 治療時期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 形體와 氣가 相得한 것을 治療할 수 있다고 한다. 顏色이 潤澤하면서 밝은 것을 쉽게 낫는다고 한다. 脈이 四時에 따르는 것을 治療할 수 있다고 한다. 脈이 弱하면서 滑한 것이 胃氣가 있는 것이므로 쉽게 治療할 수 있다고 한다. 形體와 氣가 相失한 것을 治療하기 어렵다고 한다. 顏色이 어둡고 潤澤하지 않은 것을 낫기 어렵다고 한다. 脈이 實하면서 堅한 것을 病이 더욱 甚해진다고 한다. 脈이 四時에 逆하면 治療할 수 없으니 반드시 네 가지 難治證을 살피서 환자에게 꼭 바로 알려야 한다. 病으로 熱이 나는데 脈이 靜하거나, 泄瀉가 나는데 脈이 大하거나, 脫血하는데 脈이 實하거나, 病이 內部에 있는데 脈이 實堅하거나, 病이 外部에 있는데 脈이 實堅하지 않은 것은 모두 治療하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이 두 篇의 뜻을 詳考하건대, 예를 들어 前篇에서는 ‘病이 內部에 있는데 脈이 虛하면 難治’라고 하고 後篇에서는 ‘病이 內部에 있는데 脈이 實堅하면 難治’라고 하며, 또 前篇에서는 ‘病이 外部에 있는데 脈이 澁堅하면 難治’라고 하고 後篇에서는 ‘病이 外部에

있는데 脈이 實堅하지 않으면 難治’라고 하여 앞뒤가 相反되는 듯하니, 어째서인가? 實邪가 內部에 있으면 脈이 虛해서는 안 되고, 虛邪가 內部에 있으면 脈이 實해서는 안 되며, 陽邪가 表部에 있으면 滑하면서 軟해야 하고 澁하거나 堅해서는 안 되고, 外邪가 이제 막 熾盛하려고 할 때는 脈이 實하면서 大해야 하고 虛하거나 小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각기 精微한 뜻이 있다. 或者가 이를 誤謬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考察】

1. 病이 內部에 있든 外部에 있든 病이 實하면 脈도 實해야 하고 病이 虛하면 脈도 虛해야 한다. 症과 脈이 서로 符合하면 易治이고 症과 脈이 서로 相反되면 難治이다.

眞臟脈 十七

第 17 節 眞臟(1)脈

【原文】

陰陽別論에 曰 脈有陰陽하니 知陽者는 知陰하고 知陰者는 知陽이라 凡陽有五하니 五五二十五陽<sup>(2)</sup>이라 所謂 陰者는 眞藏也니 見<sup>(3)</sup>則爲敗<sup>(4)</sup>하고 敗必死也요 所謂 陽者는 胃脘之陽也라 別於陽<sup>(5)</sup>者는 知病處也요 別於陰<sup>(6)</sup>者는 知死生之期라하니라

玉機眞藏論에 曰 眞肝脈至에 中外堅하야 如循刀刃責責然<sup>(7)</sup>커나 如按琴瑟<sup>(8)</sup>弦하고 色青白不澤<sup>(9)</sup>하며 毛折<sup>(10)</sup>하면 乃死라 ○眞心脈至에 堅而搏하야 如循薏苡子累累然<sup>(11)</sup>하고 色赤黑不澤하며 毛折하면 乃死라 ○眞肺脈至에 大而虛하야 如以毛羽中人膚하고 色白赤<sup>1)</sup>不澤하며 毛折하면 乃死라 ○眞腎脈至에 搏而絶하야 如指彈石辟辟然<sup>(12)</sup>하고 色黑黃不澤하며 毛折하면 乃死라 ○眞脾脈至에 弱而乍數乍疏하고 色黃青不澤하고 毛折하면 乃死니 諸眞臟脈見者는 皆死不治也라 ○黃帝問曰 見眞臟者死는 何也오 岐伯이 曰 五臟者는 皆稟氣於胃하니 胃者는 五臟之本也라 藏氣者는

26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14. 形氣色脈, 如上四節之難治者, 謂之四難.

265)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50. 新校正云 按平人氣象論云 病在中脈虛 病在外脈澁堅與此相反. 此經誤, 彼論爲得.

不能自致於手太陰하고 必因於胃氣라야 乃至於手太陰也라 故로 邪氣勝者는 精氣衰也요 病甚者는 胃氣不能與之俱至於手太陰이라 故로 眞臟之氣獨見하니 獨見者는 病勝臟也 故로 曰死라하니라

○ 按컨대 此에 胃氣는 卽人之陽氣니 陽氣衰則胃氣弱하고 陽氣敗則胃氣絶矣니 此卽死生之大本也라 所謂凡陽有五者는 卽五臟之陽也니 凡五臟之氣는 必互相灌濡故로 五臟之中에 必各兼五氣하니 此所謂<sup>267)</sup>二十五陽也라 是可見無往而非陽氣요 亦無往而非胃氣니 無胃氣면 卽眞臟獨見也니 故로 曰死라

【校勘】

- 1) 色白赤; 『上海』, 『育文』에는 ‘朮’로 되어있다.
- 2) 此所謂; 『毘陵章氏』에는 ‘所此謂’로 되어있다.

【註釋】

(1) 眞藏(진장); 胃氣는 없고<sup>266)</sup> 五臟의 氣만 나타나는 脈을 말한다. 五臟의 氣는 胃氣와 섞여야 長生할 수 있고, 만약 ‘眞’이 홀로 나타나면 반드시 죽는다. 五藏眞이 나타나면 죽고 胃氣와 섞이면 사는 것을 알고자 하면, 寸口를 診脈하면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弦은 肝脈이고, 微弦은 平和한 맥인데, 微弦은 三分之二의 胃氣와 三分之一의 弦氣가 함께 搏動하여야 微弦이다. 三分之三 모두 弦이고 胃氣가 없으면 眞藏이 드러난 것이다. 나머지 四藏도 이와 같다.<sup>267)</sup>

(2) 五五二十五陽(오오이십오양); 陽이란 ‘胃脘의 陽’이니, 곧 胃氣이다. ‘五’란 곧 五臟의 脈이니, 肝藏의 弦脈, 心藏의 鈎脈, 脾藏의 奕脈, 肺藏의 毛脈, 腎

藏의 石脈이다. 한 藏이 五脈을 兼하기 때문에 五藏이 서로 나타나면 五×五=二十五脈이다. 그러나 五藏의 脈은 모두 胃氣가 없을 수 없으므로 ‘무릇 陽이 다섯이 있다’고 하고, 二十五脈도 胃氣가 없을 수 없으므로 또한 ‘五五 二十五陽’이라고도 한다.<sup>268)</sup>

- (3) 見(현); 露也, 나타날 현, 드러날 현.
- (4) 敗(패); 潰也, 壞也, 무너질 패.
- (5) 別於陽(별어양); 陽脈을 辨別하는 것이니, 五臟脈 가운데 어느 臟의 脈에서 沖和한 胃氣(陽氣)가 異常한지 辨別하는 것이다.<sup>269)</sup>
- (6) 別於陰(별어음); 陰脈을 辨別하는 것이니, 五臟脈 가운데 어느 臟의 脈이 眞藏脈이 나타나는지 辨別하는 것이다.<sup>270)</sup>
- (7) 責責然(책책연); 肝의 眞藏脈象을 표현한 것으로 칼날을 어루만지거나 거문고 줄을 누르는 것처럼 細急堅搏한 脈象이다.<sup>271)</sup>

- (8) 琴瑟(금슬); 거문고와 비파.
- (9) 色靑白不澤(색청백불택); 靑色은 본래 木의 色인데, 白色을 兼하면서 潤澤하지 않은 것은 金이 木을 克하는 것이다.<sup>272)</sup>
- (10) 毛折(모절); 皮毛는 血氣를 얻어서 채워지는데 毛髮이 부러지면 精氣가 무너진 것이다.<sup>273)</sup>
- (11) 累累然(누누연); 心의 眞藏脈象이 短하면서

26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6. 陽者, 如下文所謂胃脘之陽, 卽胃氣也. 五者, 卽五藏之脈, 如肝弦, 心鈎, 脾奕, 肺毛, 腎石也. 以一藏而兼五脈, 則五藏互見, 是爲五五二十五脈也. 然五藏之脈, 皆不可以無胃氣, 故曰凡陽有五, 而二十五脈, 亦皆不可無胃氣, 故又曰五五二十五陽也.

269)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46. 從五臟脈中觀察, 在那一臟的脈中, 如果沖和的胃氣(陽氣)失常了, 就可以知道那一臟有病.

270)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p. 46. 從五臟脈中觀察, 在那一臟的脈中, 出現了眞藏脈, 就可以豫決死期.

271)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106. 形容肝之眞藏脈象, 是細急堅搏如循刀刃, 如按琴弦.

27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8. 靑, 本木色, 而兼白不澤者, 金克木也.

27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8. 皮毛得血氣而充, 毛折則精氣敗矣.

26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8. 無胃氣者卽名眞藏.

267) 王永,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50. 新校正云 按楊上善云 無餘物和雜故名眞也. 五藏之氣, 皆胃氣和之, 不得獨用, 如至剛不得獨用, 獨用則折, 和柔用之, 卽固也. 五藏之氣, 和於胃氣, 卽得長生. 若眞獨見, 必死. 欲知五藏眞見爲死, 和胃爲生者, 於寸口診卽可知見者. 如弦是肝脈也, 微弦爲平和, 微弦謂二分胃氣一分弦氣俱動爲微弦. 三分并是弦而無胃氣, 爲見眞藏. 餘四藏準此.

堅實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울무씨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다.<sup>274)</sup>

(12) 辟辟然(벽벽연) ; 腎의 眞藏脈象이 沈하면서 堅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손가락으로 돌을 튀길 때의 느낌과 같다.<sup>275)</sup>

【國譯】

「陰陽別論」에 “脈에 陰陽이 있으니, 陽을 알면 陰을 알고, 陰을 알면 陽을 안다. 무릇 陽에 다섯이 있으니, 5×5= 25陽이다. 所謂 陰이란 眞藏이니, 眞藏이 나타나면 무너진 것이니 무너지면 반드시 죽는다. 所謂 陽이란 胃脘의 陽이다. 陽脈을 구별할 수 있으면 病이 있는 곳을 알 수 있고, 陰脈을 구별할 수 있으면 死生の 時期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玉機眞藏論」에 “肝의 眞藏脈이 이르면 안팎이 堅하여 칼날을 만지듯이 絃을 문지르듯이 細急堅搏하고 顏色이 青色에 白色을 兼하면서 潤澤하지 않으며 毛髮이 끊어지면 죽는다. 心의 眞藏脈이 이르면 堅하면서 搏하여 울무 씨를 만지듯이 短實堅強하고 顏色이 赤色에 黑色을 兼하면서 潤澤하지 않으며 毛髮이 끊어지면 죽는다. 肺의 眞藏脈이 이르면 大하면서 虛하여 깃털로 피부에 대는 것처럼 느껴지고 顏色이 白色에 赤色을 兼하면서 潤澤하지 않으며 毛髮이 끊어지면 죽는다. 腎의 眞藏脈이 이르면 搏하면서 絶하여 손가락으로 돌을 튀기듯이 沈하면서 堅하고 顏色이 黑色에 黃色을 兼하면서 潤澤하지 않으며 毛髮이 끊어지면 죽는다. 脾의 眞藏脈이 이르면 弱하면서 濡했다 느렸다 하고 顏色이 黃色에 青色을 兼하면서 潤澤하지 않으며 毛髮이 끊어지면 죽는다. 眞藏脈은 나타나면 모두 죽고 治療하지 못한다. 黃帝가 眞藏이 나타나면 죽는 것은 어찌서인지 물으니, 岐伯이 말하기를 五臟은 모두 胃에서 氣를 받으므로 胃는 五臟의 根本이다. 藏氣는 스스로 手太陰에 이를 수 없고 반드시 胃氣에 의지해야 手太陰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邪氣가 勝한 것은 精氣가 衰한 것이고, 病이甚한 것은 胃氣가 藏氣와 더불어 手太陰에 함께 이르지

못하므로 眞藏의 氣가 홀로 나타나고, 홀로 나타나면 病이 五臟을 勝하므로 죽는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詳考하건대, 이상의 胃氣는 곧 사람의 陽氣이다. 陽氣가 衰하면 胃氣가 弱하고, 陽氣가 무너지면 胃氣가 끊어지므로, 이는 곧 死生の 큰 根本이다. 所謂 ‘陽이 다섯이 있다’는 것은 곧 五臟의 陽이다. 五臟의 氣는 반드시 서로 灌溉하여 적시므로 五臟 가운데 반드시 각기 五氣를 兼하므로 이를 일러 二十五陽이라 한다. 이로써 가는 곳마다 陽氣 아닌 것이 없고, 역시 가는 곳마다 胃氣 아닌 것이 없다. 胃氣가 없으면 곧 眞藏만 나타나므로 죽는다고 한다.

【考察】

1. 水穀이 胃에 들어오면 그 氣가 肺에 전해지는데, 五臟六府는 모두 이로써 氣를 받으므로 藏氣는 반드시 胃氣에 의지해야만 手太陰에 이를 수 있고, 脈이 氣口에 나타난다. 이것이 五臟의 脈이 반드시 胃氣에 의지하고 胃氣를 주로 하는 까닭이다.<sup>276)</sup>

그러므로 按에 胃氣는 곧 사람의 陽氣이니, 陽氣가 衰하면 胃氣가 弱하고 陽氣가 무너지면 胃氣가 끊어지며, 이는 곧 死生の 큰 根本이라고 하였다.

이 胃氣를 달리 二十五陽이라고도 하니, 五臟이 각기 五脈을 兼하여 二十五脈이고 二十五脈에 각기 胃氣가 없을 수 없으므로 또한 ‘二十五陽’이라고 한다.

2. 葉桂가 胃氣가 陽氣라고 한 按語에 대하여 評하기를, “一陽氣를 創案해냈다. 脈은 氣血에 앞서는 것이고, 胃는 水穀이 모이는 곳이므로 水穀의 精氣가 變化하여 脈이 되므로 사람이 水穀을 끊으면 죽는다. 胃氣가 있다는 것은 脈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면서 이름으로 形狀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찌 一陽氣를 가지고 말할 수 있겠는가? 脈의 一字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脈이란 血脈이니 어찌 陽氣로 남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겠는가?”라고 하여 비판하였

274)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106. 形容心之眞藏脈象短而堅實, 如按循薏苡仁一樣.

275)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106. 形容腎之眞藏脈象沈而堅, 如以指彈石的感覺.

276)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8. 穀入於胃, 以傳於肺, 五臟六府皆以受氣, 故藏氣必因於胃氣, 乃得至於手太陰, 而脈則見於氣口. 此所以五臟之脈, 必賴胃氣, 以爲之主也.

다.<sup>277</sup> 그러나 脈에는 陰과 陽이 모두 있고, 陰의 바탕 위에서 陽氣가 生動하는 것이므로, 胃氣를 陽氣에 連繫시킨 張介賓의 주장이 그르다고 할 수 없다.

關格 十八

第 18 節 關格

【原文】

六節藏象<sup>1)</sup>論에 曰 人迎一盛하면 病在少陽이요 二盛하면 病在太陽이요 三盛하면 病在陽明이요 四盛已上이면 爲格陽<sup>(1)</sup>이라 ○ 寸口一盛하면 病在厥陰이요 二<sup>2)</sup>盛하면 病在少陰이요 三盛하면 病在太陰이요 四盛已上이면 爲關陰<sup>(2)</sup>이라 ○ 人迎與寸口가 俱盛四倍已上은 爲關格<sup>(3)</sup>이니 關格之脈은 羸<sup>3)(4)</sup>하야 不能極於天地之精氣則死矣라하니라 ○ 本篇脈證이 具載關格門이니 當詳察之라

【校勘】

- 1) 象; 『人民』에는 ‘家’로 되어있다.
- 2) 二; 『藜照樓』, 『毘陵章氏』에는 ‘一’로 되어있다.
- 3) 羸; 『素問六節藏象論』에는 ‘羸’으로 되어있다. 그 注에 “新校正云, 詳羸, 當作盈. 脈盛四倍以上, 非羸也, 乃盛極也. 古文羸與盈通用.”<sup>278)</sup>라고 하였다.

【註釋】

(1) 格陽(각양); 人迎이 四盛 以上이면 陽脈의 旺盛함이 極하여 陰이 通할 수 없으므로 ‘格陽’이라 한다.<sup>279)</sup> \* 格; 阻隔, 막힐 각

277) 張介賓. 張氏景岳全書. 廣益書局. 上海. 1933. 創出一陽氣, 脈爲氣血之先, 胃爲水穀之海, 水穀之精氣, 變化爲脈, 故人絕水穀則死. 有胃氣者, 不疾不徐, 難以名狀也, 豈可將一陽氣爲言. 不知脈之一字從何處來, 脈者, 血脈也, 何得以陽氣亂惑人心.

278)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29.

27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8. 四盛已上者, 以陽脈盛極而陰無以通, 故曰格陽.

(2) 關陰(관음); 寸口가 四倍 以上 盛하면 陰脈이 旺盛함이 極하여 陽이 陰과 어울릴 수 없으므로 ‘關陰’이라 한다.<sup>280)</sup> \* 關; 閉塞也, 막힐 관

(3) 關格(관각); 陰氣가 지나치게 盛하면 陽氣가 經榮할 수 없으므로 ‘關’이라 한다. 陽氣가 지나치게 盛하면 陰氣가 經榮할 수 없으므로 ‘格’이라 한다. 陰陽이 모두 盛하면 서로 經榮할 수 없으므로 ‘關格’이라 한다. 關格이면 그 壽命을 다 하지 못하고 죽는다.<sup>281)</sup>

(4) 羸(리); 弱也, 약할 이. 疲也, 지칠 이.

【國譯】

「六節藏象論」에 “人迎이 寸口보다 一倍 盛하면 病이 少陽에 있고, 二倍 盛하면 病이 太陽에 있으며, 三倍 盛하면 病이 陽明에 있고, 四倍 以上 盛하면 格陽이다. 寸口가 人迎보다 一倍 盛하면 病이 厥陰에 있고, 二倍 盛하면 病이 少陰에 있으며, 三倍 盛하면 病이 太陰에 있고, 四倍 以上 盛하면 關陰이다. 人迎과 寸口가 모두 평소보다 四倍 以上 盛하면 關格이다. 關格의 脈은 弱하니, 그 壽命을 다하지 못하고 夭折한다.”라고 하였다.

이 篇의 脈과 證은 關格門에 있다. 자세히 살펴야 한다.

【考察】

1. 關格에 대하여, 脈象, 病名, 病機로서의 意味가 混用되어 왔다. 王冰,<sup>282)</sup> 秦越人,<sup>283)</sup> 張仲景,<sup>284)</sup> 王

28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8. 四盛已上者, 以陰脈盛極而陽無以交, 故曰關陰.

28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經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30. 陰氣太盛則陽氣不能榮也, 故曰關, 陽氣太盛則陰氣不能榮也, 故曰格, 陰陽俱盛, 不得相榮, 故曰關格, 關格者, 不得盡期而死也.

282)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29. “人迎一盛病在少陽, 二盛病在太陽, 三盛病在陽明, 四盛已上爲格陽.”의 注에 “四盛已上, 陽盛之極, 故格拒而食不得入也.”라고 하였고, “寸口一盛病在厥陰, 二盛病在少陰, 三盛病在太陰, 四盛已上爲關陰.”의 注에 “四盛已上, 陰盛之極, 故關閉而澀不得通也.”라고 하였다.

283)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p. 8-9. 難經三難에 “關의 앞은 陽이 動하는 것이니…… 끝내 魚際에까지 미치는 것을 溢이라 하니 外關內格이며 이는 陰이 乘한 脈이다. 關의 뒤는 陰이 動하는 것이니…… 끝

叔和, 李東垣, 285) 朱丹溪<sup>286)</sup> 등은 關은 小便不通, 格은 吐逆이라 하여 病名의 하나로 인식하였으나, 馬蒔, 張介賓은 人迎 寸口脈이 모두 평소보다 四倍 以上 盛한 脈象으로 인식하였고, 程士德은 陰陽이 모두 盛하여 막힌 病機로서 해석하였다.

馬蒔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卷一』에 이르기를 “아아 슬프고 원통하다. 黃帝와 岐伯의 뜻이여! 秦越人, 張仲景, 王叔和, 李東垣, 朱丹溪는 後世의 醫師들이 좇아 崇尚하는 사람인데, 『內經』과는 이와 같이 아득히 멀구나! 하물며 後世의 下工들이 다시 關格이 脈體이고 病名이 아님을 알 수 있겠는가?”<sup>287)</sup> 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오직 近代에 馬玄臺가 여러 사람의 잘못을 알고 關格의 뜻은 隔食, 癰閉의 證이 아니라고 하였다.……이 馬선생의 말이 참으로 옳다.”<sup>288)</sup>라고 하여 關格에 대한 馬蒔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내 尺膚에 들어가는 것을 覆이라 하니 內關外格이며 이는 陽이 乘한 脈이다.(關之前者, 陽之動也.……遂上魚爲溢, 爲外關內格, 此陰乘之脈也. 關以後者, 陰之動也, ……遂入尺爲覆, 爲內關外格, 此陽乘之脈也.)”라고 하였다. 秦越人.  
284) 張機. 傷寒論(中華醫書集成. 第二冊).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9. p. 7. 傷寒論·平脈法에 “浮하면서 大한 脈이 尺에 있으면 關이고, 寸에 있으면 格이니, 關이면 小便을 보지 못하고, 格이면 吐逆한다.(寸口脈浮而大, ……在尺爲關, 在寸爲格, 關則不得小便, 格則吐逆.)”라고 하였다.  
285) 王好古. 此事難知(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96. p. 271. “氣口의 脈이 人迎보다 四倍 大하면 이는 淸氣가 도리어 濁道에 行하는 것이므로 格이라 하고, 人迎의 脈이 氣口보다 四倍 大하면 이는 濁氣가 도리어 淸道에 行하는 것이므로 關이라 한다.(故氣填塞而不入, 則氣口之脈, 大四倍於人迎, 此淸氣反行濁道也, 故曰格.……故血脈凝滯而不通, 則人迎之脈, 大四倍於氣口, 此濁氣反行淸道也, 故曰關.)”라고 하였다.  
286) 朱震亨. 丹溪治法心要(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3. p. 938. “이 證은 많이들 죽는데 寒이 上部에 있고 熱이 下部에 있다. 脈은 兩寸이 모두 四倍 以上 盛하다.(關則不得小便, 格則吐逆, 此證多死, 寒在上, 熱在下. ……脈兩寸俱盛, 四倍以上.)”라고 하였다.  
287)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9. p. 88. 嗚呼痛哉! 軒岐之旨乎! 秦張王李朱諸賢, 後世業醫者所宗尚, 與內經渺然如此! 況能使後世下工, 復知關格爲脈體而非病名也哉?  
28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29. 獨近代馬玄臺, 知諸子之非, 而謂關格之義, 非隔食癰閉之證. ……此馬子之言誠是矣.

한편 程士德은 “關陰, 格陽은 모두 病機를 말하므로, 關格은 陰陽이 모두 旺盛함이 極하여 生化가 장차 멈추려는 證候이다.”<sup>289)</sup> 라고 하여 病機로 인식하였다.

2. 人迎, 寸口의 一盛, 二盛, 三盛, 四盛 以上에 대하여는 『靈樞』의 「終始」<sup>290)</sup>, 「禁服」<sup>291)</sup>, 「經脈」<sup>292)</sup>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篇들을 要約하면, 人迎이 寸口보다 盛하면 陽經에, 寸口가 人迎보다 盛하면 陰經에 病이 있고, 一倍 盛하면 少陽이나 厥陰에, 二倍 盛하면 太陽이나 少陰에, 三倍 盛하면 陽明이나 太陰에 病이 있으며, 躁動하지 않으면 足經에, 躁動하면 手經에 病이 있고, 四倍 以上 盛하면서 大하고 數하면 溢하여 格이나 關이 된다는 것이다.

3. 張介賓은 「關格門」에 關格의 脈症을 “寸口脈은 弦한 듯, 革한 듯하면서 洪大함이 正常과 다르고, 症狀은 脈이 될 때 몸도 같이 움직이고 虛里脈과 臍傍의 動氣가 脈과 같이 방아 찼듯이 흔들흔들하며,

289) 程士德. 內經.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 p. 96. 按據上文義, 關陰格陽均指病機而言, 關格當指陰陽俱盛極而生化將息之候.  
290) 楊維傑. 黃帝內經靈樞經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15. 人迎一盛, 病在足少陽, 一盛而躁, 病在手少陽. 人迎二盛, 病在足太陽, 二盛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盛, 病在足陽明, 三盛而躁, 病在手陽明. 人迎四盛,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脈口一盛, 病在足厥陰, 厥陰一盛而躁, 在手心主. 脈口二盛, 病在足少陰, 二盛而躁, 在手少陰. 脈口三盛, 病在足太陰, 三盛而躁, 在手太陰. 脈口四盛, 且大且數者, 名曰溢陰, 溢陰爲內關, 內關不通, 死不治. 人迎與太陰脈口俱盛四倍以上, 命曰關格, 關格者, 與之短期.  
29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經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53. 人迎大一倍於寸口, 病在足少陽, 一倍而躁, 在手少陽. 人迎二倍, 病在足太陽, 二倍而躁, 病在手太陽. 人迎三倍, 病在足陽明, 三倍而躁, 病在手陽明. ……人迎四倍者, 且大且數, 名曰溢陽, 溢陽爲外格, 死不治. ……寸口大於人迎一倍, 病在足厥陰, 一倍而躁, 在手心主. 寸口二倍, 病在足少陰, 二倍而躁, 在手少陰. 寸口三倍, 病在足太陰, 三倍而躁, 在手太陰. ……寸口四倍者, 名曰內關, 內關者, 且大且數, 死不治.  
292) 楊維傑. 黃帝內經靈樞經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p. 19-21. 肺手太陰之脈……盛者, 寸口大三倍於人迎, 虛者, 則寸口反小於人迎也. ……心手少陰之脈, ……盛者, 寸口大再倍於人迎, 虛者, 寸口反小於人迎也.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盛者, 寸口大一倍於人迎, 虛者, 寸口反小於人迎也.

形氣는 위로는 약간 기침을 하고 움직이면 기침이 심하며 肢體가 無力하고 자나깨나 안절부절못한다. 虛損이라고 하기에는 咳嗽나 失血 등의 證이 본래 없고, 痰火라고 하기에는 實邪로 인한 發熱 등의 증상이 없으니 이것이 關格의 다른 점이다.”<sup>293)</sup>라고 하였다. 그 病因에 대하여는 “富貴한 사람과 몸이 肥大한 사람에게 關格이 많으며 그 原因을 찾아보건대 잠자리에서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하고 中年에 酒色을 탐한 까닭이다.”<sup>294)</sup>라고 하였다. 또 그 病機를 “酒色으로 腎臟을 損傷하고 情慾으로 精을 損傷하여 陽이 집을 지키지 못하므로 脈이 浮하고 氣가 露出되고, 이와 같이 亢이 極한 것이니, 이는 眞陰이 敗竭하여 元海가 바탕이 없어진 것으로 “亢龍有悔”의 象이고, 가장 危急한 症候이다.”<sup>295)</sup>라고 하였다.

4. 『難經·三十七難』에는 “陰氣가 太盛하면 陽氣가 經營할 수 없으므로 格이라 하고, 陽氣가 太盛하면 陰氣가 經營할 수 없으므로 關이라 한다.”<sup>296)</sup>이라 하여 『靈樞脈度』에 “陰氣가 지나치게 盛하면 陽氣가 經營할 수 없으므로 ‘關’이라 한다. 陽氣가 지나치게 盛하면 陰氣가 經營할 수 없으므로 ‘格’이라 한

다.”<sup>297)</sup>라고 한 內容과 相異하다. 人迎으로 陽을 살피는데 人迎이 四倍 以上 盛하면 格陽이므로, 陽氣가 太盛하면 格이라 해야 하고, 寸口로 陰을 살피는데 寸口가 四倍 以上 盛하면 關陰이므로, 陰氣가 太盛하면 關이라 해야 한다. 따라서 『靈樞脈度』의 內容이 옳다.

### 孕脈 十九

#### 第 19 節 妊娠脈

##### 【原文】

平人氣象論에 曰 婦人手少陰脈<sup>1)</sup>이 動<sup>2)</sup>甚<sup>(1)</sup>者는 任子<sup>(2)</sup>也라하니라

陰陽別論에 曰 陰搏陽別<sup>(3)</sup>을 謂之有子라하니라

腹中論에 帝 曰 何以知懷子之且生也오 岐伯이 曰 身有病而無邪脈<sup>(4)</sup>也이라하니라 ○ 本篇諸義는 具詳婦人門胎孕條中이라

##### 【校勘】

1) 手少陰 ; 『素問·平人氣象論』의 新校正에 ‘全元起本에는 ‘足少陰’으로 되어있다.’<sup>298)</sup>라고 하였다.

2) 動 ; 『毘陵章氏』에는 없다.

##### 【註釋】

( 1 ) 手少陰脈 動甚(수소음맥 동심) ; 手少陰에 대하여, 王冰은 手少陰心經의 神門穴이라<sup>299)</sup> 하였으나, 張介賓은 左寸에서도 역시 應한다고<sup>300)</sup> 하였다. 動甚이란 미끈하고 滑하게 搏動하는 것이다.<sup>301)</sup>

297)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p. 30. 陰氣太盛則陽氣不能榮也, 故曰關, 陽氣太盛則陰氣弗能榮也, 故曰格, 陰陽俱盛, 不得相榮, 故曰關格, 關格者, 不得盡期而死也.

298)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44. 新校正云 按全元起本, 作足少陰.

299)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44. 手少陰脈, 謂掌後陷者中, 當小指動而應手者也.

300)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0. 手少陰, 心脈也. 脈要精微論曰 上附上, 左外以候心, 故心脈當診於左寸. ……然以余之驗, 左寸亦應.

293) 張介賓.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368. 余嘗診此數人, 察其脈則如弦如革, 洪大異常, 故云四倍, 察其證則脈動身亦動, 凡乳下之虛里, 臍傍之動氣, 無不春春然振振然與脈相應者, 察其形氣, 則上有微喘, 而動作則喘甚, 肢體而力, 而寤寐多慌張. 謂其爲虛損, 則本無效嗽失血等證, 謂其爲痰火, 則又無實邪發熱等證, 此關格之所以異也. \* 慌張(황장) ; 안절부절못하다.

294) 張介賓.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368. 然惟富貴之人及形體豐肥者, 多有此證, 求其所因, 則無非耽嗜少艾, 中年酒色所致, 是雖與勞損證若有不同, 而實即勞損之別名也. 此老成之人所以當知慎也. \* 小艾(소애) ; 젊고 아름다운 여자.

295) 張介賓.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368. 凡見此者, 總由酒色傷腎, 情慾傷精, 以致陽不守舍, 故脈浮氣露, 亢極如此, 此則眞陰敗竭, 元海無根, 是亢龍有悔之象, 最危之候也.

296) 張介賓.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50. 邪在六府, 則陽脈不和, 陽脈不和, 則氣留之, 爲留之, 則陽脈盛矣. 邪在五臟, 則陰脈不和, 陰脈不和, 則血留之, 血留之, 則陰脈盛矣. 陰氣太盛, 則陽氣不得相營也, 故曰格. 陽氣太盛, 則陰氣不得相營也, 故曰關. 陰陽俱盛, 不得相營也, 故曰關格. 關格者, 不得盡其命而死矣. 秦越人.

(2) 任子(임자) ; 아이를 妊娠한 것이다. 여기서 子의 뜻은 男子와 女子의 通稱이다.<sup>302)</sup>

(3) 陰搏陽別(음박양별) ; 尺脈의 搏動이 힘이 있어서 寸口脈과 현저하게 구별되는 것이다.<sup>303)</sup> 張介賓은 手少陰 또는 足少陰의 陰脈의 搏動이 陽邪와 비슷하여 힘이 있지만 그 鼓動이 滑利하여 별도의 調和로움이 있는 脈象이라<sup>304)</sup> 하였다.

(4) 身有病而無邪脈(신유병이무사맥) ; 몸에 病이 있다는 것은 月經이 없고, 惡阻가 있으며, 움직이기 귀찮아하는 것들이다. 몸에 病이 있으면 脈도 역시 病이 있어야 하니, 或은 끊어지다 이어지다 하여 고르지 못하거나 或은 弦濇細數하는 것은 모두 邪脈이고 진짜로 病이다. 만약 六脈이 和滑한데 몸이 편안치 않은 것이 있으면 아이를 孕胎한 것이 틀림없다.<sup>305)</sup>

【國譯】

「平人氣象論」에 “婦인이 手少陰脈의 搏動이甚하면 妊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陰陽別論」에 “尺脈의 搏動이 힘이 있어서 寸口脈과 구별되면 脈속이 아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腹中論」에 黃帝께서 “脈속의 아이가 장차 태어나는 것을 어찌 알니까?”라고 물으시니, 岐伯이 “몸에 病이 있으나 邪氣의 脈이 없습니다.”라고 대답

하였다. 이 篇의 여러 뜻은 모두 婦人門의 胎孕條에 상세히 적혀있다.

【考察】

1. 妊娠을 區別할 수 있는 經脈에 대하여 「平人氣象論」엔 “婦인이 手少陰脈의 搏動이甚하면 妊娠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新校正엔 手少陰이 ‘全元起本에는 ‘足少陰’으로 되어있다.’<sup>306)</sup>라고 하였다. 張介賓은 “手少陰은 心脈이다. 心은 生血하고, 血이 旺盛하여야 能히 孕胎할 수 있으니, 婦인이 心脈의 搏動이甚하다는 것은 血이 旺盛하여 그런 것이므로 妊娠한 것이다.”<sup>307)</sup>라고 하였으나, 「陰陽別論」 “陰搏陽別謂之有子”의 註釋에는 “陰은 앞서와 같이 手少陰이다. 或 足少陰을 兼하여 말한다 해도 옳다. 왜냐하면 心은 血을 主宰하고 腎은 子宮을 主宰하므로 모두 胎孕의 主宰가 되기 때문이다.”<sup>308)</sup>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張介賓은 手少陰도 되고, 足少陰도 된다는 견해이다.

구체적인 部位에 대하여 「脈要精微論」에 “上附上……左外以候心”이라 하였으므로 心脈은 左寸에서 診脈하여야 한다고 하였다.<sup>309)</sup> 王冰이 “手少陰脈은 손바닥 뒤의 陷沒된 부위이니 小指쪽의 動脈이 손에 應하는 곳이다.”<sup>310)</sup>라고 한 것에 대하여, 神門穴이 맞지만 자신의 經驗으로는 左寸에서도 역시 應한다고 하였다.<sup>311)</sup> 그러므로 張介賓은 神門穴을 볼 수도 있지만 左寸部를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견해이다.

30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0. 動甚者, 流利滑動也.  
 302)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0. 愚按, 妊子有子之義, 乃男子女子之通稱. 蓋本經以孕育爲言, 而於男女皆稱子, 非男曰子而女則否也. 後世以此爲男子者非.  
 303) 王琦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45. 指尺脈(陰)搏動有力, 而與寸口(陽)有顯著的區別.  
 304)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0. 陰, 如前手少陰也, 或兼足少陰而言亦可. ……陽別者, 言陰脈搏手, 似乎陽邪, 然其鼓動滑利, 本非邪脈. 蓋以陰中見陽, 而別有和調之象, 是謂陰搏陽別也.  
 305)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368. 身有病, 謂經斷惡阻之類也. 身病者脈亦當病, 或斷續不調, 或弦濇細數, 是皆邪脈, 則眞病也. 若六脈和滑而身有不安者, 其爲胎氣無疑矣.

306)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44. 新校正云 按全元起本, 作足少陰.  
 307)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0. 手少陰, 心脈也. ……心生血, 血王乃能胎, 婦人心脈動甚者, 血王而然, 故當妊子.  
 308)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0. 陰, 如前手少陰也, 或兼足少陰而言亦可. 蓋心主血, 腎主子宮, 皆胎孕之所主也.  
 309)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0. 手少陰, 心脈也. 脈要精微論曰 上附上, 左外以候心, 故心脈當診於左寸.  
 310) 王冰. 內經素問(四部備要, 卷65). 中華書局. 臺北. 1989. p. 44. 手少陰脈, 謂掌後陷者中, 當小指動而應手者也.  
 311)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130. 啓玄子云, 手少陰脈, 謂掌後陷者中, 當小指動而應手者也, 蓋指心經之脈, 卽神門穴也, 其說甚善. 然以余之驗, 左寸亦應.

2. 妊娠脈의 脈象을 本文에 ‘動甚’, ‘陰搏陽別’, ‘無邪脈’이라 하였는데, 張介賓은 그 特徵이 부드럽고 滑하게 搏動하는 象에 있다고 하였다. 즉 “婦人이 懷妊을 하면 血이 머물고 氣가 모여서 子宮 안이 實해 지므로, 脈이 반드시 平常時보다 倍로 滑數하니 이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中年에 受胎하거나 血氣가 羸弱한 婦人의 경우에는 脈이 細小하고 數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다만 微弱한 가운데 반드시 隱隱하게 滑動하는 象이 있다. 이것이 곧 妊娠의 脈이니 分辨할 수 있다. 또한 妊娠하여 脈이 數한 것은 勞損으로 脈이 數한 것과 크게 비슷하지만, 虛損의 數脈은 弦澁을 兼하는 수가 많으나, 妊娠의 數脈은 반드시 和滑을 兼한다. 妊娠의 幾微가 보일 때, 그 邪氣와 胃氣의 差異를 分辨하고 다시 證을 살피면, 저절로 明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sup>312)</sup>고 하였다.

## 乳子脈 二十

### 第 20 節 小兒의 脈

#### 【原文】

通評虛實論에 帝<sup>1)</sup>曰 乳子<sup>1)</sup>而病熱에 脈懸小<sup>2)</sup>者는 何如오 岐伯이曰 手足이 溫則生하고 寒則死니이다 ○ 帝曰 乳子中風熱<sup>3)</sup>하야 喘鳴肩息<sup>4)</sup>者는 脈이 何如오 曰 喘鳴肩息者는 脈實大也니 緩則生하고 急則死라하니라 ○ 此條詳義는 具載小兒本門이라

#### 【校勘】

- 1) 帝; 『崑陵章氏』에는 없다.
- 2) 乳子中風熱; 『崑陵章氏』에는 ‘乳中子風熱’로 되어있다.

312) 張介賓.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p. 835. 凡婦人懷孕者, 其血留氣聚, 胞宮內實, 故脈必滑數倍常, 此當然也. 然有中年受胎, 及血氣羸弱之婦, 則脈見細小不數者亦有之, 但於微弱之中, 亦必有隱隱滑動之象, 此正陰搏陽別之謂, 是即妊娠之脈, 有可辨也. 又胎孕之脈數, 勞損之脈亦數, 大有相似. 然損脈之數, 多兼弦澁, 胎孕之數, 必兼和滑, 此當於幾微中, 辨其邪氣胃氣之異, 而再審以證, 自有顯然可見者

#### 【註釋】

- (1) 乳子(유자); 乳子是 嬰兒이다.<sup>313)</sup>
- (2) 脈懸小(맥현소); 脈氣가 끊어질 듯이 細小한 것.<sup>314)</sup> 懸(현)은 물건을 매단 끈이 끊어지려 하는 것 같이 脈氣가 끊어지려 하는 것이다.<sup>315)</sup>
- (3) 風熱(풍열); 風과 熱이 서로 結合한 病邪로, 臨床에서 發熱은 심하고, 惡寒은 비교적 가벼우며 咳嗽, 口渴, 舌邊尖紅, 苔微黃, 脈浮數 等の 症이 있으며, 심하면 口燥, 目赤, 咽痛, 衄血 等の 症이 있다. 治法은 疏風清熱을 主로 한다.
- (4) 喘鳴肩息(천명견식); 喘鳴이란 숨이 가쁘고 목구멍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 것이고, <sup>316)</sup> 肩息이란 호흡이 곤란하여 입을 벌리고 어깨가 들어서 호흡하는 모양이다.<sup>317)</sup>

#### 【國譯】

「通評虛實論」에 黃帝께서 “젓먹이가 病으로 熱이 날 때 脈이 끊어질 듯이 細小한 것은 어떠한가?” 라고 물으시니, 岐伯이 “手足이 따뜻하면 살고, 차면 죽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黃帝께서 “젓먹이가 風熱邪의 침범을 받아 숨이 가빠서 어깨를 들고 숨을 쉬면 脈이 어떠한가?”라고 물으시니, “숨이 가빠서 어깨를 들고 숨을 쉬면 脈이 實大하다. 緩하면 살고 急하면 죽는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條의 詳細한 뜻은 모두 小兒門에 있다.

#### 【考察】

1. 張介賓은 小兒診察에 있어서 虎口三關脈法에 치우친 當時의 의사들을 비판하여 “무릇 小兒는 形體가 갖추어지면 經脈이 이미 온전하므로 처음으로 胞

313) 張介賓. 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p. 344. 乳子, 嬰兒也.

314) 王琦 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p. 148. 脈象懸絶細小.

315)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223. 【懸絶】 脈氣將絶, 猶如懸物的繩索將斷.

316)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115. 【喘鳴】 哮喘喉鳴.

317)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p. 425. 【肩息】 呼吸困難, 張口擡肩的樣子.



### 第 4 節 七診

1. 七診에서 大小는 脈의 크기를, 疾遲는 빠르기를 말하는데, 寒熱은 病因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즉, 熱로 인한 病은 上部나 表部에, 寒으로 인한 病은 下部나 裏部에 脈이 나타난다. 七診은 氣口部位에서도 類推하여 應用할 수 있다.

2. 勿聽子 熊宗立이 『素問脈要精微論』의 平旦診法을 七診이라 잘못 命名하여 後世에 이를 踏襲하므로 張介賓이 이는 참으로 듣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 第 5 節 六經脈의 體狀

1. 六氣가 勝하였을 때의 脈狀을 제시하여 六經의 脈體를 설명하였는데, 두 篇의 用語는 같으나 內包하는 의미가 다르다. 「平人氣象論」에서는 寒暑로 陰陽을 나누었고, 「至真要大論」에서는 六氣로 陰陽을 나누었으므로 「平人氣象論」의 三陽은 계절을 의미하고, 「至真要大論」의 三陰三陽은 六氣를 의미한다.

2. 「平人氣象論」에는 단지 三陽만을 말하고 三陰은 말하지 않았다. 『難經七難』에는 三陽脈 외에 三陰脈에 대한 내용이 더 있다.

### 第 6 節 四時脈의 體狀

1. 本文에 脾脈이 좋은 것은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脾藏의 正常脈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脈이나 모양이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 第 7 節 胃氣

1. 胃氣란 食物을 먹었을 때 五味가 胃에 들어가 생긴 氣運으로, 즉 穀氣가 변하여 胃氣가 되며, 胃氣는 다시 元氣의 형태로 貯藏된다. 胃氣는 그 脈狀이 和緩하다. 따라서 胃氣가 있으면 비록 病이 있어 脈이 浮沈遲數하더라도 반드시 부드럽고 미끄러우면

서 느리고 조화로운 脈狀을 겸하게 되고 그러면 害가 없다.

2. 脈이 忽大忽小하고 乍遲乍數하여 문득 바뀌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모두 代脈이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代'란 교대한다는 뜻으로, 一年에 네 季節이 교대로 나타나듯 脈이 교대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이는 胃氣의 作用이다.

3. 脾胃는 본래 土에 屬하고 胃氣의 脈은 和緩한데, 土는 木의 剋制를 받으므로, 木의 맥인 弦強한 맥이 나타나면 木克土가 되어 좋지 않은 징후이다. 따라서 脈이 弦急해지면 病氣가 커지고 病이 점차 심해지는 것이다.

### 第 8 節 脈의 六變

1. 脈의 緩急, 大小, 滑濇으로 病變을 정하여, 이로써 諸脈을 總括할 수 있는 綱領을 삼았으나, 가령 四診을 相參하지 못하고 孟浪하게 마음대로 診斷한다면 쉽게 사람을 誤診할 수 있다. 이 때문에 脈의 理致는 말로 하기 어렵고 터럭같이 작은 것 하나도 分辨하지 않을 수 없다.

### 第 9 節 脈의 內外와 上下

1. 張介賓은 內外는 沈浮로, 上下는 寸尺으로 註釋하였다.

2. 疾病을 診察할 때에는 마땅히 脈을 內外上下로 推究하여 의심나거나 비슷한 것을 分辨하여 決斷하여야 한다. 아울러 脈뿐만 아니라 四診을 합하고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第 10 節 脈象과 顔色, 尺膚의 關係

1. 이 節에서는 醫師의 水準을 明神工으로 구분하였으나, 神聖工巧로 區分하였다.

### 第 11 節 人迎 氣口

1. 張介賓은 人迎은 본래 足陽明經脈으로 結喉의

兩傍에 있고 氣口는 手太陰經脈으로 兩手의 寸口에 있으며, 王叔和가 左手는 人迎이고 右手는 氣口이며 左로써 表를 살피고 右로써 裏를 살핀다고 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비판하였다.

2. 人迎氣口의 診法은 上古의 診法으로, 氣口는 陰을 살피고 人迎은 陽을 살핀다. 그러나 張介賓 當時에도 寸口診法만을 사용하였다.

## 第 12 節 脈은 從하나 病이 反인 경우

1. 脈이 浮大하다거나 細小하다고 하여 바로 陽證이다, 陰證이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有力, 無力을 살피서 세심히 관찰하여야 眞熱假寒, 眞寒假熱의 病을 誤治하지 않을 수 있다.

## 第 13 節 搏堅과 軟散

1. 張介賓은 이 節에 五藏의 脈과 病을 말하면서 하나는 搏堅하면서 長하다고 하고 하나는 軟하면서 散하다고 하였으나, 그 病은 모두 不足한 것이다. 搏堅하면서 長한 것은 邪氣가 正氣를 勝한 것이니, 이를 邪氣가 모이는 곳은 반드시 그 氣가 虛하다고 하고, 軟하면서 散한 것은 本原이 不足한 것이니 이를 正氣를 빼앗기면 虛하다고 한다. 前者는 虛實이 挾雜 되었으므로 孰多孰少를 따져서 치료해야 하고, 後者는 오로지 虛한 것이므로 補法으로 치료해야 한다.

2. 底本에는 “肺脈搏堅而長 色不青 當病墜若搏 因血在脇下 令人喘逆 其軟而散 色澤者 當病溢飲”으로 되어있으나, 『類經』, 『素問』, 『太素』, 『甲乙經』에는 “肺脈搏堅而長 當病唾血 其軟而散者 當病灌汗 至令不復散發也 肝脈搏堅而長 色不青 當病墜若搏 因血在脇下 令人喘逆 其軟而散 色澤者 當病溢飲”으로 되어있어서, 肝脈의 病症이 肺脈의 病症으로 記述되어 있고, 肺脈의 病症은 빠져있는데, 이는 轉寫過程의 잘못으로 思料된다.

3. ‘心脈……其軟而散者 當消環自己’에 대하여 張介賓은 “한 周期가 다하면 病이 저절로 낫는다.”라고 註釋하였으나, 『太素·五藏脈診』, 『甲乙·卷四·第一

中』에 ‘消環’이 ‘消渴’로 되어있는 것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第 14 節 寸口의 여러 가지 脈

1. 寸口에서 나타날 수 있는 脈象과 그 病症을 제시하였는데, 寒熱, 疝瘕·少腹痛, 熱中, 脫血에 대하여 두 가지 脈象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 病因·病機가 다르기 때문이며, 한 가지 證狀에 한 가지 脈象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四診을 모두 參考하여 細心하고 正確한 診察을 해야 한다.

2. ‘尺脈緩澁 謂之解體’에 대하여 張介賓은 尺部の 脈이 緩澁한 것으로 보았으나, ‘尺脈緩澁’을 ‘尺緩脈澁’으로 고쳐서 尺膚가 늘어지고 脈이 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第 15 節 諸脈의 病證

1. ‘陽加於陰謂之汗’에 대하여, 張介賓은 陰의 脈位에 陽의 脈體가 많이 나타나면 汗이 많다고 하여 脈으로 설명하였으나, 尺部에 大浮滑數動의 陽脈이 나타나면 汗이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陰虛陽搏謂之崩’에 대하여, 馬蒔는 陰, 陽을 尺, 寸으로 보았고, 白話解엔 陰이 虛하여 陽이 旺盛하면 血을 逼迫하여 妄行한다고 하여 病理로 설명하였으나, 張介賓의 주장대로 浮取하면 힘이 있으나 沈取하면 힘이 없으면 崩症이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第 16 節 病의 易治, 難治

1. 病이 內部에 있든 外部에 있든 病이 實하면 脈도 實해야 하고 病이 虛하면 脈도 虛해야 한다. 症과 脈이 서로 符合하면 易治이고 症과 脈이 서로 相反되면 難治이다.

## 第 17 節 眞臟脈

1. 胃氣는 곧 사람의 陽氣이니, 陽氣가 衰하면 胃

氣가 弱하고 陽氣가 무너지면 胃氣가 끊어지며, 이는 곧 死生의 큰 根本이다.

2. 張介賓은 胃氣를 사람의 陽氣에 연결시킨 것에 대하여 葉桂는 一陽氣를 創案해냈다고 비판하였으나, 脈에는 陰과 陽이 모두 있고, 陰의 바탕 위에서 陽氣가 生動하는 것이므로, 胃氣를 陽氣에 連繫시킨 張介賓의 주장이 그르다고 할 수 없다.

### 第 18 節 關格

1. 關格에 대하여 關格에 대하여, 脈象, 病名, 病機로서의 意味가 混用되어 왔다. 張介賓은 關格이 小便不通, 吐逆의 病證과는 다르고 脈象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2. 張介賓은 關格의 脈症과 病因, 病機를 제시하였다. 즉, 寸口脈은 弦한 듯, 革한 듯하면서 洪大함이 正常과 다르고, 症狀는 脈이 뒹 때 몸도 같이 움직이고 虛里脈과 臍傍의 動氣가 脈과 같이 방아 찧듯이 흔들흔들하며, 形氣는 위로는 약간 기침을 하고 움직이면 기침이 심하며 肢體가 無力하고 자나깨나 안절부절못한다. 이는 酒色으로 腎臟이 損傷되고 情慾으로 精이 損傷되어 眞陰이 虧損된 위급한 증후이다.

3. 『難經三十七難』과 『靈樞脈度』의 關格에 대한 內容과 相異하다. 人迎으로 陽을 살피는데 人迎이 四倍 以上 盛하면 格陽이므로, 陽氣가 太盛하면 格이라 해야 하고, 寸口로 陰을 살피는데 寸口가 四倍 以上 盛하면 關陰이므로, 陰氣가 太盛하면 關이라 해야 한다. 따라서 『靈樞脈度』의 內容이 옳다.

### 第 19 節 妊娠脈

1. 婦인이 懷妊을 하면 血이 머물고 氣가 모여서 子宮 안이 實해지므로, 脈이 반드시 平常時보다 倍로 滑數하며, 中年에 受胎하거나 血氣가 羸弱하여 脈이 微弱하더라도 반드시 隱隱하게 滑動하는 象이 있다. 또한 妊娠하여 脈이 數하여 勞損으로 인한 脈數과 크게 비슷하나, 妊娠의 數脈은 반드시 和滑을 兼한다. 妊娠의 幾微가 보일 때, 그 邪氣와 胃氣의 差異를 分辨하고 다시 證을 살피면, 저절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2. 妊娠을 區別할 수 있는 脈位에 대하여 張介賓은 手少陰도 되고, 足少陰도 된다는 견해이다. 구체적인 穴位에 있어서는 神門穴을 볼 수도 있지만 左寸部를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보았다.

3. ‘妊子’, ‘有子’에서 子의 뜻은 男子와 女子의 通稱이다. 『內經』에 孕育을 가지고 말하였으므로 男女를 ‘子’라고 稱하였고 男을 子라 하고 女는 아닌 것이 아니다. 後世에 이 글을 가지고 男女를 區別하는 것은 잘못이다.

### 第 20 節 小兒의 脈

1. 小兒를 診察할 때에는 脈을 위주로 해야 하고 顔色 呼吸소리를 참고하여야 한다. 小兒의 脈은 다만 強弱, 緩急 네 가지 脈만 살피면 되는데, 強弱으로 虛實을 볼 수 있고 緩急으로 邪正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參考文獻

<논문>

1. 金憲. 脈經卷之四 雜病脈 및 生死脈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6.
2. 成百萬. 脈經의 脈形象指下秘訣에 대한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益山. 2001.

<단행본>

1. 李南九. (懸吐註釋) 景岳全書. 범인문화사. 서울. 2002.
2. 李浚川 編, 張敬善 等譯. 醫易學思想. 범인문화사. 서울. 2000.
3. 張介賓. 張景岳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4. 張介賓. 景岳全書.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9.
5. 馬蒔.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9.

6.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9.
7. 張機. 傷寒論(中華醫書集成. 第二冊).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9.
8. 張機. 金匱要略方論(中華醫書集成. 第二冊).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9.
9. 成無已. 注解傷寒論(中華醫書集成. 第二冊). 中醫古籍出版社. 北京. 1999.
10. 高世忞. 黃帝素問直解(第三版). 科學技術文獻出版社. 北京. 1998.
11. 朴晷. 譯釋 脈語. 大星文化社. 서울. 1997.
12. 傳統醫學研究所. 한의학사전. 成輔社. 서울. 1997.
13. 朴晷. 入門診斷學譯釋. 대성문화사. 서울. 1996.
14. 李杲. 東垣十種醫書. 大星文化社. 서울. 1996.
15. 金赫濟·金星元. 明文漢韓大字典. 明文堂. 서울. 1995.
16. 李宇柱. 醫學辭典. 아카데미서적. 서울. 1996.
17. 張登本·武長春. 內經詞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5.
18. 張介賓. 景岳全書.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4.
19. 金元中. 虛辭辭典. 玄岩社. 서울. 1994.
20. 朱震亨.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3.
21. 朴晷. 國譯 瀕湖脈學. 대성문화사. 서울. 1992.
22. 周學霆. 三指禪. 中國中醫藥出版社. 北京. 1992.
23. 張介賓. 景岳全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24. 王叔和 著, 沈炎南 主編. 脈經校注.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91.
25. 編輯局. 民衆옛센스國語辭典. 民衆書林. 서울. 1991.
26. 皇甫謐. 黃帝鍼灸甲乙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北京. 1990.
27. 趙恩儉. 中醫脈診學. 天津科學技術出版社. 天津. 1990.
28.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서울. 1989.
29. 中華書局. 周易(四部備要. 第1冊). 中華書局. 北京. 1989.
30. 中華書局. 四部備要(第65冊). 中華書局. 北京. 1989.
31. 稻葉克. 和久田寅. 腹證奇覽. 中國書店. 北京. 1988.
32. 編輯部. 辭源. 商務印書館. 北京. 1988.
33. 程士德. 內經.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7.
34. 車相轅 譯. 書經. 明文堂. 서울. 1984.
35. 山東中醫學院河北醫學院. 黃帝內經素問校釋.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2.
36. 王琦 等. 素問今釋. 貴州人民出版社. 1981.
37.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38.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樂群出版公司. 臺北. 1977.
39. 張介賓. 張氏類經.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40. 張介賓. 類經圖翼. 新文豐出版公司. 臺北. 1976.
41. 丹波元簡. 素問識(皇漢醫學叢書. 總類一). 廣法社. 서울. 1975.
42. 謝觀. 東洋醫學大辭典. 上海商務印書館 出版. 高文社 影印. 서울. 1970.
43. 編輯局.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서울. 1966.
44. 張介賓. 景岳全書(岳峙樓藏板). 上海衛生出版社 影印. 上海. 1958.
45. 山東省中醫學院. 黃帝內經素問白話解. 刊行處未詳. 1958.
46. 張介賓. 張氏景岳全書. 廣益書局. 上海. 1933.
47. 張介賓. 張氏景岳全書. 育文書局. 上海. 1913.
48. 張介賓. 景岳全書. 上海圖書集成印書局. 上海. 1894.
49. 葉桂. 景岳全書發揮(眉壽堂原本). 醉六堂. 刊

- 行地不明. 1879.
50. 張介賓. 景岳全書(金閫書業堂藏板). 刊行處不明. 刊行地不明. 1819.
51. 張介賓. 景岳全書(文淵閣四庫全書. 卷777-778). 刊行處不明. 刊行地不明. 1781.
52. 張介賓. 景岳全書(越郡蔡照樓藏板). 刊行處不明. 刊行地不明. 1768.
53. 張介賓. 景岳全書(嘉興九思堂藏板). 刊行處不明. 刊行地不明. 刊行年不明.
54. 張介賓. 張氏景岳全書(毘陵章氏藏板). 刊行處不明. 刊行地不明. 刊行年不明.
5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刊行年不明.
56. 친문학과 한의학(著者, 刊行處, 刊行地, 刊行年 未詳)

